

平和神經

평화메시지와 영계보고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머 리 말

사랑하는 전세계 축복가정, 평화대사,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평화메시지로 선포하신 16편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지침이 되고 영구 평화세계 실현에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은 우리와 같은 범인들과 다르십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무형의 종적 참부모님이시요, 천지인 참부모님은 유형의 횡적인 참부모님이십니다. 참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중생을 위해 양위분을 통해 접붙임을 받아야만 하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을 그림자 없이 90도 각도의 수평선상에서 횡적으로 실체화시킬 수 있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참왕의 현현은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가능하게

하시고, 창조 이후 최초로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부모님입니다.

평화이상세계 실현은 인류의 소망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통한 참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외적인 기반을 닦으시기 위한 참부모님의 생애에 걸친 희생과 그 업적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대표적인 운동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참사랑을 근본으로 한 절대가치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축복결혼을 통한 참부모·참가정 실현운동, 승공이념과 두의사상에 의하여 유물 공산사상을 극복하고 냉전시대의 종결을 이끌어낸 일, 반세기 이상 끊임없는 투자와 정성을 다해 펼쳐 온 종단간의 화해 협력을 모색하는 초종교 평화운동, 다양하고 지속적인 구호 봉사 활동과 교차-교체 축복결혼행사 등을 포함한 초인종적인 인류한 형제운동, 도서·반도·대륙별 국가연합과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등에 의한 초국가적 평화운동, 그리고 나아가 세계 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을 모체로 한 천주평화연합 창설과 아벨 유엔 운동, 평화경찰과 평화군·평화교정단 활동 등을 통한 영구 평화세계 창건운동, 이 외에도 참부모님께서 전개해 오신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산업 분야 등 실로 다양한 세계적인 실적 기반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류의 궁극적 소망인 자

유 · 평화 · 통일 · 행복의 이상세계 실현이라는 한 목적에 귀결되는 경이적인 업적들입니다.

이 모든 외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두 번째 내적이요 근본 요인은 창조본연의 이상가정의 안착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참사랑은 인간시조 아담가정에서 3대에 걸쳐 실체로 결실되어 사위기대를 완성할 때 안착하는 것입니다. 즉 종적인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 참혈통이 지상에서 횡적으로 안착되는 것은 아담 해와를 중심으로 자녀와 손자손녀, 이렇게 3대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손자손녀를 품어 보지 못한 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지난 2005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시고 제1차적으로 세계 120개 국가를 순회하시면서 각국에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연이어 제2차적으로 참부모의 위상으로 참어머님께서 아벨과 가인 자녀를 거느리고 천도의 선포와 함께 국가기준의 축복결혼식을 거행하면서 180개 국을 순회하셨습니다.

이 기대 위에서 참부모님께서 2006년 8월 28일 네 분의 손자손녀들을 성혼축복하심으로써 완결된 사위기대 3대권의 이상가정 축복권의 승리기반을 세우셨습니다. 손자손녀 네 분의 축복성혼 후, 참가정 3대가 함께 동원되어 나서신 제3차 세

계순회 대회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적 참사랑의 이상이 3대권 사위기대 완성으로 지상에 안착한 천주사적 승리기대를 상속하는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2007 참부모님 탄신 및 참아버님 미수기념일을 맞아 본 평화메시지를 40개 국어로 번역 출간하여 1만2천 명의 평화대사들로 하여금 지구촌 곳곳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되게도 참부모님과 동시대권에 살면서 그 섭리적 천운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거되고도 남는 지극히 높은 이념과 기적적인 실적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전세계를 순회하시며 선포하신 평화메시지와, 영계 각 종단 대표들과 영계 공산권 대표들의 영계보고서를 합본하여 《平和神經(평화신경)》으로 명명해 주시며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온 인류의 생애 지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자제위께서는 본서를 삶의 지침으로 삼아, 이미 참부모님께서 본보이신 참사랑의 길을 닦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천일국 7년(2007년) 10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차 례

평화메시지

I.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I	11
II.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	36
III.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 I	51
IV. 후천개벽시대의 종족 메시아 사명	72
V. 천일국은 태평성대의 이상천국	84
VI. 한국타임즈항공 김포항공산업단지 기공식	94
VII.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II	98
VIII.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 II	118
IX.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III	139
X. 하나님의 절대평화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왕국	165
XI. 후천개벽시대의 평화대사 사명	192
XII.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천일국 백성의 소명적 책임	207

XIII.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 I	225
XIV. 가정맹세의 가치와 그 의의	247
XV.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사상	272
XVI.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 II	282

부록 : 영계보고서

◆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313
◆ 4대 성인 및 소크라테스, 어거스틴의 통일원리세미나 메시지	317
◆ 영계 5대 종단 대표 결의문	343
◆ 영계 5대 종단 대표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345
1. 기독교 대표 12인	345
2. 불교 대표 12인	376
3. 유교 대표 12인	399
4. 이슬람 대표 12인	421
5. 힌두교 대표 12인	439
◆ 영계 공산권 대표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461
◆ 역대 미국 대통령 영계보고서	487
◆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결의문 채택과 선언식	497

평화메시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평화메시지 I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I

천주적 이상향을 향해 세계평화 구현을 이루고자 지구성 도
처에서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주평화연합을 모델 국제연합
(UN)형으로, 그리고 천일국을 전세계 각 국가들이 힘을 합해
‘평화이상세계왕국’으로 창건해 나가기 위한 천주평화통일가정
당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격상시켜 ‘천일국평화통일당’으로
거듭나게 할 본 대회를 빛내 주기 위해 수천 수만리를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인류는 실로 역사적인 대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개최된 천주평화
연합 창설 때 하신 말씀을 기초하여 천주평화연합 120개국 창설 세계순회대회 및 천
주평화연합 조국향토 180개국 환원대회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것이나, 아니면 20세기까지 반복되어 왔던 암울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식민지 쟁탈전과 제1·2차 세계대전, 한반도에 서의 6·25전쟁, 동서 냉전 등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전쟁과 반목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애의 전과정을 하나님의 평화이상 세계왕국의 구현을 위해 바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된 국제연합(UN)이 영원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평화의 기구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창설을 본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했던 훌륭한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설 60년을 넘긴 오늘 의 위상은 그 본래의 창설목적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200개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국의 권익만을 대변하고 주장하는 유엔 대표부들의 역할은 이제 세계분쟁의 해결과 세계평화 구현에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출범을 본 후 세계 120개국을 순회하며 선포한 ‘천주평화연합’의 창설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하늘과 땅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이상인 평화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이
상세계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격 유
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 창설 메시지가말로
전인류가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후천개벽시대를 살아가는 좌
우명으로 삼아 실천궁행하라고 주신 하늘의 특별 축복이자 경
고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한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십시오. ‘부자(父子)관계’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상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관계입니다. 참부모의 참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참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참사랑의 상대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아들딸이 되는 축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도 더 높고 귀한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또 그 자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는 당신을 위해 숨겨 놓

고, 당신의 자식이요 사랑의 절대 상대자 되는 아담 해와에게는 두 번째 좋은 자리에 세워 창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100퍼센트 당신 전체를 투입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위권 · 동참권 · 동거권 · 상속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서라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악가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무인도에 버려져 혼자서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상대자로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고, 당신과 동격의 자리에 세워 함께 창조의 위업을 완성할 수 있으며, 천지만물을 모두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이상적 출발점을 어디에 두신지 아십니까?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원칙에 당신의 이상적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사랑의 소망적 상대를 위한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역사 출발의 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 된 인간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는 참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내정을 알아내어 아담 해와의 타락이래 수천 수만년을 고통 속에 살아오신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배후에서 수난을 감내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아담 해와의 본연의 자리, 즉 완전한 후아담의 현현을 기다려야 할 복귀섭리에 얽힌 말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영원의 기준 위에 세운 천리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

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 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핏줄이 없으면 생명은 물론 사랑도 떠나가 버립니다. 핏줄이 남아야만 사랑했던 자신의 전통이 남아지고, 혈통이 존속해야만 부모의 숨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혈통의 열매, 그리고 모든 기쁨의 열매를 제공하는 첫 번이자 마지막 필요 충분한 조건은 참된 핏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생명과 참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5억 인류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농사가 대풍(大豊)을 만나 가을에 수확하 시려 했던 그 동산이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 두 아들딸을 길러 참사랑을 꽃피우고, 참생명을 꽃피우고, 참핏줄을 꽃피운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혈통의 주인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수확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참부모 찾아 나온 하늘의 고통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 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 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의 후에 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



▲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 환원대회 전국대회 전경(2006.4.3,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그들을 당신의 축복하에 결혼시키고 하늘의 소유권까지도 완전히 전수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주만상의 소유권을 아담과 해와에게 상속해 주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새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 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 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

습니다.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아버지 참어머니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좋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지내고, 일년, 십년, 혹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본 하나님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일년은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까?

수천 수만년을 거쳐오면서도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사이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에서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역사는 인류 역사를 뭉땅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가,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져 대립 투쟁해 나왔습니다.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을 프리섹스(Free Sex)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하루

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수천년 묵은 가인-아벨의 역사적 매듭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평화를 주창하며 출발했던 유엔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엔이 지난 60년간을 바쳐 노력했지만 아직도 세계평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몸과 마음의 가인-아벨 관계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아벨적 평화이상세계왕국의 창건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비극을 깨끗이 청산해 줄 한 분을 학수고대해 왔지만 이 땅 위에 합당한 상대와 국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한 나라에 나타나서 참부모의 자리에만 설 수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현몽하여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잃어버린 아담의 자리를 찾아 세우고 참사랑의 주인 자리를 확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고, 현현한 레버런 문(Rev. MOON)이 오늘 여러분과 동시대권에 살아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류를 구하는 횡적 참부모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터 위에 2001년 1월 13일에는 복귀섭리를 책임져 오신 종적 참부모, 즉 하나님을 해방·석방시켜 드린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봉헌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역사상 최고 최대의 축복이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완전 해방·석방을 받게 된 섭리사적 절대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축복결혼 통한 혈통복귀

따라서 인류는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 온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감람나무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로는 천년을 살아도 돌감람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중생·부활·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고 이상가정을 이



▲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 환원대회 경남·부산·울산대회 전경 (2006.3.28, 창원 종합운동장)

루어,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 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하고 싶고 꿈에라도 만나기 싫은 원수 집안과 결혼축복을 통해 한 가족이 되어 보십시오. 원수의 감정에 젖어 있던 부모들의 혈통은 사라지고 새롭고 강력한 참사랑의 핏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양가의 자식들이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고 참된 하늘의 손자손녀를 안겨줄 때, 기쁨의 미소를 짓지 않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었습니까?

백인과 흑인이, 동양과 서양이, 유태교와 회회교가, 더 나아가서는 오색인종이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는 길이 교차-교체 축복결혼의 길 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고 하늘의 전통인 이상가정을 찾아 세워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삶이란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닮는 최선의 길이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참사랑의 인격자요,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도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사랑은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돌려받겠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유일·불변·영원적 사랑의 창조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원천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 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요, 의지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축복결혼과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 즉 평화왕국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창건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부모로서 80여 평생을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외길, 오직 하늘 길만을 걸어온 본인의 삶이 이제는 65억 인류를 위한 승리적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4대 성인은 물론 수천 수만의 성현들과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천도를 어기는 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입니다.

세계 180여 개국에서 하늘의 뜻과 전통을 상속받은 수천 수만의 평화대사들이 참사랑과 참가정의 가치를 외치며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고자 총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도 레버런 문의 평화사상에 힘입어 유대교, 기독교, 회회교가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에 종지부를 찍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레버런 문의 통일사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 배후작업도 지금 레버런 문의 주도 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 회원대회 전경 (2006.3.25~4.2, 아산 선문대학교 - 서울, 경기남부·강원, 경북·대구·경기북부, 충남·충북·대전, 경기도·인천)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의 생애입니다. 하늘이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한 본인의 하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독버섯처럼 군림해 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고야 말 것입니다.

평화대사는 하늘의 밀사

존경하는 평화대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인이 전해 주

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을 대신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천명을 받들고 나서는 하늘의 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 받았던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혈통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들은 사탄의 거짓 혈통을 받고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전수 받아 살고 있는 타락의 후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전체를 100퍼센트 투입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에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생명의 씨로서 혈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전환을 하고 재축복을 받아 참된 가

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둘째로는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인 아담가정에서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형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이 주신 가정에서의 본연의 질서요 축복인 형님과 동생간의 사랑과 화합의 삶이 시기와 원망의 원수관계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레버런 문이 주도해 온 세계적 차원의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혈통복귀를 완성하고, 보다 하늘 편인 아벨이 주체격 형님의 자리, 즉 본연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비밀을 파헤친 레버런 문의 삶은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즉 한의 생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난(萬難)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는 후천개벽시대(後天開闢時代)를 선포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세계 인구의 78퍼센트가 넘는 종교권과 국가권을 규합하여 신세계적 차원의 아벨권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세계적 차원의 가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인구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권을 규합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초세계적 차원에서 이 두 아벨권과 가인권이 하나가 되어, 아벨왕국의 자리에서 출범을 본 천주평화연합

과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기 위해 초종교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경과 담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인류가 본연의 창조이상세계에 진입할 수 있고,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소유권까지도 찾아 세워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하늘 편인 신아벨권이 천주적 차원에서 가인권을 소화하여 본연의 창조이상적 권한인 하늘의 전권을 갖고 신천신지, 즉 지상·천상천국 창건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역사적 완성의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인류의 섭리적 최후의 목적인 평화천국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의 창설을 위해 실로 섭리적이고도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

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WORLD PEACE KING BRIDGE and TUNNEL’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문화·종교·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되고, 유럽 대륙,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현대과학기술은 이제 베링해협에 터널을 뚫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안 될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공사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탕진하고 있

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류는 지금 역사와 후대 앞에 실로 가공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이 지난 4년여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0조원(400 Billion Dollars)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베링해협 프로젝트는 완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들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붓는 어리석은 만행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에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하는 폐악을 거듭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이상세계왕국 창건에 총매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제 레버런 문의 가르침인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의 평화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총동원되고, 후천개벽시대의 천적인 권세가 몰아치면 제아무리 막강하게 보이는 국가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천지운세 앞에 순응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이 메시지는 하늘이 이 시대에 내리는 경고요, 축복입니다. 천운을 따라 흥하고 승리해 가는 레버런 문과 보조를 맞추어 이 땅에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는 주역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구태의연한 종교의 벽, 문화의 벽, 민족의 벽, 인종의 벽의 포로가 되어 여생을 신음과 후회 속에 마치고겠습니까? 하늘은 이 사악한 세계를 뒤엎고, 이 땅에 신천신지(새로운 문화와 이상왕국)를 창건할 용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실천향(實踐鄉)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군의 이름으로 출발했던 유엔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과 월남전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은 세계 120개국을 순회하며 ‘천주평화연합’의 창설 메시지를 선포

중이었던 2005년 10월 20일 우크라이나에서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창설을 전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 두 조직은 이제 신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선천시대(先天時代)의 잔재인 분열과 이기주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둥대는 인류를 참된 개인, 참된 가정, 참된 국가, 참된 세계와 천주를 창건하는 후천개벽시대의 참사랑 교육의 선봉대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감주를 입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 만대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슬기롭고 용맹한 천주적 평화왕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인이 전해 준 하늘의 경고를 가슴 깊이 각인하시어, 참부모님을 통해 받는 결혼축복이야말로 하늘의 혈통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해 오신 해방권과 석방권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영원히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왕국을 창건하는 데 참부모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

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왕국을 창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메시지 II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

천주적 이상향을 향해 세계평화 구현을 이루고자 지구성 도
처에서 오신 존경하는 평화대사 지도자 그리고 축복가정 여려
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주평화연합을 모델 국제연합
(UN)형으로, 그리고 천일국을 전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해 ‘평
화이상세계왕국’으로 창건해 나가기 위한, 천주평화통일가정
당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격상시켜 ‘천일국평화통일당’으로
거듭나게 할 본 대회를 빛내 주기 위해 수천 수만리를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본인이 태어난 지 8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후천개

이 글은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2006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의 평화대사, 세계일보 조
사위원 및 각 분야의 지도자 대회 때 말씀하신 강연문으로, 그 후 천주평화연합 조국
향토 180개국 환원대회 세계순회 때도 선포하셨다. <편집자 주>



벽시대를 활짝 열어 가는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자로서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란 주제로 본인이 일생동안 가르쳐 온 하늘이 주신 진리의 일단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실로 꿈만 같은 본인의 생애입니다.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16세 청년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세상의 꿈을 접은 채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80여년의 삶이었습니다. 본인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 하시면서 형언할 수 없는 수난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애절하게 붙드는 손길마저도 뿌리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던 숙명적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65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섭리의 키를 놓지 않고 살아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이 모든 것은 수천 수만년을 기다리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에 맺힌 비절참절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조창생의 근원 되시고 우주만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지 않고는 인간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히게 된 것입니까? 어느 누가 절대자 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에게 한을 심어 줄 수 있었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전체를 100퍼센트 투입하시어 사랑과 생명, 그리고 당신의 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에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혈통관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고 중요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독생자로 세운 당신의 혈육이 원수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되어 떨어져나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은 역사적인 한으로 피명울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풀어 줄 수 없는 억울하고 처절한 한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당신의 혈통을 영원히 전수해 줄 참된 가정을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이렇게 제1대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탄의 혈통과 무관한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창설 근본 취지와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1남 1녀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귀납적으로 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피

조세계입니다. 즉 우주 만상은 형상적 대상의 위치에, 그리고 그 중심에 실체적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서 창조한 첫 번째 남성격 대표가 아담이요, 여성격 대표가 해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1남 1녀로 분립하여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자존하시면서도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세계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체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성의 체만도 아니요, 여성의 체만도 아닌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의 체를 입고 실체세계와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체를 입지 않은 무형의 하나님으로서만은 유형실체세계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전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다 라면, 아담과 해와는 외적이요 횡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었다라면 아담과 해와는 내외 양면으로 100퍼센트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닮은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다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



▲ 한국 평화대사 지도자 대회(2006.3.16,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

를 인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완전일체를 이룬 사랑의 실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인류의 참사랑의 부모가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는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가정,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꿈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아무리 현대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방대한 우주는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미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법도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

그렇다면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위기대란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일체의 경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은 물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적 사위기대가 완성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신 창

조이상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결국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이 묶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하늘을 대표하고,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지만 그들이 횡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하나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도



▲ 세계일보 조사위원 전국대회(2006.3.17,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화기애애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터위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된 사랑의 가정과 종족·민족·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상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가치란 절대적 상대에게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자식으로서 종적인 축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인간창조입니다. 만일 이 축이 온전히 연결만 되었더라면,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참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만 맺어질 수 있었다라면 우주의 어떤 힘도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다 줄을 매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꿀벌은 봄이 오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신선한 꿀맛을 보

게 됩니다. 낫을 잃고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의 공지를 핀셋으로 잡아당겨 보십시오. 꿀무늬가 빠져나갈지라도 꿀에서 입을 떼지 못하는 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참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면 도망가다가도 다시 와서 그 참사랑에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종적인 참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위해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와 동생의 사랑, 처자식과 이웃 친척들의 사랑이 알알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위해 주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해방된 자신으로서 당당히 나타나 산천초목을 품고, 일가친척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가족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요, 소망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본향의 심정의 뿌리를 잃어버려 가족을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영원한 고독의 패망자로서 유리고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신세가 바로 타락의 후예 된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후천개벽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질곡의

늘에서 해방을 받고 것처럼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찾아 세울 수 있는 천운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3대가 어울려 사는 가정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 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 평화대사 여성지도자 대회(2006.3.24,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 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 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전후·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 주는 사랑을 중심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
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왕
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
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
온 후천개벽의 시대, 즉 ‘평화이상세계왕국시대’의 출범을 선포
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 재림하
여 여러분의 하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
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침을 받고 인류의 참부모요, 만인의 평화의 왕으로
현현한 레버런 문은 반드시 하늘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기필코 ‘평화이상세계왕국시대’를 꽃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 되신 평화의 왕을 모시고, 이 땅 위
에 영원한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는 주역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유엔의 기치를 들고 전세계의 부조리와 악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쓸어냅니다. 자랑스러운 천주평화연합의 ‘평화왕국 경찰’과 ‘평화왕국군’이 되어 세계의 축복가정들을 지키고, 축복의 땅이 지구성을 지켜내는 파수대의 역할을 완수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각계 지도자 여러분께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왕국을 창건하는 데 참부모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왕국을 창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Ⅲ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 I

세계 도처에서 아벨유엔으로 출범을 본 천주평화연합과 몽골반점동족연합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본인의 조국 한반도에 드디어 새로운 봄이 천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쁘신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이번 뜻 깊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본인과 본인의 가정 모두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천운의 새봄을 가슴에 듬뿍 담아서 축복으로 여러분의 나라에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몽골반점동족연합대회는 금번 대회로서 제3회째 개최하게 됩니다. 본인은 지난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한 후, 그 창설 메시지를 전세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4월 10일,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대회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계 120개국에 전파하는 세계순회를 마쳤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을 아벨유엔의 자리에 세워 새로운 국제평화기구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가인적인 기존 유엔을 개혁해서 유엔 안에 세계적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상원격의 평화의회를 창설, 기존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등한 위치의 의결기관으로 세우자는 메시지입니다. 기존 유엔 대표부들처럼 일정국가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대표가 아닌 초국가적이고 초천주적인 차원에서 진정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평화의회의 창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대한 목적과 취지를 갖고 출발한 천주평화연합의 출현은 결코 어떤 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이 새천년을 맞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몽골반점동족연합도 이제 천주평화연합의 숭고한 뜻을 성취해 가는 반려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인은 65억 인류에게 절대로 필요한 하늘의 계시를 전해 주고자 합니다. 부디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방대한 하늘의 메시지 일단을 전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참된 주인 만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전인류의 참부모이십니다.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인종 또

는 특정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 계시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 명칭을 여호와라 해도 좋고 알라 신, 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며 만인의 참부모로서 지금도 살아서 창조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태초에 세우신 천리원칙을 따라 우주 만상을 경륜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영계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 위에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인체가 있으며, 그 영인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영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비록 작은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 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터로 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 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노정

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가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권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지상계에서 호의호식 하며 잘사는 사람도 결국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 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인체의 완성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라야 완숙한 영인체가 결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주는 영양소와 주인의 자상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익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

니다.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 있는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이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인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퍼센트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인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계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인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 제3회 몽골반점동족연합 대회 전경(2006.4.10,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영인체 자체가 참사랑의 삶을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인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터로 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라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속사람 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 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함께해 주는 것이며, 영인체의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한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곳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 저편의 은하계 밖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의 소산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문하며 고민해 본 내용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아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서로가 위해 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참사랑의 삶

여러분의 삶은 참사랑에 미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이상, 예수님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 통일하고, 참사랑의 상대권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참된 가정을 완성시켜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자녀, 이렇게 적어도 3대가 함께 참사랑을 중심한 삶을 살다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돌려받겠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유일·불변·영원적 사랑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원천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 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요, 의지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 세계를 보십시오. 극도의 이기주의의 덫에 걸려 물질만능을 외치며 가치관을 상실한 채 향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우글거리고, 마약이나 프리섹스도 모자라 이제는 근친상간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만행들을 자행하고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왕 격의 여자, 할머니 격의 여자, 어머니 격의 여자, 아내 격의 여자, 딸 격의 여자, 이렇게 모든 단계의 여자들을 유린하고도 세상을 확보하는 인면수심의 작자들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들끼리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꾸어 가며 즐기는 스와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작태야말로 인륜도덕 파괴의 극치이며 타락행위의 단말마적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완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상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알고 보면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의 첫 조상 된 아담 해와의 타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 있던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때 아닌 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간의 불륜한 성적 결합이 바로 타락이 되었기에 수천 수만년을 거쳐오면서 인류는 아직도 그 타락의 혈통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만행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철못을 박고 있는 역적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위해 주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어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을 통해 주인의 자리를 확보할 때 반쪽 인간만이 아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기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생명의 왕궁이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왕궁이요, 혈통의 열매를 맺는 혈통의 왕궁입니다. 이 절대생식기를 중심삼고 절대혈통·절대사랑·절대생명이 창출됩니다. 절대화합·절대통일·절대해방·절대안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생식기의 주인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이상가정의 삶을 중심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은 본연의 참된 혈통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본연의 부부를 이루지 못했으며 본연의 가

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부모, 참된 왕이 되어야 할 아담은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짓 스승, 거짓 부모, 거짓 왕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강림했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지만 앓았더라면, 예수님도 타락과는 관계가 없는 본연의 하늘 혈통을 갖고 첫 아담의 실패를 복귀하여 인류의 구세주로서 참된 가정을 세우고 인류의 본향인 평화이상세계왕국, 즉 지상천국을 이 땅 위에 창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을 알아 모시지 못한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점 혈육도 남기지 못한 채 불시에 떠나야 했던 예수님의 한에 맺힌 심정을 아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2천년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진정 예수님의 서글픈 사정을 상상이라도 해 본 기독교인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만을 남긴 채 홀연히 흔적도 없이 떠나신 예수님, 그분의 육신은 이미 흠이 되어 없어진 지 오래지만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 하셨던 그 뜻은 이제야 역사의 종말기를 맞아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신 참부모님을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레버런 문의 생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꺾박으로 점철된 한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수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치하인 평양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에 여섯 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버린 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 어느 누가 이해할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 인류를 구해 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죄악의 탕감복귀시대인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천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시대, 즉 후천개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고 혈통전환을 완성하여 정오정착적인 삶, 즉 그림자 없는 삶을 영위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사권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상계에서 참된 가정을 세워 천국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연결되어 영생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맨 윗전의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자식이 되어 동거동락하는 혈연적 삶으로 완성된 부자지간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사랑의 상대권을 이루어 살라는 뜻입니다.

우주 최고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겠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 되는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적인 중심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랑의 상대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횡적으로 펼치고 번식시켜 생산되는 그 상대는 시공을 초

월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사랑의 가치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상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형세계의 천국이 무형세계의 천국을 이루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은하계 저편에 숨어 있는 공간의 세계도 아니고, 인간의 두뇌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력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사랑 삶을 통해서라야만 창조되는 실체적인 지상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전 위에 육계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무형실체의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계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살다가 가야 천상에서도 천국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무 위에서 잘 익은 열매라야 창고 속에서도 최상의 수확품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무 위에서부터 벌레 먹은 지옥행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위해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와 동생의 사랑, 처자식과 이웃 친척들의 사랑이 알알이 배

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위해 주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해방된 자신으로서 당당히 나타나 산천초목을 품고, 일가친척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가족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요, 소망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본향의 심정의 뿌리를 잃어버려 가족을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영원한 고독의 패망자로서 유리고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신세가 바로 타락의 후에 된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후천개벽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질곡의 늪에서 해방을 받고 것처럼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찾아 세울 수 있는 천운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3대가 어울려 사는 가정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채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

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 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서로 마음의 담을 헐고 국가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 · 공영 · 공의사회의 실현운동

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천주평화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전후·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

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님과 동생이 서로서로 위해 주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용서 못 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정오정착의 세계입니다.

존경하는 몽골반점동족연합 대표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섭리적 때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어 주시고, 참해방-석방권을 정착시켜 주신 참부모님께 영원을 두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 동녘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이제 천운이 온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년간 덮였던 어둠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벌써 천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길입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외치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여러분, 몽골반점동족연합은 이제 사명이 확실해졌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을 종적인 아벨로, 그리고 세계의 종교권과 국가권을 횡적인 아벨로 모시고, 가인적 입장에 서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베링해협 터널 프로젝트

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전쟁이 없고 영원한 평화를 구가하는 평화이상세계의 창건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탕감복귀를 승리한 억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참부모님의 결혼축복을 받아 혈통전환을 완성함으로써 몽골반점동족연합을 몽골반점혈족연합으로 환원시킵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여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의 국가와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IV

후천개벽시대의 종족 메시아 사명

존경하는 전세계 성씨연합 대표 지도자,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새천년을 알리는 힘찬 함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는 오늘, 65억 인류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주는 후천 개벽시대의 개문이 선포된 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천일국 창건의 바쁜 나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섭리적인 때를 맞이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선택받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전국 성씨연합의 대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6월 1일,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천주평화 조국향토 구국통일 성씨연합대회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표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의 금후 방향과 사명에 대해 하늘이 주신 특별 메시지를 전해 주고자 합니다. ‘후천개벽시대의 종족 메시아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소원

여러분,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된 꿈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한결같이 소원하고 고대해온 것은 ‘평화이상세계의 구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항구적 평화를 실현시켜 보지 못한 것이 역사적인 한으로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모르는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년을 기다려도 무지에서는 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왜 이처럼 무지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거짓 부모인 사탄을 따라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역사상 첫 번째 비극이자 가장 원통하고 서러운 치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원대한 창조이상을 갖고 당신의 자식이자 참사랑의 절대적 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장구

한 역사 속에서 비절참절(悲絶慘絶)한 한의 심정으로 참아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영어(圜)살이를 하시며 참아 오신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이신 것입니다.

인간 중심한 평화 추구의 한계

인간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시각각, 사사건건 선과 악이 여러분 내부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쳐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



▲ 전주평화 조국향토 구국통일 성씨연합대회 전경(2006. 6. 1,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

늘이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0여년의 세월을 바쳐 오직 하늘 길만을 걸어 승리한 레버런 문(Rev. MOON)의 승리적 기대 위에 마침내 후천개벽의 시대가 선포된 것입니다. 죄악과 질곡의 늪에서 허덕이던 인류를 해방·석방시켜 자유와 행복의 세계인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는 천운의 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레버런 문을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주신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위하여 사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의 가치를 실천하여 승리하고, 인류

에게 전수해 준 그 승리적 기대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하여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한 무지 때문에 정반대의 길인 이기적 개인주의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천비(天秘)를 밝히고 인류를 교육해 온 레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본인은 일생을 바쳐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승리적 기대를 세웠으며, 참사랑 실천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父子)지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정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자식이 되어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노예가 되어 살던 인류를 참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참된 혈통으로 다시 중생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참사랑의 삶을 통해 개인완성을 실현하고, 참된 가정, 참된 종족, 참된 민족, 참된 국가, 참된 세계를 세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친들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연과 관계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연은 인간의 자의에 의한 선택권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필

요에 의해 맺게 되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후천적인 인연이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바꾸거나 지워 버릴 수 있는 인륜적 차원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해 주신 천륜은 우리의 선택권 밖에 있는 인연이요, 관계입니다.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형제를 싫다고 하여 바꾸거나 선거로 뽑을 수 없는 것도 그것이 혈연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김씨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김씨 가문의 혈통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류가 최악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거짓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리적인 뜻과 목적을 놓고 하늘이 점지해 준 선천적이고 원리적인 혈연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로 야기된 후천적이고 비원리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타락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신세가 되긴 했지만, 하늘이 주신 부모와 자식간의 근본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타락으로 무지한 식물인간이 되어 부모가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청맹과니의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혈통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혈통전환을 거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길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본연의 혈연으로 환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의 가치

그런데 혈통전환을 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은 교차-교체축복결혼(交叉-交替祝福結婚)입니다.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즉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하늘적 혈통을 창조하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 실체를 쓰시고 현현하신 평화의 왕 참부모를 통해 재창조함을 받는 거룩한 혈통전환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씨연합 대표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전쟁과 투쟁의 세상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가문(家門), 더 나아가서는 원수 국(國)과도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한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십만 혹은 수백만을 대표하는 성씨들의 대표 지도자로서 종족적 메시아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수십 수백 대에 이르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총동원되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명약관화

해졌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종친들에게 후천개벽의 시대, 즉 천일국 창건의 때가 왔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계시는 섭리적 내용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종족이 모두 함께 교차-교체축복결혼의 성스러운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후천개벽의 귀한 시대를 육신을 터로 한 오감(五感)에만 의지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눈으로는 직접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속히 영적인 오감이 열려 하늘의 섭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섭리적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은 이 천운의 때가 마냥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만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달민족의 얼을 보전하고 백의민족의 기개를 지켜 온 이 한민족의 성씨연합 대표 되시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씨면 어떻게 박씨면 어떻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되지 못할 이

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단과 조총련도 다 같이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 혈통을 나눈 형제자매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백의민족의 후손이요, 하늘이 이 시대에 택해 세운 선민의 혈족인 것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사는 참된 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이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천도와 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갖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사악한 세계를 하늘적 참사랑의 권세로 심판하여 정의와 진리가 바탕이 된 해방-석방의 참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인류는 어차피 한 가족이 됩니다. 현대과학의 눈부신 발전도 하나의 지구촌가족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동양과 서양이 모두 한 가족으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평화이상왕국을 이 지구 구성에 창건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출현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창설한 천주평화연합과 몽골반점동족연합의 역할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기존 유엔(UN)의 아벨적 위치에 서서 민족적이고 국수(國粹)적인 유엔 대표부들의 각축장이 아닌, 범세계적이고 초세계적인 천주적 차원에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숭고한 혁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외적이요, 형식적인 구호에 매달리는 유엔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진정 인류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적 하에 본인은 벌써 2005년 10월 20일, 천주평화연합 창설 메시지를 세계 120개국에 전파하는 세계순회노정 중 우크라이나에서 ‘세계평화왕국경찰’과 ‘세계평화왕국군’의 창설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 두 조직은 이제 우리 몸의 적혈구와 백혈구 같은 역할을 하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늘의 혈통으로 접붙임을 받고 새 출발을 한 축복가정들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동산, 즉 이 아름답고 고마운 지구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어내는 파수대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성씨연합 대표 지도자 여러분, 세계 인구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동족체입니다. 50억에 가까운 이들을 규합하여 이 지구성에 참사

랑의 태풍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레버런 문은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같은 문화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가르침인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통한 참가정 완성의 진리를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평화대사요, 하늘의 특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몽골반점은 단순히 몽골인들을 표시하기 위해 생긴 생리적인 반점이 아닙니다. 후천개벽의 시대가 올 때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전인류를 규합하고 통일하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일찍이 하늘이 주신 증표임이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몽골반점동족의 중심축의 위치에 서 있는 한민족은 65억 인류의 선두에 서서 참부모님을 대신한 대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주평화연합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자랑스러운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80성(姓)이 넘는 한국의 모든 성씨들은 자신들의 성씨와 종친의 벽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 하늘이 이 시대에 택해 세운 선민으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달민족 된 한민족의 종친대표 지도자 여러분께 내린 천명(天命)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소망하셨던 창조본연의 평화이상세계 창건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교차-교체축복결혼 가정들이 하늘의 참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혈통이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성을 본연의 에덴동산으로 가꾸어, 인류는 이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구가하며 대대손손 천일국의 할렐루야를 마음껏 외치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족, 그리고 한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V

천일국은 태평성대의 이상천국

세계 만국의 정상들이여! 지구성 방방곡곡에서 오늘 이 귀한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날을 경축하기 위해 모여 오신 하늘의 귀빈들이여! 천일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육계(靈·肉界)의 백성들이여!

만유의 창조주 되시고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 되시며 천주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육계 3천억 이상 인류 모두의 이름으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립시다.

영원히 죄악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지옥행을 면치 못할 타락의 후에 된 인류를 구해 주기 위해 몸소 모든 탕감복귀(蕩減復歸)를 완성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평화의 왕 앞에 승리의 찬양을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6월 13일, 경기도 청평 천정궁박물관에서 거행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대관식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여러분은 오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천동지의 섭리역사적 대사건 현장에서 서 계십니다. 천주평화의 왕이 마침내 영광된 등극을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머리 위에는 수천 수만 명의 선한 축복가정 조상들이 임하여 함께 이 장엄한 순간을 경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지만물도 기뻐 함께 외치는 할렐루야의 찬송이 온 천주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날의 가치를 안다면 도저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온 지구성을 돌며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끝없이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

여러분, 2001년 1월 13일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소원해 오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고 출발한 레버런 문(Rev. MOON)이 형언할 수 없는 수난과 형극의 탕감복귀노정을 마침내 승리하고 완성한 터 위에서 봉헌해 올린 인류 최대 최고의 경사였습니다.

수만년간 탄식과 한으로 점철된 생을 부모의 심정으로 섭리해 오신 하나님께 마침내 해방과 석방의 날을 봉헌해 올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종적인 참부모요, 천주의 대왕으로 모시고

천일국의 기치를 드높이 휘날리며 새로운 하늘 주권의 출범을 천상천하에 선포했던 실로 섭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태풍처럼 몰아치는 천운의 키를 잡고 하루를 천년같이 달려서 승리한 참부모님의 기대 위에 하늘은 드디어 2004년 5월 5일 쌍합십승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나긴 한의 세월 선천시대를 접고 이 땅에 신천신지를 창건할 수 있게 될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이 지구성을 하늘 앞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역사적 대혁명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실체적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에 참석하고 천일국 국민으로 입적할 수 있게 되는 실로 엄청난 천운을 입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에 이르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날의 은사를 두고 영원히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침내 후천개벽시대의 실체적 주권이 될 ‘그 나라’, 즉 천일국이 창건되는 기적 중의 기적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실로 오묘하게 역사(役事)하십니다. 새천년의 원단에 이미 천일국의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전에 이렇게 꿈만 같은 천주평화의 왕 등극의 날이 올 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대관식 개회식 전경

천일국 백성의 길

하늘나라의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승리와 영광의 날, 천일국 6년 6월 13일을 기하여 본인은 천주평화의 왕으로서 온 천상천하에 천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행해야만 할 천도적 차원의 기본의무와 사명을 선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제부터 종적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3대권(三代圈)을 이루어 살며 4대심정권(四大心情圈)을 완성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종적인 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적 참부모 되신 천주평화의 왕을 영원한 형적 축으로 받들며 천일국 시민으로서 절대복종의 삶을 솔선수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해서 사는 삶’, 즉 참사랑의 실천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세워 참된 가정을 세우고 대대손손 하늘의 혈통을 온전히 보전하고 전수할 수 있는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일찍이 하늘 길을 결심하면서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표어를 걸어놓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벌써 여러분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잡이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스승보다 먼저 여러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또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압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따라서 양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세워 놓고 그림자 없는 정오정착적인 삶으로 절대복종의 길을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음과 몸의 공명권(共鳴圈)을 이루어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통한 평화세계

셋째, 천일국 국민 여러분, 영계(靈界)는 벌써 통일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육신을 쓰고 사는 65억 지상계(地上界)의 인류입니다. 죄악과 환란의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도 모두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들을 빠르게 교육시켜 천일국 백성으로 환원시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타락의 후예라는 점을 인지하고,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아 혈통전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도록 교육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3천억이 넘는 인류가 완전히 하늘 혈통으로 복귀되는 그날까지 교차-교체결혼축복의 은사를 통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의 역사를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인생은 어머니의 복중(腹中)에서 10개월, 지상계에서 공기를 호흡하며 한 100년, 그리고서는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복중에서의 준비가 절대로 필요하듯, 여러분의 지상생활은 다음 단계의 삶인 영계의 삶을 위해 철저한 준비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영계의 조상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영계와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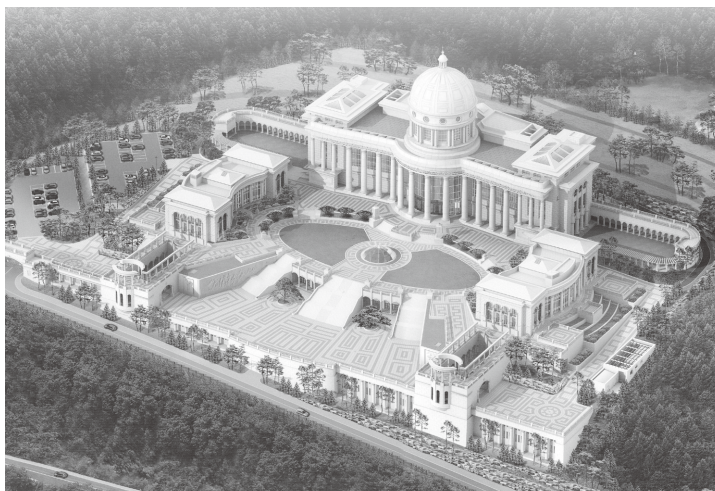
를 맞추어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과 기도로 영계와 교통하며 사는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계인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천일국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는 백성의 힘이 절대적 필요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천시대의 잔재인 이기적 개인주의의 탈을 미련 없이 벗어던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유권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일단 하늘 앞에 봉헌하고, 소유권 환원식을 통해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천일국 백성은 누구나 하늘 앞에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기금(基金) 모금활동(募金活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税金)의 형식이 아닌 성금(誠金)으로, 수입 중 10의 3조를 국가 앞에 먼저 바치고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 앞에 바치는 심정의 봉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일국 시민의 삶

여섯째,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후천개벽의 시대는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주만상, 즉 자연환



▲ 본전성지 '천정궁박물관' 전경

경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데는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사랑의 주체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서로 조화 속에서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천일국 시민이 되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서 해방과 석방의 삶을 즐기십시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인격완성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심정문화와 예술세계의 꽃을 피우고,

창조본성을 중심삼고 신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한데 어울려 사는 창조본연의 에덴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천일국 백성들에게 어찌 하늘이 크신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영 세세토록 복락(福樂)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일국 시민으로 입적한 복되고 귀한 국민 여러분!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부모님께서 개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유엔의 위상을 정립해 가는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이중적 사명을 다하는 하늘의 밀사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주신 축복가정들과 이 복된 지구성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꾸고 지켜내겠습니까?

억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천주평화의 왕을 모시고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왕국을 창건합시다.

사랑하는 천일국 백성 여러분! 오늘 이 귀하고 성스러운 날을 진심으로 경축하고 즐기십시오. 이제까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 버리고 마음껏 하늘 아버지와 참부모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이날을 경축하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정성들이 모

여 오늘 이날을 더욱 빛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평호 반의 산천초목이 여러분의 소망 찬 장도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었음을 자랑하고 보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VI

한국타임즈항공 김포항공산업단지 기공식

존경하는 항공업계 지도자, 김포시민,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특히 먼 바다를 건너 이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오신 시코르스키 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 ‘한국타임즈항공’의 김포항공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개항 50년이 지난 김포국제공항 중간에 위치하는 이 자리에 김포항공산업단지가 명실공히 첨단 항공기술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국투자법인 지정과 산업단지로 승인되어 오늘의 기공식을 갖게 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6월 10일, 경기도 김포에서 거행된 한국타임즈항공 김포항공산업단지 기공식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 한국타임즈항공 김포항공산업단지 조감도

본인은 일생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위하여 사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하여 가난에 시달리던 조국 한국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온 세계를 위하여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튼튼한 공업기술 기반도 있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약 40년 전에 통일중공업을 설립하고 첨단 자동차 공업기술을 독일 회사들로부터 도입하여 오늘 한국 자동차 공업의 기술 기반을 다졌습니다.

초종교 초국가적 활동으로 세계평화를 추구해 온 본인은 베링해협을 가로지르는 터널과 교량을 건설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도전하여 모든 기술들이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4여년에 걸친 해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즈음에 본인은 공업기술 중에도 최고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항공기술 기반을 확립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21세기의 기계산업, 특히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타임즈항공’을 설립하고, 세계 최고의 헬기 기술을 자랑하는 시코르스키사와 기술협력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국타임즈항공’은 민수용(民需用) 대량 인원수송을 위한 헬기 개발에 주력하여 헬기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한국의 대중교통체제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국토활용의 효율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타임즈항공’은 본인이 세계 180여 개국에 닿은 통일그룹 기반을 통하여 본인이 평소 주창해 온 ‘기술평준화’를 실현함으로써 ‘한국타임즈항공’이 한국의 ‘공업대국’에 크게 일조함은 물론 세계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여 전세계 120개국에 그 창설 메시지를 전파하는 세계순회

를 마쳤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을 아벨유엔의 자리에 세워 새로운 국제평화기구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가인적인 기존 유엔을 개혁해서 유엔 안에 세계적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상원격의 평화의회를 창설, 기존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등한 위치의 의결기관으로 세우자는 메시지입니다.

기존 유엔 대표부들처럼 일정국가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대표가 아닌 초국가적이고 초천주적인 차원에서 진정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평화의회의 창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본인은 세계적으로 평화의 왕이요, 인류의 참부모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타임즈항공’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원대한 뜻을 위해 크게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김포시는 물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특히 건설교통부 등 관계 요처(要處)와 김포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코르스키사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VII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II

존경하는 세계 평화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귀빈,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먼저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인류평화의 구현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2004년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 받아 대관식을 가진 이후, 2005년 9월 12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 승리적 기반 위에 금년 6월 13일에는 실체적 천일국 창건을 위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의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8월 31일, 천주평화 조국향토 천지환원 승리석방대회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이날 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도시에서 문선명 총재 내외분과 자녀, 손자손녀 등 3대가 각각 주관하는 가운데 동시에 개최됐다. <편집자 주>

여러분, 천주평화연합 창설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본인의 세계 120개국 말씀순회 승리를 이어받은 한학자 총재께서는 참부모님을 대표한 입장에서, 지난 6개월간 전세계를 누비며 180개국 말씀선포순회를 승리함으로써 역사적인 모자협조의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참부모의 자리에서 참자녀들을 직접 대동하고, 그들이 말씀선포와 축복행사 주관에 동참케 함으로써 인류의 첫 가정에서 어머니 격인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권과 가인-아벨의 통일권을 복귀, 환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06년 8월 20일은 본인이 일생을 통해 겪었던 여섯 번의 무고한 감옥살이 중, 그 마지막인 미국 덴버리 감옥에서 세계적 차원의 옥고를 당당히 승리하고 해방-석방권을 쟁취한 제21주년 출감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고, 또 역사적인 세계순회를 승리하고 도착한 한 총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난 8월 20일, 본인은 세계적 차원의 평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120개국의 120만 평화대사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들 3만여 명이 한국에 모여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심장한 대회였습니다.

이런 섭리적인 승리권 기대 위에 본인은 이제 ‘천주평화의 왕’ 자격으로 참부모의 가정 3대권과 더불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이 후천개벽시대에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천비(天秘)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심정으로 금번 세계순회노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88세를 바라보는 노령으로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순회 길이지만, 본인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본인으로서 마지막 세계순회노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한 참부모로서 인류에게 남겨주는 최후의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천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귀한 하늘의 말씀을 각인하시어 여러분 생애의 기준이 되고 종족과 후손에게 상속해 주는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세계 65억 인류를 상대로 전수해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출현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쳐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이상인 평화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 유엔(UN)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

원에서 평화이상세계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적 유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실천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

존경하는 세계 평화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을 이루시고자 아

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완성, 즉 인격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자리에 안착하시어, 더불어 유형 무형 두 세계에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5억 인류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

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생명·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혈통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 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



▲ 전국 12개 도시에서 동시에 거행된 천주평화 조국향토 천지환원 승리석방대회, 사진은 서울대 회전경(2006.8.31, 서울 센트럴시티 메리어트호텔)

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의 후에 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 · 장자권 · 소유권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새에 강도에 게 몽땅 빼앗겨 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 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

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권과 장자권, 그리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비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

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가정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서로가 위해 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호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

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은 참사랑에 미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이상(以上), 예수님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 통일하고, 참사랑의 상대권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참된 가정을 완성해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자녀, 이렇게 적어도 3대가 함께 참사랑을 중심한 삶을 살다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3대가 더불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를 대표하는 완전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



▲ 전주평화 조국향토 천지환원 승리석방대회 전경(2006.8.20, 한국국제전시장)

제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 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부모·손자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 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

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 · 좌우 · 전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이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 온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감람나무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로는 천년을 살아도 돌감람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중생·부활·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고 이상가정을 이루어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 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

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종족이 모두 함께 축복결혼의 성스러운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전환을 하고 재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레버린 문(Rev. MOON)이 주도해 온 세계적 차원의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혈통복귀를 완성하고, 보다 하늘 편인 아벨이 주체격 형님의 자리, 즉 본연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전환을 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하늘적 혈통을 창조하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 실체를 쓰시고 현현하신 평화의 왕, 참부모를 통해 재창조함을 받는 거룩한 혈통전환의 의식입니다.

참부모님의 평화운동

본인은 일생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위하여 사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이렇게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

리입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인류의 평화천국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섭리적이고도 혁명적인 새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WORLD PEACE KING BRIDGE and TUNNEL’을 완성하고, 세계를 해방·석방시켜 주게 될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 도래

존경하는 평화대사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 온 후천개벽의 시대, 즉 ‘평화이상세계왕국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 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늘 길을 인도하고 있

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사는 참된 이상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이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유토피아로 소망해 온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마음의 담을 헐고 천주적 차원에서 국가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공영·공의사회의 실현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천주평화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도 레버런 문의 평화사상에 힘입어 유대교, 기독교, 회회교가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에 종지부를 찍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레버런 문의 통일사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 배후작업도 지금 레버런 문의 주도 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의 생애입니다. 하늘이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한 본인의 하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독버섯처럼 군림해 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부모님께서 개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유엔의 위상을 정립해 가는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이중적 사명을 다하는 하늘의 밀사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주신 축복가정들과 이 복된 지구성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꾸고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후천개벽시대는 참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결혼을 통해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 축복섭리를 완성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3대권의 이상가정을 찾아 세워 후천개벽시대의 축복가정 된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서 죽기 전에 이루고자 하셨던 소망도 바로 이 3대권의 이상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족 메시아들과 국가 메시아들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되어 가인권을 대표한 정치권과 아벨권을 대표한 종교권의 역사적인 유혈투쟁을 영원히 이 땅에서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섭리적인 뜻을 두고 본인은 벌써 역사적으로 종교권과 정치권의 대결장이 되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제2의 종교권 ‘천정궁’을 건립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연합도 그 소임을 다하여 국가단위의 축복을 통해 세계를 복귀하고 인류의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가인-아벨의 투쟁을 종식시켜야 할 섭리적인 때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인-아벨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 본연의 자리에서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 앞에 복귀된 본연의 이상가정을 봉헌해야 할 섭리적 소명의 때가 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형제권과 소유권까지도 참된 이상가정 복귀를 통해 다시 하늘 앞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천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될

요 없는 영원한 해방과 석방의 세계에서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합니다.

그리하여 참부모님께서 승리하신 3대권 탕감복귀의 완성을 상속받아 타락권 이전 본연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천주적 이상권인 해방-석방권을 안착시켜 줄 모델 이상가정과, 본연의 절대·유일·불변·영원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선한 왕국을 세워 억만세 찬양을 받는 천주평화의 조국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VIII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 II

하늘의 섭리적 요청에 의해 창설되어 이제 명실공히 아벨유엔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가는 천주평화연합과 몽골반점동족연합의 발전을 위해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을 천주 천지인부모인 본인과 본인의 참가정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금번 대회는 특별히 섭리적으로 그 뜻이 크고 깊습니다. 본 몽골반점동족연합 창설 이후 벌써 다섯 번째로 개최하는 세계대회임은 물론, 천주평화연합이 창설된 지 1년 만에 3회째 세계순회를 승리하고 귀국한 본연의 참가정을 대표한 한학자 총재를 환영하는 세계적 차원의 환영대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10월 14일, 천정궁박물관에서 개최된 제5회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총회 축하연 때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총회 축하연 전경(2006.10.14, 천정궁박물관)

참가정 3대권의 승리

본인과 더불어 한 총재는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한 직후, 그 창설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계 120개국 순회를 완료했습니다. 이 참부모님의 승리적 기반을 이어받아 한 총재는 금년 봄부터 다시 2차적으로 세계 180개국에서 말씀 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참자녀들을 직접 말씀 선포에 동참케 함으로써 참가정의 2대가 함께 승리하는 실로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승리는 천주적 차원에서 가인권의 자녀와 아벨권의 자녀를 하나로 묶어 참부모님께 봉헌하는 섭리적 소유권까지 전환

하는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적 기대 위에 지난 6월 13일에는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되고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안착하시는 천정궁 입궁식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실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승리였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수천 수만년간 눈물지으시며 홀로 한의 섭리노정을 걸어 오신 하나님께서 해방-석방을 받고, 천주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영원히 안착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천정궁에 입주하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승리는 이제 세계 65억 인류를 하늘의 권속으로 환원시키고 품는 은사의 대장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인이 한국에서 첫 테이프를 끊어 주어 세 번째로 출발시킨 말씀과 축복의 세계순회가 참부모와 참자녀들은 물론 참손자손녀들까지 대동하여 참가정의 3대권이 전세계 40개국을 순회하며 축복을 베푸는 대장정에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하고 귀국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금번 세계순회가 특별한 것은 참부모의 가정 3대권이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진리와 축복으로 한 나라씩을 복귀해 가는 천주평화왕국군의 진군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12개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주는 인류 최대의 경사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성인도 꿈꾸어 보지 못한 참가정의 3대

가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길이 길이 찬양받을 기적이요, 하늘의 해방적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본인에게도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승리의 한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 공산치하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홍남감옥에 투옥되었던 본인이 2년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던 중 유엔군에 의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던 승리와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1950년 10월 14일, 그날은 하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실로 위험천만의 한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은 본인이 공개처형을 받게 될 날이었으니 하늘인들 어찌 외면하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섭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오늘을, 본인은 하나님의 보호 하에 인류의 참부모로서, 하늘 앞에는 존귀와 영광을, 땅 위에는 축복과 사랑을 베푸는 역사적인 승리의 한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겨우 1년을 넘긴 천주평화연합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아벨유엔의 자리에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천주평화기구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사탄권을 대표한 가인격인 기존 유엔을 개혁해서 유엔 안에 세계적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상원격의 평화의회를 창설, 기존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등한 위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결기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명령입니다.

기존 유엔 대표부들처럼 자국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대표가 아닌 초국가적이고 초천주적인 차원에서 진정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평화의회를 창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이상적 목적과 취지를 갖고 출발한 천주 평화연합의 출현은 결코 어떤 한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이 새천년을 맞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몽골반점동족연합도 이제 천주평화연합의 하늘이 부여한 숭고한 뜻을 성취해 가는 반려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인은 65억 인류에게 절대로 필요한 하늘의 계시를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전해 주고자 합니다. 본 몽골반점동족연합 창설 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부디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만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전인류의 참부모이십니다.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 또는 특정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 계시는 그런 제한된 개념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 명칭을 여호와라 해도 좋고 알라 신, 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며 만인의

참부모로서 지금도 살아서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태초에 세우신 천리원칙을 따라 우주만상을 경륜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영계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인체가 있으며, 그 영인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영계에는 물론,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비록 작은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의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감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 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만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터로 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 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권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지상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인체의 완성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야 완숙한 영인체가 결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주는 영양소와 주인의 자상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익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모든 과일이 다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 있는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

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인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퍼센트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인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계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인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인체 자체가 참사랑의 삶을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인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터로 한 참사랑의 삶

을 통해서라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속사람 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 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함께해 주는 것이며 영인체의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한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곳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 저편의 은하계 밖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의 소산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문하며 고민해 본 내용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

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 서로가 위해 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호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참사랑의 삶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돌려받겠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유일·불변·영원적 사랑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원천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 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요, 의지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 세계를 보십시오. 극도의 이기주의의 덫에 걸려 물질만능을 외치며 가치관을 상실한 채 향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우글거리고, 마약이나 프리섹스도 모자라 이제는 근친상간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만행들을 자행하고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왕 격의 여자, 할머니 격의 여자, 어머니 격의 여자, 아내 격의 여자, 딸 격의 여자, 이렇게 모든 단계의 여자들을 유린하고도 세상을 확보하는 인면수심의 작자들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들끼리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꾸어 가며 즐기는 스와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작태야말로 인류도덕 파괴의 극치이며 타락행위의 단말마적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완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상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알고 보면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의 첫 조상 된 아담 해와의 타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 있던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때 아닌 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간의 불륜한 성적 결합이 바로 타락이 되었기에 수천 수만년을 거쳐오면서도 인류는 아직 그 타락의 혈통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감하기도 싫은 그런 만행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철못을 박고 있는 역적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위해 주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어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을 통해 주인의 자리를 확보할 때 반쪽 인간만이 아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기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생명의 왕궁이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왕궁이요, 혈통의 열매를 맺는 혈통의 왕궁입니다. 이 절대생식기를 중심삼고 절대혈통 · 절대사랑 · 절대생명이 창출됩니다. 절대화합 · 절대통일 · 절대해방 · 절대안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생식기의 주인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지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은 본연의 참된 혈통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본연의 부부를 이루지 못했으며, 본연의 가

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부모, 참된 왕이 되어야 할 아담은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짓 스승, 거짓 부모, 거짓 왕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강림했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지만 앓았더라면 예수님도 타락과는 관계가 없는 본연의 하늘 혈통을 갖고 첫 아담의 실패를 복귀하여 인류의 구세주로서 참된 가정을 세우고 인류의 본향인 평화이상세계왕국, 즉 지상천국을 이 땅 위에 창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을 알아보시지 못한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점 혈육도 남기지 못한 채 불시에 떠나야 했던 예수님의 한에 맺힌 심정을 아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2천년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진정 예수님의 서글픈 사정을 상상이라도 해본 기독교인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만을 남긴 채 홀연히 흔적도 없이 떠나신 예수님, 그분의 육신은 이미 흠이 되어 없어진 지 오래지만,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하셨던 그 뜻은 이제야 역사의 종말기를 맞아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신 참부모님을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레버런 문(Rev.

MOON)의 생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꺾박으로 점철된 한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 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치하인 평양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에 여섯 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 어느 누가 이해할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 서 허덕이는 타락 인류를 구해 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

포수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최악의 탕감복귀시대인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천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시대, 즉 후천개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고 혈통전환을 완성하여 정오정착적인 삶, 즉 그림자 없는 삶을 영위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사권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상계에서 참된 가정을 세워 천국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연결되어 영생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맨 윗전의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자식이 되어 동거동락하는 혈연적 삶으로 완성된 부자지간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사랑의 상대권을 이루어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상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형세계의 천국이 무형세계의 천국을 이루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은하계 저편에 숨어 있는 공간의 세계도 아니고, 인간의 두뇌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력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사랑 삶을 통해서라야만 창조되는 실체적인 지상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전 위에 육계를 벗어나면 자

동적으로 무형실체의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계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살다가 가야 천상에서도 천국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무 위에서 잘 익은 열매라야 창고 속에서도 최상의 수확품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무 위에서부터 벌레 먹은 지옥행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대가 어울려 사는 가정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 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

재의 뿌리는 현 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서로 마음의 담을 헐고 국가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 · 공영 · 공의사회의 실현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천주평화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

하 · 좌우 · 전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님과 동생이 서로서로 위해 주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용서 못 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절대가치에 의한 정오정착의 세계입니다.

존경하는 몽골반점동족연합 대표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섭리적 때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몽골반점동족연합은 이제 사명이 확실해졌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을 종적인 아벨로 그리고 세계의 종교권과 국가권을 횡적인 아벨로 모시고, 가인적 입장에 서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

왕국을 창건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섭리적 4차 아담 심정권의 시대인 해방-석방 시대, 즉 후천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탕감복귀로 얼룩졌던 구약·신약·성약시대까지의 선천시대를 승리한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시대요, 아담 타락 이전 본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해 가는 시대입니다. 평화의 왕 참부모를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일체권을 이룬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참사랑 심정권의 시대, 즉 천주평화통일왕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역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참부모님의 결혼축복을 받아 혈통전환을 완성함으로써 몽골반점동족연합을 몽골반점혈족연합으로 환원시킵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여 천주평화통일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의 국가와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IX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III

존경하는 세계 평화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귀빈,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먼저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인류 평화의 구현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2004년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받아 대관식을 가진 이후, 2005년 9월 12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 승리적 기반 위에 금년 2006년 6월 13일에는 실체적 천일국 창건을 위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의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주평화연합 창설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본인의 세

이 글은 2006년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계 120개국 1만4천4백개 도시에
서 개최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지도자 120명 순회강연회’ 때 발표된 참부모님 말씀
전문이다. <편집자 주>

계 120개국 말씀순회 승리를 이어받은 한학자 총재께서는 참부모님을 대표한 입장에서, 지난 6개월간 전세계를 누비며 180개국 말씀선포순회를 승리함으로써 역사적인 모자협조의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참부모의 자리에서 참자녀들을 직접 대동하고, 그들이 말씀선포와 축복행사 주관에 동참케 함으로써 인류의 첫 가정에서 어머니 격인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권과 가인-아벨의 통일권을 복귀, 환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06년 8월 20일은 본인이 일생을 통해 겪었던 여섯 번의 무고한 감옥살이 중, 그 마지막인 미국 덴버리 감옥에서 세계적 차원의 옥고를 당당히 승리하고 해방-석방권을 쟁취한 제21주년 출감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고, 또 역사적인 세계순회를 승리하고 도착하는 한 총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난 8월 20일, 본인은 세계적 차원의 평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120개국의 120만 평화대사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들 3만여 명이 한국에 모여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심장한 대회였습니다.

이런 섭리적인 승리권 기대 위에 본인은 이제 ‘천주평화의 왕’ 자격으로 참부모의 가정 3대권과 더불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이 후천개벽시대에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천비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심정



▲ 천주평화연합 창설1주년 기념식 및 천주평화연합 왕국 입주식에서 천주평화대훈장을 받으신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2006.9.12, 천정궁박물관)

으로 금번 세계순회노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88세를 바라보는 노령으로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순회 길이지만, 본인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본인으로서 마지막 세계순회노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한 참부모로서 인류에게 남겨 주는 최후의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천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귀한 하늘의 말씀을 각인하시어 여러분 생애의 기준이 되고 종족과 후손에게 상속해 주는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세계 65억 인류를 상대

로 전수해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출현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쳐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이상인 평화이상세계의 실현

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 유엔(UN)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이상세계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적 유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실천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

존경하는 세계 평화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시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완성, 즉 인격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자리에 안착하시어, 더불어 유형 무형 두 세계에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생명과 참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

고 있는 65억 인류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혈통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 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

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의 후에 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장자권·소유권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새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 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 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레버린 문(Rev. MOON)의 생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
시지 않아 철저히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노정이
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
방 직후 공산치하인 평양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
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
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옥고
를 치르는 등, 일생에 여섯 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처야
만 했던 레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 어느 누가 이해할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사망관에서 허덕이
는 타락 인류를 구해 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
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
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권과 장자권, 그리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
연굴복시키는 비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영계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인체

가 있으며, 그 영인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영계에는 물론,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비록 작은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의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감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 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만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터로 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 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권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지상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 세계평화를 위한 120 미국 평화대사 초청 한국대회 (10.26, 서울 강남구 대회)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인체의 완성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라야 완숙한 영인체가 결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주는 영양소와 주인의 자상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익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다. 모든 과일이 다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 있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인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퍼센트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인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계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인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

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 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인체 자체가 참사랑의 삶을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인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터로 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라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속사람 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 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함께해 주는 것이며 영인체의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가정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입니다. 삶

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위해 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은 참사랑에 미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이상, 예수님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 통일하고, 참사랑의 상대권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참된 가정을 완성해 참된 부모, 참된 형제, 참된 자녀, 이렇게 적어도 3대가 함께 참사랑을 중심한 삶을 살다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3대가 더불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채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 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

모 · 부모 · 손자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 · 좌우 · 전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이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

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님과 동생이 서로서로 위해 주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용서 못 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절대가치에 의한 정오정착의 세계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 온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감람나무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로는 천년을 살아도 돌감람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중생·부활·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축복을 받고 이상가정을 이루어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 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종족이 모두 함께 축복결혼의 성스러운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전환을 하고 재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레버런 문이 주도해 온 세계적 차원의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혈통복귀를 완성하고, 보다 하늘 편

인 아벨이 주체격 형님의 자리, 즉 본연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전환을 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하늘적 혈통을 창조하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 실체를 쓰시고 현현하신 평화의 왕, 참부모를 통해 재창조함을 받는 거룩한 혈통전환의 의식입니다.

참부모님의 평화운동

본인은 일생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위하여 사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이렇게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리입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인류의 평화천국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섭리적이고도 혁명적인 새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WORLD PEACE KING BRIDGE and TUNNEL’을 완성하고, 세계를 해방·석방시켜 주게 될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문화·종교·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되고, 유럽 대륙,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 도래

존경하는 평화대사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 온 후천개벽의 시대, 즉 ‘평화이상세계왕국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 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사는 참된 이상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이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유평파아로 소망해 온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마음의 담을 헐고 천주적 차원에서 국가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공영·공의사회의 실현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천주평화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도 레버런 문의 평화사상에 힘입어 유태교, 기독교, 회회교가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에 종지부를 찍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레버런 문의 통일사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 배후작업도 지금 레버런 문의 주도 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의 생애입니다. 하늘이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한 본인의 하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독버섯처럼 군림해 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이상세계 왕국을 창건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부모님께서 개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쫓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유엔의 위상을 정립해 가는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이중적 사명을 다하는 하늘의 밀사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주신 축복가정들과 이 복된 지구성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꾸고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후천개벽시대는 참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결혼을 통해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개인 · 가정 · 종족 · 민족 · 국가,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 축복섭리를 완성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3대권의 이상가정을 찾아 세워 후천개벽 시대의 축복가정 된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이루고자 하셨던 소망도 바로 이 3대권의 이상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족 메시아들과 국가 메시아들은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가인권을 대표한 정치권과 아벨권을 대표한 종교권의 역사적인 유혈투쟁을 영원히 이 땅에서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섭리적인 뜻을 두고 본인은 벌써 역사적으로 종교권과 정치권의 대결장이 되어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제2의 종교권 ‘천정궁’을 건립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연합도 그 소임을 다하여 국가단위의 축복을 통해 세계를 복귀하고, 인류의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가인-아벨의 투쟁을 종식시켜야 할 섭리적인 때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가인-아벨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 본연의 자리에서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 앞에 복귀된 본연의 이상가정을 봉헌해야 할 섭리적 소명의 때가 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형제권과 소유권까지도 참된 이상가정 복귀를 통해 다시 하늘 앞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천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때가 바

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섭리적 4차 아담 심정권의 시대인 해방-석방 시대, 즉 후천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탕감복귀로 얼룩졌던 구약·신약·성약시대까지의 선천시대를 승리한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시대요, 아담 타락 이전 본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해 가는 시대입니다. 평화의 왕 참부모를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일체권을 이룬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참사랑 심정권의 시대, 즉 천주평화통일왕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필요 없는 영원한 해방과 석방의 세계에서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합니다. 그리하여 참부모님께서 승리하신 3대권 탕감복귀의 완성을 상속받아 타락권 이전 본연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천주적 이상권인 해방-석방권을 안착시켜 줄 모델 이상가정과, 본연의 절대·유일·불변·영원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선한 왕국을 세워 억만세 찬양을 받는 천주평화의 조국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X

하나님의 절대평화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왕국

사랑하는 세계의 축복가정, 그리고 존경하는 평화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자녀의 날’을 선포한
지 47년째가 되는 섭리사에 뜻 깊은 한 날입니다. 인간시조 아
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상실해 버린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
하기 위한 탕감복귀섭리노정에는 기필코 찾아 세워야 할 4대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그것입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 승리와 금
년 6월의 천정궁 입궁·대관식과 동시에 선포된 천일국 섭리
이래 처음 맞이한 섭리적 4대 이정표의 한 날인 참자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 깊은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11월 21일, 제47회 참자녀의 날을 맞아 한국국제
전시장(KINTEX)에서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세계 65억 인류를 상대로 전수해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절대평화이상(絶對平和理想) 모델인 절대성(絶對性) 가정과 세계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120명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아 세계 120개국을 순회하며 선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의 가정 3대권이 세계를 돌며 하늘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류구원의 길을 열어 놓은 그 기대 위에 이제 가인세계를 대표한 종교지도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출현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 제47회 참자녀의 날 기념식 전경(2006.11.21, 한국국제전시장)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쳐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이상인 평화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 유엔(UN)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이상세계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적 유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이상 세계 실천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

존경하는 세계 평화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였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연결된

천주의 총합 실체요, 영·육계의 매개체이며 만물의 주관주인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모델 평화이상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 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대성(絶對性)의 기준입니다.

절대성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絶對性), 즉 절대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소년 시절을 거친 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만물만상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새롭게 역동적인 삶을 출발하는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완성을 통한 절대인간의 길로 들어서

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인간에게 절대모델성(性) 필요조건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이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숙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모델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시조인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때가 되기 전에는 서로의 성(性)을 절대적 기준에서 지키라는 계명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따먹지 않고 하늘의 계명을 지키면 인격완성은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등한 공동 창조주의 대열에 서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주관하여 영원하고 이상적인 행복을 구가하는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놓고 말한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 참된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 하에 결혼을 하고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를 생산하여 참된 부모가 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원칙인 절대성을 떠나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를 통해 개성을 완성하고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 모델성을 상속시켜 줘야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간에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모델성, 즉 절대정절의 천법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 준 영원한 반려자로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주의 절대·유일·불변·영원성의 본원지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천년을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천리이기 때문입니다. 혼전순결을 지켜 순수한 하늘의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어찌 천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신 그 뜻을 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배신과 배역(背逆)이요,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로 빚어진 창조이상권 밖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완성, 즉 완성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실체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대상이요 자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성적 기준에서 완성을 본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성을 중심삼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라야 조부모·부모·자녀·손자

손녀, 이렇게 3대권을 포함한 인간 본연의 삶의 이상적 모델성 관계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위에서라야 하나님의 영생은 물론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성을 중심삼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완성, 즉 인격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절대성을 중심삼은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자리에 안착하시어, 더불어 유형 무형 두 세계에서 절대성을 중심한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생명과 참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5억 인류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은 이렇게 절대성의 관계를 통해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모델 혈통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

인 간부(姦夫)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감잡혀지고 지옥으로 변해 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의 후에 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장자권·소유권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새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 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 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레버런 문(Rev. MOON)의 생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탐감복귀하고 완수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宗主)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모델성을 세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치하인 평양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에 여섯 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 즉 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을 어느 누가 이해할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 인류를 구해 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권과 장자권, 그리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비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영계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인체가 있으며, 그 영인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영계(靈界)에는 물론,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비록 작은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의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며 절대성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감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 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터로 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 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권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지상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인체의 완성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라야 완숙한 영인체가 결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주는 영양소와 주인의 자상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익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모든 과일이 다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 있는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인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퍼센트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인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계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悖德)의 삶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인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속사람 된

양심의 길을 따라 절대성을 완성하고 인생 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함께해 주는 것이며 영인체의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가정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위해 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

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3대가 더불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

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좌우·전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이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

내가, 형님과 동생이 서로서로 위해 주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용서 못 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절대가치에 의한 정오정착의 세계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 온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감람나무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로는 천년을 살아도 돌감람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중생·부활·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

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 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절대성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종족이 모두 함께 절대성의 완성을 통해 축복결혼의 성스러운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전환을 하고 재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참부모님의 평화운동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인류의 평화천국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섭리적이고도 혁명적인 새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

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WORLD PEACE KING BRIDGE and TUNNEL’을 완성하고, 세계를 해방·석방시켜 주게 될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문화·종교·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이 지구상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되고, 유럽 대륙,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이상세계왕국 도래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 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 온 후천개벽의 시대, 즉 ‘평화이상세계왕국시대’의 출범

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 제립하여 여러분의 하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사는 참된 모델 이상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이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유토 피아로 소망해 온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마음의 담을 헐고 천주적 차원에서 국가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공영·공의사회의 실현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천주평화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도 레버런 문의 평화사상에 힘입어 유태교, 기독교, 회회교가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에 종지부를 찍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레버런 문의 통일사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 배후작업도 지금 레버런 문의 주도 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의 생애입니다. 하늘이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한 본인의 하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독버섯처럼 군림해 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이상세계 왕국을 창건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부모님께 서 개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쫓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유엔의 위상을 정립해 가는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이중적 사명을 다하는 하늘의 밀사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주신 축복가정들과 이 복된 지구성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꾸고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후천개벽시대는 참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결혼을 통해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개인 · 가정 · 종족 · 민족 · 국가,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 축복섭리를 완성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3대권의 이상가정을 찾아 세워 후천개벽 시대의 축복가정 된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이루고자 하셨던 소망도 바로 이 3대권의 이상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족 메시아들과 국가 메시아들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 가인권을 대표한 정치권과 아벨권을 대표한 종교권의 역사적인 유혈투쟁을 영원히 이 땅에서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연합도 그 소임을 다하여 국가단위의 축복을 통해 세계를 복귀하고, 인류의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가인-아벨의 투쟁을 종식시켜야 할 섭리적인 때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가인-아벨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 본연의 자리에서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 앞에 복귀된 본연의 이상가정을 봉헌해야 할 섭리적 소명의 때가 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형제권과 소유권까지도 절대성의 완성을 통해 참된 이상가정을 세우고, 다시 하늘 앞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천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섭리적 4차 아담 심정권의 시대인 해방-석방시대, 즉 후천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탕감복귀로 얼룩졌던 구약·신약·성약시대까지의 선천시대를 승리한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시대요, 아담 타락 이전 본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해 가는 시대입니다. 평화의 왕 참부모를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일체권을 이룬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참사랑 심정권의 시대, 즉 천주평화통일왕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필요 없는 영원한 해방과 석방의 세계에서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합니다.

절대성의 계명을 고수하여 참된 가정을 완성하고, 참부모님께서 승리하신 3대권 탕감복귀의 완성을 상속받아 타락권 이전 본연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천주적 이상권인 해방-석방권을 안착시켜 줄 모델 이상가정과 본연의 절대·유일·불변·영원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선한 왕국을 세워 억만세 찬양을 받는 천주평화의 조국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에 영원히 함

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평화메시지 완성한 날 2006년 11월 15일 거문도에서 —

— 천정궁에서 2007년 1월 8일 전(前) 4시 42분

완성 완결을 선포한 기념일 —

평화메시지 XI

후천개벽시대의 평화대사 사명

존경하는 평화대사 대표 지도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새천년을 알리는 우렁찬 함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는 오늘, 65억 인류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주는 후천개벽시대의 쌍합십승권이 선포된 지 벌써 2년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실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천일국 창건의 바쁜 나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섭리적인 때를 맞이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선택받은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홍익인간의 얼을 받고 태어난 전국 평화대사 대표 지도자 여러분께 금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명에 대해 하늘이 주신 특별 메시지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6년 12월 8일,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대사 전국대회에서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대사 전국대회 전경(2006.12.8, 한국국제전시장)

를 전해 주고자 합니다. ‘후천개벽시대의 평화대사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소원

여러분,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된 꿈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나 한결같이 소원하고 고대해 온 것은 평화이상세계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항구적 평화를 실현시켜 보지 못한 것이 역사적인 한으로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모르는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

천 수만년을 기다려도 무지에서는 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실로 오묘합니다. 당신의 자녀요 사랑의 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완성과 행복을 위해 삼라만상을 먼저 창조하시어 환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걸작품의 하나인 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게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이름 없는 꽃에 이르기까지 꽃에는 분명히 창조주의 의지와 목적이 숨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으로서의 생을 표현하고 완성해 가는 모습은 실로 경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색상과 음양의 조화를 현시합니다. 그리고 현란한 색상에 매료되어 찾아드는 벌과 나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야 마는 만능의 향기도 내어 뿜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강하고 눈이 부셔 쳐다보기도 힘든 태양 빛을 담아 생명을 창조하고 지켜 주는 자연의 빛으로 되돌려주는 화합과 평화의 빛을 발산합니다. 부지런히 문전을 들락거리며 자신의 종을 번식시켜 주는 벌 나비들을 위해서는 달콤한 꿀을 제공함으로써 보답하는 도리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성은 우리가 필설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실로 무한의 경지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일지라도 살아 있는 한 떨기 야생화에도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를 창조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만물만상과 조화를 이루고 공생-공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식이요, 영원한 사랑의 상대자이며 상속자로 창조한 인간의 위상은 어떻겠습니까?

천만 가지의 꽃이 만발해도 엄연한 창조의 원칙 아래 각각 개성진리체로서의 위상을 지키며 조화로운 대자연을 이루고 공생-공영하는 순리를 보며 인간도 조화와 평화,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찾아 영생하라는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하늘이 부여하신 개성체로서의 삶의 모습과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개성진리체로서의 특권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하고 개성 있는 생의 노정을 걸어야 하는 숙명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개성진리체 된 인간의 가치

여러분, 65억 인류 속에 여러분과 100퍼센트 닮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개성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날 한시에 태어나 동시에 죽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동일할까요? 세계 최고의 미남도 최고의 추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진

리체로서의 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분합작용의 변화 발전을 통해 지금도 영원한 개성진리체의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인간 된 절대가치적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과 나비의 상대적 관계와 조화처럼 인간끼리도 서로 위해 주는 참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의 삶 속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조화롭게 꽃피울 때라야 인간 된 절대가치의 기준이 설정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꽃과 나비가 상호간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설정하며 수수작용을 통해 상존하고 번영해 가듯, 인간과 만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늘 사이에도 엄연한 창조원리적 관계가 예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개성진리체들이 조화와 통일 속에서 이루어 낸 총합체인 대자연은 인간에 대해 절대대상의 자리에 서서, 주체 된 인간의 절대가치를 실체화시키는 절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정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3대권을 이루어 살면서, 상하·좌우·전후의 종적 횡적 관계를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개개인 모두 개성진리체로서의 절대가치를 실체화하는 주체 대상의 관계에 의한 수수작용(授受作用)을 통해 화합과 사랑의 생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창조주로서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위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도 알고 보면 당신이 세운 창조원리권 내에서 피조만물과 수수작용을 계속하면서 주체적 입장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지만 대상과 주고받는 수수(授受)의 관계를 떠나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된 아담과 해와가 만일 타락하지 않고 창조원리를 따라 인간완성, 즉 인격완성을 이루었더라면 인류는 절대가치적 존재의 자리에 서서 위로는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고 절대복종하며, 아래로는 자연계의 만물을 대상으로 삼아 영원한 평화왕국을 즐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상계에서만이 아니고 영계에서도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 받은 인간이 왜 이처럼 무지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거짓 부모인 사탄을 따라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극이자 가장 원통하고 서러운 치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원대한 창조이상을 갖고 당신의 자식이자 참사랑의 절대적 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비절참절한 한의 심정으로 참아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영어(圉圖)살이를 하시며 참아 오신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이신 것입니다.

인간 중심한 평화추구의 한계

그런데 인간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시각각, 사사건건 선과 악이 여러분 내부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쳐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0여년의 세월을 바쳐 오직 하늘 길만을 걸어 승리한 레버런 문(Rev. MOON)의 승리적 기대 위에 마침내 후천개벽의 시대가 선포된 것입니다. 죄악과 질곡의 늪에서 허덕이던 인류를 해방·석방시켜 자유와 행복의 세계인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는 천운의 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레버런 문을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주신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위하여 사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의 가치를 실천하여 승리하고, 인류에게 전수해 준 그 승리적 기대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하여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한 무지 때문에 정반대의 길인 이기적 개인주의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천비를 밝히고 인류를 교육해 온 레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본인은 일생을 바쳐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승리적 기대를 세웠으며, 참사랑 실천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정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자식이 되어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노예가 되어 살던 인류를 참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참된 혈통으로 다시 부활 중생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참사랑의 삶을 통해 개인

완성을 실현하고, 참된 가정, 참된 종족, 참된 민족, 참된 국가, 참된 세계를 세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대사들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연과 관계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연은 인간의 자의에 의한 선택권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필요에 의해 맺게 되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후천적인 인연이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바꾸거나 지워버릴 수 있는 인륜적 차원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해 주신 천륜은 우리의 선택권 밖에 있는 원초적 인연이요, 숙명적 관계입니다.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형제를 싫다고 하여 바꾸거나 선거로 뽑을 수 없는 것도 그것이 혈연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김씨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김씨 가문의 혈통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류가 최악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거짓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리적인 뜻과 목적을 놓고 하늘이 점지해 준 본연적이고 원리적인 혈연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로 야

기된 후천적이고 비원리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타락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신세가 되긴 했지만, 하늘이 주신 부모와 자식간의 근본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타락으로 무지한 식물인간이 되어 부모가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청맹과니의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혈통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혈통전환을 거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본연의 혈연으로 환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의 가치

그런데 혈통전환을 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인종·문화·국경·종교의 벽을 뛰어 넘어, 즉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하늘적 혈통을 창조하는 혁명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 실체를 쓰시고 현현하신 평화의 왕 참부모를 통해 재창조함을 받는 거룩한 혈통전환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대사 대표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전쟁과 반목의 세상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가문, 더 나아가서는 원수 국가와도 교차-교체 축복결혼을 통해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한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후천개벽시대를 이끌고 갈 세계 120만 평화대사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금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책임지고 ‘평화왕국경찰’과 ‘평화왕국군’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하늘의 밀사들이기에, 4대 성인은 물론, 수십 수백 대(代)에 이르는 여러분의 조상들까지 총동원되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종친들과 친지에게 후천개벽의 시대, 즉 천일국 창건의 때가 왔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계시는 섭리적 내용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차-교체축복결혼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종족, 그리고 이 한민족이 모두 함께 교차-교체축복결혼의 성스러운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후천개벽의 귀한 시대를 육

신을 터로 한 오감(五感)에만 의지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속히 영적인 오감도 열려 하늘의 섭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은 이 천운의 때지만 절대적 기준에서 설정한 섭리적 프로그램은 마냥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배달민족의 일을 보전하고 백의민족의 기개를 지켜 온 이 한민족의 평화대사 대표 되시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떻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단과 조총련도 다 같이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 혈통을 나눈 형제자매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백의민족의 후손이요, 홍익인간의 숭고한 뜻을 세워 준비시킨 천손(天孫)이요, 후천개벽시대에 평화왕국 창건의 선봉에 세우기 위해 하늘이 택해 세운 선민의 혈족인 것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사는 참된 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이상왕

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천도와 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갖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사악한 세계를 하늘적 참사랑의 권세로 심판하여 정의와 진리가 바탕이 된 해방-석방의 참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인류는 어차피 한 가족이 됩니다. 현대과학의 눈부신 발전도 하나의 지구촌가족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동양과 서양이 모두 한 가족으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평화이상왕국을 이 지구 구성에 창건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출현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창설한 천주평화연합과 몽골반점동족연합의 역할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기존 유엔(UN)의 아벨적 위치에 서서 민족적이고 국수적인 유엔 대표부들의 각축장이 아닌, 범세계적이고 초세계적인 천주적 차원에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숭고한 혁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외적이요 형식적인 구호에 매달리는 유엔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진정 인류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대사 지도자 여러분! 세계 인구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동족체입니다. 50억에 가까운 이들을 규합하여 이 지구성에 참사랑의 태풍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레버런 문은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같은 문화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가르침인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통한 참가정 완성의 진리를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평화대사요, 하늘의 밀사들입니다. 평화대사 된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진리를 들고 죽음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적인 신념과 긍지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밀사가 되어 뛰시는 여러분의 영생은 반드시 하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몽골반점은 단순히 몽골인들을 표시하기 위해 생긴 생리적인 반점이 아닙니다. 후천개벽의 시대가 올 때,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전인류를 규합하고 통일하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일찍이 하늘이 주신 동이족의 증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몽골반점동족의 중심축의 위치에 서 있는 한민족은 65억 인류의 선두에 서서 참부모님의 전통을 전수해 주는 대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소망하셨던 창조본연의 평화이상세계 창건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지금 실현되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교차-교체축복결혼 가정들이 하늘의 참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혈통이 열매 맺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성을 본연의 에덴동산으로 가꾸어, 인류는 이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구가하며 대대손손 천일국의 할렐루야를 마음껏 외치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한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XII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천일국 백성의 소명적 책임

지구성 도처에서 이날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신 전
현직 국가 수반과 평화를 사랑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인류평화의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본인과 한학자 총재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환영하
는 바이며, 아울러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
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2004년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받아 대관식을 가진 이후, 2005년
9월 12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7년 2월 23일 참부모님 탄신 및 참아버님 미수기념일
을 맞아 대한민국 청평 천정궁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
집자 주>

승리적 기반 위에 2006년 6월 13일에는 실체적 천일국 창건을 위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의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천일국 창건의 바쁜 나날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천일국 7년인 이 해 2007년은 섭리적 차원의 희년입니다. 이 귀한 성년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본인의 88세 생신과 한학자 총재의 65세 생신을 경축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본인과 한 총재가 참가정 3대권을 동원하여 지난 2년간 세계 65억 인류를 상대로 전수해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천일국 백성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절대성

존경하는 세계 평화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한 절대평화모델이상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대평화모델이상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연결된 천주의 총합실체요, 영·육계의 매개체이며 만물의 주관 주인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성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모델 평화이상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 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대성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絶對性), 즉 절대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소년 시절을 거친 후 새롭게 역동적인 삶을 출발하는 청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완성을 통한 절대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둘째는 부부간에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모델성, 즉 절대정절의 천법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 준 영원한 반려자로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주의 절대·유일·불변·영원성의 본원지인 것입니다. 혼전순결을 지켜 순수한 하늘의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어찌 천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완성, 즉 완성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실체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성을 중심삼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완성, 즉 인격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참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참사랑의 속성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참사랑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이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이 모든 환경권의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위해 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인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몸의 세포들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인 참사

람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생명과 참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모델
혈통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 온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
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돌감람나무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
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결혼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
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혈통전환을
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은
교차-교체축복결혼입니다. 축복결혼은 인종·문화·국경·종
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
사이며,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천적 혈통
을 창조하는 대혁명입니다. 즉 축복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현상
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 실체를 쓰시고 현현하신 평화의 왕, 참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인류 재창조의 거룩한 혈통전환 의
식입니다.

이제 인류는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 전환을 하고 새로이 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절대성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적 책임입니다.

3대가 어울려 사는 이상가정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평화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 부모 · 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전후·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이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마음의 담을 열고 천주적 차원에서 국가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지는 공생·공영·공의사회의 실현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님과 동생이 서로서로 위해 주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용서 못 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절대가치에 의한 정오정착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천주 평화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구조와 영계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터로 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 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인체의 완성을 위한 지상생활

여기서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가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지상계에서 호의 호식하며 잘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소명적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인체의 완성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야 완숙한 영인체가 결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

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인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퍼센트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인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부모님의 생애

여러분, 오늘로 88세의 생신을 맞게 되는 레버런 문(Rev. MOON)의 생애는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혁명적 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생애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모델성을 세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치하인 평양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에 여섯 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 즉 절대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을 어느 누가 이해하는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인류를 구해 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 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88세 노인의 나이가 되면 일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다음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때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레버런 문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타락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구해 주어야 할 참부모로서의 소명적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후천개벽의 시대, 즉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본인은

금년에도 여러분을 선도하여 인류복귀의 천주적 혁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손을 잡고 천명을 받들어 주어진 소명적 책임을 완수합시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이나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평화이상왕국시대의 도래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 온 후천개벽의 시대, 즉 ‘평화이상세계왕국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 재림하여 여러분을 하늘의 축복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이상인 평화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가인격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이상세계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격 유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평화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후천개벽시대에 처한 우리의 사명

여러분,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부모님께서 개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쫓겨내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후천개벽시대는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결혼을 통해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 축복섭리를 완성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개벽시대는 탕감복귀로 얼룩졌던 구약·신약·성약시대까지의 선천시대를 승리함으로써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시대요, 아담 타락 이전 본연의 평화이상세계를 창건해 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천개벽시대는 평화의 왕 참부모를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일체권을 이룬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참사랑 심정권의 시대, 즉 천주평화통일왕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전환을

하고 새롭게 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절대성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개념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 참부모님의 실체적 대신자요 상속자 된 소명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후천개벽시대의 이 소명적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닥칠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식과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 때 공표한 7개 항의 천일국 시민 된 천도적 차원의 기본 의무와 사명을 완수하여 반드시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세계 지도자 여러분, 억조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필요 없는 영원한 해방과 석방의 세계에서 실체적 천주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십시오!

천주적 이상권인 해방·석방권을 안착시켜 줄 모델 이상가정과 본연의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선한 평화왕국을 세워 억

만세 찬양을 받는 천주평화의 조국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XIII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 I — 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 —

존경하는 천주평화연합의 천일국 평화군단 대표 및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천일국 백성 7천만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UN)의 창설 취지를 받들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뜻을 품고 한국전쟁에서 크나큰 희생을 치른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우, 그리고 여러분의 국가 앞에 뜻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심정(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은 2007년 9월 23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된 '평화유엔 창설대회' 때 문선명 총재께서 강연하신 말씀으로, 그 전 3월 17일 하와이 코나 킹 가든에서 개최된 '환태평양섬리의 새출발대회' 및 전세계 200여 개국에서 개최된 '천주평화 신문명 개벽 선포대회'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전문에 일부 말씀을 첨가한 것이다. <편집자 주>

여러분, 인류를 죄악에서 구해 당신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은 단순한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 역사적인 성전이었습니다.

본인과 한반도를 중심삼고 펼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인이 최근에 선포한 환태평양 중심의 섭리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본인은 금년 천일국 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인류가 수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섭리적 차원의 희년(禧年)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이 해를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수천 수만년간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인류를 질곡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사탄 주관권, 즉 악(惡)주권의 선천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이 해를 정점으로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선(善)주권의 시대인 후천개벽의 시대를 활짝 열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늘의 섭리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185개국에서 본인의 가르침을 상속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이 이 시대에 내린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뛰고 있는 평화대사들의 수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인은 여러분에게 향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늘의 섭리적 프로그램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

여러분, 인류역사의 발전사를 깊이 관찰해 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의지와 숨결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세계 4대 하천지역들을 중심삼고 첫 출발을 보았던 인류의 문명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강 중심의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강을 중심한 인더스문명, 황하강을 중심한 황하문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인류문화는 지중해권에 상륙하여 그리스 반도의 희랍, 이테리 반도의 로마와 같은 지중해 반도문화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역사는 다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럽 대륙문화로 정착하는가 했으나, 이 대륙문화도 다시 대서양권의 영국 같은 도서문화의 꽃을 피워 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해(四海)를 평정하고 그 땅에 해질 날이 없다고 외치며 기세가 등등하던 대영제국도 다시 그 화려했던 문화의 바탕을 미주대륙에 넘겨주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주대륙에 착륙한 인류문화는 드디어 기독교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갑주를 입고 종교자유와 인권평등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 제1, 2, 3차 세계대전을 승리함으로써 무신론적 약주권의 대명사였던 공산주의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류문화사의 발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위대해서 이루어낸 결과도 아닙니다. 섭리적 프로그램에 맞추어 하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2이스라엘로 택해 세웠고 중심종교인 기독교를 통해 미국 국민을 기르고 훈련시켜 이 결실단계의 섭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구성을 한 바퀴 다 돌아온 인류문명사의 발전은 마침내 태평양권에 도착했습니다. 인류역사는 이제 환태평양권을 중심삼고 완성 완결을 봐야 할 섭리적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적 프로그램은 이제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약주권 하에서 승패를 거듭하던 선천시대의 탕감노정은 비상하는 환태평양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금년을 회년으로 선포하신 특별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태평양시대의 우리의 사명

여러분, 환태평양시대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큼니

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셨더라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전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지, 지중해 위쪽 한 귀퉁이에 자리한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 문화는 벌써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를 거점으로 사해를 장악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교화 치리하고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구해 줄 문명권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의 참형으로 끝난 예수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년을 준비한 터 위에 가까스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노심초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류의 시조로 지은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에덴동산에서 떨어져나갔을 때보다도 더 큰 처절 참절의 한에 사무친 비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천년, 하나님이 역사의 뒀안길에서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난의 노정을 걸으시며 준비시켜 온 제2이스라엘권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국으로서 신교와 구교가 적절히 안배되어 있는 미국은 구교와 신교를 하루속히 화합 통일시켜 예수님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21세기의 로마 역할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65억 인류의 화합과 통일을 일궈내어 이 땅에 평화이상세계를 창건하는 데 건인차 역할을 해야 할 섭리적 차원의 책임이 미국이라는 나라 위에 지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버런 문(Rev. MOON)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오늘 미국 위에 내리신 천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교와 신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신 레버런 문을 통해 보내 주셨습니다. 참사랑의 삶을 실천궁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가정인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한다는 하늘로부터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참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사랑-참가정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의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심신을 다 바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끝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인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란 모든 창조, 평화 이상적 모델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사는 새로운 가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누구나 참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위하여 사는 삶’의 전형은 하나님의 참된 가정입니다. 참부모와 참된 자식은 참사랑과 존경으로, 참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참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참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참조부모·참부모·참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

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좌우·전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이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환태평양권의 미래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환태평양권의 지도자 여러분! 이 지구성에 현존하는 65억 인류 가운데 5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요 친척인 한태평양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류 모두가 뿌리를 함께하고 있는 몽골반점동족권의 동족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이상을 중심삼고 우리가 축복받고 한 핏줄로 뭉치면 못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제 미국 대륙을 거쳐 영국과 같은 입장인 일본 열도에서 도서문명의 꽃을 피우며, 인류의 구세주요 재림 메시아로 현현하신 참부모의 조국 대한반도에서 결실을 봐야 할 숙명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와 같은 입장에 서서 전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초종교권과 초정치권의 분쟁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봐도 한반도는 지금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첨예한 대립지역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인류문화가 한반도를 중심한 태평양권에서 결실을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탕감복귀원리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시에는 고맙게도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이 동원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조국과 고향을 찾아야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함으로 말미암아 물질 뺏기, 사람 뺏기, 하나님 찾기 등의 세계적 차원의 갈등과 분쟁은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탕감복귀하기 위한 목적이 미분명하므로 이제는 본

인이 창설한 천주평화연합의 이름으로 보다 평화를 사랑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축복받은 하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평화군과 평화경찰을 재조직 편성하고 교육시켜 앞장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평화전위대로서 하나님의 소원인 평화이상세계를 창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배후를 조종하며 민주주의국들과 공산주의국들을 화해시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레버런 문이 전해 준 새로운 천부주의의 평화-화합의 원칙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이 절박한 시점에서 미국과 유엔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환태평양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노포크’와 ‘하와이’는 대서양과 태평양은 물론 오대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와이와 노포크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한반도는 미국 대륙을 등에 업고 태평양권의 모든 도서국들을 규합하여 환태평양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미래가 바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한 환태평양권의 보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본인은 지난 70년대부터 33년간 생애의 황금기를 이 미국을 중심삼고 세계평화를 위

해 정성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1년에는 냉전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지으러 가던 심각한 순간에도 먼저 하와이를 들러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 승리적 터전 위에 본인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정착시키는 섭리를 완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섭리적 회년을 맞아 다시 미국을 들르게 되었으며, 그 첫 기착지로 하와이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세계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탈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의 호전적인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힘없고 작은 도서국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작은 도서국으로서는 단독으로 이 강대국들의 정치·경제·군사적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라도 무혈점령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환태평양권에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때 인류의 평화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주변 강대국들의 엄청난 ‘쓰나미’를 혼자서는 저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태평양권의 모든 도서국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이 바라는 신문명권의 조국을 창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적도를 중심에 두고 남북으로 산재해 있는 태평양권의 작은 도서국들은 물론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솔로몬군

도,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국가들이 한 나라와 같이 연합전선을 펴서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줄 환태평양문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날로 심해져 가는 환경파괴와 전쟁으로부터 인류의 미래 젖줄이요 생명선인 해양권을 보호하고 살려 미래의 평화를 위해 본연의 원자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참부모의 업적

귀빈 여러분, 본인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수난의 노정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코 개인의 영광과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엇바뀌는 형극의 길에서도 하늘의 인침을 받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본인이었기에 인류구원이라는 천명을 붙들고 뒤넘어치는 불사조의 삶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세계의 종교계, 학계, 정계 및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본인은 다음 여덟 가지 면에서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레버런 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피조만물세계와는 절대적인 주종관계로 존귀와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본인은 섭리적 사명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으며, 첫 아담을 사탄에게 잃어버린 이후 하나님은 슬픔과 탄식과 한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한을 해원해 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석방해 드리고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드디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봉헌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보좌를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둘째, 레버런 문은 사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악행을 주도하는 사탄 악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본인은 섭리를 출발하던 초창기에 14년여 동안의 피나는 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천상세계의 온갖 비밀을 파헤치던 중에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혈통을 더럽혀 온 것이 사탄의 작전이었기에 본인은 하늘 편으로 본연의 혈통을 찾아 세우고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하늘의 전법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차-교체 합동축복결혼운동인 것입니다.

셋째, 레버런 문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타락

한 인간은 왜 마음과 몸이 싸우며 갈등하고 있는가,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지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은 레버런 문이 밝혀 놓은 창조원리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중에서부터 지상생활을 거쳐 영원한 사후세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직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배우자를 짝 맞추어 온 것입니다.

넷째, 레버런 문은 영계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사후의 세계인 영계는 모든 인간이 지상생활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세계로서 실재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한 뒤 영인체를 완성하고 육신을 벗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닌 승화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영생의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을 환송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성현 열사들이 지금 영계에 실재하고 있으며,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되어 하나님의 지상 섭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생활의 순간순간은 그대로 천상에 기록이 되어 훗날 영계에 가는 날 지상생활의 심판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더 큰 것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 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레버런 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준비되었던 유대교단과 당시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반대를 받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인류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2아담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모델을 성취하여 모든 인류를 접붙여 주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를 거쳐 서구문명의 바탕이 되어 대서양과 태평양문명권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을 위한 신부적 기반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몰리신 예수님의 서러운 심정세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과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한계, 그리고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 등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섯째, 레버런 문은 성서 및 각 종교의 경서의 핵심내용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성서를 중심한 각 종단의 주요 경서는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 암시되어 있는 비밀 계시서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내용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의해서만 밝히 밝혀집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의 핵심 내용을 밝히 알려 준 분이 예수님이셨으며,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통해 신·구약 성서 전체를 꿰고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에 관한 하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타락 그리고 복귀의 길이 감춰진 비밀 계시서입니다. 레버런 문이 밝힌 원리는 각종 경서에서 의문시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곱째, 레버런 문은 인류역사를 가장 잘 아는 책피언입니다.

역사는 막연하게 반복되는 단순한 순환사관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본연의 창조이상을 회복해 가는 탕감복귀섭리역사이며 구원섭리역사입니다.

역사의 시원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본인은 이러한 섭리적 관점에서 1985년 소비에트연방의 최전성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공산주의의 종언을 예언하는 등 유물사관의 종말을 예견한 것입니다.

이제는 각 국가와 종교가 각각의 답을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One Family under God’, 하나의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이 되는 시대가 급속히 도래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운의 도래가 역사의 축을 장차 아벨유엔을 중심으로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한 초종교 초국가의 세계로 급속히 전진할 것입니다.

여덟째, 레버런 문은 참가정 가치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이 이루지 못한 참가정의 이상을 되찾아 지상·천상천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도해 온 축복운동은 단순한 결혼의식이 아니라 원죄를 청산하고 본연의 참된 혈통으로 하늘 앞에 접붙이는 거룩한 행사인 것입니다.

참된 가정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근원입니다. 본연의 참된 이상가정을 통해 참된 나라, 참된 세계, 참된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부모를 중심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기초가 천일국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2005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 창설 이후 레버런 문은 3대 권 축복이상의 완성을 통해 말씀과 축복으로 전인류를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을 만들고자 본인과 한학자 총재, 나아가 직계 자녀들과 손자손녀 3대권이 나서는 세계순회를 완료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기독교 대표 120명, 종교권 대표자 1,200명, 나아가 12,000명의 평화대사들이 국가대표로서 세계 190개국을 순회하며 참부모님의 말씀과 축복행사를 함으로써 참된 가정

의 가치를 하나님 중심의 신문명세계를 이뤄 가는 데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게 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턴 문은 여덟 가지 면에서 챔피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으며, 이는 하늘의 도움으로 전인류가 협조해야 할 승리의 표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부모와 전인류가 일치가 되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승리의 터전 위에 본인은 지난 2003년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의 추대를 받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천상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2004년에는 본인이 미국과 한국의 국회로부터 평화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6월에는 마침내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인류는 실로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20세기까지 반복되어 왔던 암울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식민지 쟁탈전과 제1·2차 세계대전, 한반도에서의 6·25전쟁, 동서 냉전 등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전쟁과 반목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애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의 구현을

위해 바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된 국제연합(UN)이 영원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평화의 기구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창설을 본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했던 훌륭한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설 60년을 넘긴 오늘날의 위상은 그 본래의 창설목적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200개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국의 권익만을 대변하고 주장하는 유엔 대표부들의 역할은 이제 세계분쟁의 해결과 세계평화 구현에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 9월 12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사를 꽃피울 천주평화연합(UPF)의 창설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후천개벽시대의 아벨유엔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본인의 가르침인 ‘천부주의’, 즉 참사랑-참가정주의를 전수받아 뛰고 있는 수만의 평화대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천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여러분, 천주평화연합은 초종교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차-

교체축복결혼을 통해 타락 전 아담의 본연의 혈통으로 복귀하는 인류 혈통전환의 대혁명을 수행하는 전위대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레버턴 문의 가르침을 따라 만일 미국과 러시아가 초국가적 차원에서 교차-교체축복결혼을 결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나라는 영원한 절대주인인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수억의 친손자, 외손녀가 살고 있는 나라를 향해 어찌 적대감을 품을 수 있으며 총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받은 여러분, 65억 인류를 하나님의 참동족 혈통으로 바꾸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본연의 이상조국과 본향 땅을 찾아 태평성대의 이상천국을 창건하는 성업이 지구성 방방곡곡에서 벌써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185개국에서는 1만 2천 곳씩의 훈독-축복대회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참으로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뜻 깊고 성스러운 회년과 함께하시는 천운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구성의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권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해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성을 회생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약속해 줄 새로운 본연의 원자재의 보고를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천주적 여성시대를 대변해 주는 해양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다를 중심삼고 초국가적이고 초대양적이면서도 본성의 여성문화권인 해양권 문화를 창출하는 데, 환태평양문명권이 주인 된 신문명 개벽시대를 산출하는 데 참여머님을 중심으로 모든 딸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승리적 산고를 완성 완결하기 위한 기관차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은 본인이 전해 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각인하십시오. 천상의 수천억에 이르는 여러분의 축복받은 선한 조상 가정들도 이 시간 지상재림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상에서 후손인 여러분을 통해 완성을 보아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신 참부모님과 일심일체가 되어 타락 전 본연의 모습으로 그분들의 명령을 절대기준에서 받들고 동참하고 모시는 삶을 통해 지상·천상천국 창건에 총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육계가 이처럼 함께 살아 호흡하며 동행동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인이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

리고 싶은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집 1천2백여 권 중에서 요약 발췌한 ‘평화메시지’ 책자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탐독하고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영·육계가 하나되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평화이상세계를 이루어 영원한 해방·석방을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후천개벽시대의 섭리를 주도할 아벨유엔의 평화군과 평화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역사적인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복지와 세계평화를 위해 숭고한 헌신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의 삶을 역사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군과 평화경찰은 참부모님이 창설하여 지금 세계적 규모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아벨유엔)의 깃발을 들고 평화군과 평화경찰의 선봉에 설 가정이 여러분 같은 영웅들이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부디 본인이 전해 준 오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젊은이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국가를 교육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국가, 그리고 환태평양권과 평화유엔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XIV

가정맹세의 가치와 그 의의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날을 기하여 하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이정표인 가정맹세의 섭리적 가치와 그 의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맹세는 1994년 5월 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설과 더불어 하늘이 인류에게 내리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완성 완결하는 성약시대를 선포하여 선천시대의 흑암을 뚫고 밝은 후천시대의 신천신지, 즉 천주평화통일왕국 천지개벽의 시대를 열어 가는 길잡이로 주신 이정표입니다.

이 글은 참부모님께서 2007년 6월 13일, 천정궁에서 거행된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대관식 제1주년 기념 및 제45회 참만물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내려 주신 말씀 전문이다. <편집자 주>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한 이래 40년의 기나긴 탕감노정을 참부모께서 직접 싸워 승리하고 넘으신 기대위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나의 맹세’가 아니고 천국 입성의 기본단위가 되는 참된 가정이 함께 외치며 실천해야 하는 ‘가정맹세’입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하늘과 참부모님의 한이 배어 있는 맹세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탈을 벗고 해방의 자리에서 천년만년을 두고 부를 수 있는 인류의 표제입니다. 가정은 천국에 입성하는 기본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맹세는 천일국을 이루는 절대기준이요, 헌법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맹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이자 인류의 첫 조상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타락으로 인해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이상을 절대적 기준에서 이루셔야 하는 섭리적 소명 때문에 ‘가정맹세’를 설정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위에서 본연의 이상가정인 참가정의 모체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접 모시고 살 수 있는 지상·천상천국을 창건하는 필연적인 도구로 주신 축복입니다. 따라서 가정맹세를 낭송하는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완

전일체를 이루어 일심 · 일체 · 일념 · 일화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요, 부모요, 스승으로 주신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100퍼센트 순종굴복하여 절대신앙 · 절대사랑 · 절대복종의 인격완성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늘의 뜻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심신통일, 부모통일, 부부통일, 부자통일, 형제통일의 기본 틀, 즉 참사랑의 일체권이 완성되어야만 가정맹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는 성약시대를 넘어 천주평화통일왕국을 이루는 절대기준이요,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출세를 해도 개인이 아닌 가정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인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참된 모델가정이라야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적 가정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늘의 최대 최고의 축복이자 무서운 현실입니다. 천일국을 창건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일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는 참부모님의 전승기록입니다. 시의시대인 성약시대의 가르침을 주는 법도입니다. 가정맹세는 참사랑을 뼈로 하고 참가정을 심장으로 세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는 참사랑의 핵폭탄입니다. 가정맹세는 종과 횡, 남과 북, 전과 후를 연결하는 중심에 참사랑을 모시고 영원한 구형운동을 출발시켜 주는 에너지요 지혜입니다. 가정맹세는 천국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천국문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키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요, 참사랑으로 완성한 참가정의 키로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는 1절부터 8절까지 모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의시대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천개벽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참부모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각을 가지고 체휼할 수 있는 권내에서 모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류조상의 타락 이래 처음으로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인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원성사시켜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 앞에 여러분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될 때 여러분의 국가가 있는 것이요, 민족도 있는 것이요, 종족도 있는 것이며,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영광의 가치를 총합한 실제적인 기준이 참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치를 확실히 안다면 참부모를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치의 참부모입니다.

가정맹세 각절의 해설

본향 땅을 찾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하자

가정맹세 첫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가정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상 얼마나 좋은 복음 중의 복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창조이상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창조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 땅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해야 한

다는 뜻입니다.

타락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고 천일국 주인 된 우리 가정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그곳에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본향 땅입니다. 가정을 중심한 본향 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스럽게 나라와 세계 전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하나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일치된 가정생활을 하다가 지상에 살던 사람이 천국 가정으로 이동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개인 구원이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정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이 가정에서 났기 때문에 복귀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이런 역사시대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가정이 새로이 정착하는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들어야 됩니다. 본향 땅은 가정을 중심한 본향 땅을 말합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런 가정이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히 나라와 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가정을 중심하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창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창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지상지옥이 돼 있고 천상지옥으로까지 연결돼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창조하여 180도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향 땅을 찾아서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하는 일은 축복가정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하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가정 된 여러분의 첫 번째 맹세요 사명입니다.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하자

둘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고 했는데, 참사랑은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처끼리 하나되고, 자녀와 하나되는 기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기준의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영계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가정맹세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나 가정맹세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맹세문의 어느 한 가지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머니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자식들의 공동 책임도 되는 것이며,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 전체가 타락한 결과를 초래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그 존재가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 즉 종적인 참부모와 횡적인 참부모의 두 참부모가 하나되어야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고, 완성한 아담해와는 횡적인 참부모가 되어서 그 두 부모가 하나된 터 위에

나의 심신통일이 이뤄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함께 이상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대표적 가정과 중심적 가정이란 천상에 있는 대표고, 땅에 내려오면 8단계의 원형으로 수직이 되는 가정입니다. 수직적인 입장에서 천상의 대표와 중심이 하나되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중심에서 효자효녀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국가에서는 충신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세계에서는 성인, 그런 천주에서는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가족원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성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성자 가족원 모두가 모여 성자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셔 가지고 대표적인 가정이 되고 중심 가정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는 효자효녀, 나라에서는 충신열녀, 세계에서는 성인,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 등 하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녀 교육, 국가에서는 백성 교육, 세계에서는 성인

교육, 하늘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일족, 즉 성자의 가정 식구로서의 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의 완성

셋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의 완성을 말합니다. 황족권을 빼고, 이것 전부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황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은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여 황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고,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 가지고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절대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이것을 표준으로 하고 매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의 관념적인 신앙만으로는 완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천주대가족의 형성

넷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신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세계가 전부 한 가정입니다. 한 집안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한 사람들이 외치는 가정맹세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한 가정이지 두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이상이신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입니다.

공기로 말하면, 저기압권에 공기가 없게 되면 고기압권의 공기가 흘러가서 채워 줍니다. 물은 높은 데 있을 때 아래에 구덩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서 메워 주는 것입니다. 균형

이 이상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많은 것들이 남아서 버리지만 후진국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년에 2천만 명이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주의 자연적인 운동권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가들의 행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들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심판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에이즈와 마약입니다. 프리섹스나 호모섹스 같은 것은 인간말짚들의 광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반대로 사탄은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Rev. MOON)은 소비의 천국인 미국 같은 선진국가들을 전부 다 굶게 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후진국들을 살려 주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전부 다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할 때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전세계 대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이고, 대가정의 평화이고, 대가정의 통일이고, 대가정의 행복입니다. 전인류가 전부 다 행복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마을 마을에 통일운동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풍족한 곳에서는 분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대가족 세계는 우리 축복가족들의 세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계에 가게 되면, 전세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사는데도 국경이 없습니다. 오색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누가 과거·현재·미래까지 전부 다 하나 만들 수 있는 가정적 이념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계에서도 중심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계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된 위에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을 속이면서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별의별 사기·모략·중상을 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오히려 돈이 그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심판의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지식이 전체를 위해 이익 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면 그 지식이 나를 쳐 버립니다. 지옥에 처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세계 한 가족 이념을 중심삼고 세계를 위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할 텐데 세계를 무시하고 개인만을 위하면 세계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정맹세를 “통일교회는 선생님 가정을 중심삼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중
심삼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정입
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
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
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입니다.

정지는 사망과 통해

가정맹세 다섯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주체적 천상세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분포를 놓고 볼 때 영계에 가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현재 이 세
계의 사람이 많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계의 인구와
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어디가 주체고 플러스냐 하면 영계입니다. 마음이
몸에 대해 주체적 입장이요, 플러스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몸
은 지상계를 대표하고, 마음은 영계를 대표합니다. 마음은 플
러스와 같고, 몸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마
음을 몰라보는 생활, 마음세계를 몰라보는 생활을 했다가는 지

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마음을 찢던 삶에서 이제는 마음이 몸뚱이를 쳐서 굴복시키는 삶을 영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 천상세계가 주체로 되어 있다는 관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주체적 하늘 나라를 대해서 그 상대적인 지상의 완성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천상세계에 가서 완성 기반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 관계입니다. 그 직접적 관계가 매일, 일년, 일생을 통해서 관계맺어져야 저나라에 가서 자기의 제2활동 무대가 되고 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세계와 대상세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이라는 것은 전진해 나가는 발전입니다.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촉진화, 즉 빨리 빨리, 더 빨리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하면 안 돼요. 정지하면 벌써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과 통하고 사망과 통합니다. 정지는 내려가서 지옥과 통하고, 촉진은 발전과 통하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나태해 가지고 먹고 즐기는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일생은 짧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라 이거예요. 선생님같이 자지도 않고 달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망하던 그 세계와 관계를

맺지,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세계에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래야 통일이 된다구요. 영계와 지상계를 같이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라

여섯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으로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과 참부모 가정의 대신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축복받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왕족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천일국 백성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만민 앞에 평등하게 나눠 주는 가정적 복의 기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가정은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지만 축복가정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과 참부모의 가정을 대신해서 복을 받게 해 주는 기관이 되어서 나눠 주겠다, 나눠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복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한 심정문화세계 완성

일곱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시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통일신앙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연의 혈통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혈통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세계나,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참부모의 마음세계나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타락한 세계는 문화가 복잡다단합니다. 심정문화세계를 통해야만 개인천국·가정천국·종족천국·민족천국·국가천국·세계천국,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아니고는 개인·가정·종족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심정문화세계가 아니고는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세상은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수천년을 걸려 가지고도 아직까지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정문화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참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하자

여덟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에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가정에서 몸 마음이 하나된 부부가 되어서 왕가가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요, 성약시대 완성이요, 새 가정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녀가 참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은 왕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가정은 왕가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종족왕·민족왕·국가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원한 영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 나라에 영원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약시대입니다. 성약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하나의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통일된 세계가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를 대표한 것입니다. 가정단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넘고 전체를 넘어서야 성약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세계의 판도를 넘어 가지고 성약시대의 형을 갖추게 될 때 하나의 세계, 즉 평화이상천국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신앙 위에서 만물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절대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절대복종의 기준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식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우주만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한 무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무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인 순환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주고 없으니까 내 아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운동의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투입한 후에는 완전히 돌아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악마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관을 통하는 모든 전부가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 대신, 하나님의 코 대신, 하나님의 입 대신, 하나님의 발 대신, 하나님의 손 대신 이렇게 절대신앙을 중심삼고 절대사랑을 하고, 절대복종을 하

는 기준을 세워 살아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정하고 협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투입해서 사랑의 절대대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실체대상이 필요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지상세계는 물론 천상세계에서도 실체가 없으면 실체 자녀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서 체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참부모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중심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창조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대상으로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존하게 해 주기 위해 번식의 기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창조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인에 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요, 혈통의 뿌리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뿌리입니다. 타락이 없었더라면 아담 해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일체적 사랑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이시요, 아담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 부모의 혈육을 받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종적인 자신이 되

고, 몸은 황적인 자신이 되어 일심·일체·일념·일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神)·인(人)·애(愛)의 일체권을 형성함으로써 심신일체를 완성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되면 하나님과 부자지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일체를 완성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이요, 그 가정은 평화와 이상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쪽씩인 남자와 여자가 일체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상대로서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을 완성시키게 되는 기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가치의 존재로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도 참사랑의 완성을 보아 영원한 이상애(理想愛)가 깃드는 창조이상세계를 완성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은 1대조, 아담은 2대조, 아담의 자녀는 3대조의 자리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부모의 자리요, 아담은 부모의 자리요, 자녀는 아들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3대가 한 가정에 안착하게 되면 조부모는 천상천국의 하나님의 자리이자 본연의 지상세계 천상세계의 왕과 여왕의 자리요, 부모는 현재 지상천국을 대표한 중심 왕과 여왕의 자리

요, 자녀는 미래를 대표하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상속하는 왕자 왕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의 일족은 하나님을 중심한 왕족이 되어 살다가 천국으로 이동하여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성취해야 할 목적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모시고, 부모는 현재 세계의 왕과 같이 모시고, 자녀는 미래의 왕자 왕녀와 같이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인간의 욕망과 소망 그리고 행복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가정맹세 8절은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삶을 통해서라야 가능한 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도 창조 당시 절대신앙과 절대사랑으로 절대투입해 가지고 절대복종하신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3대 주체

여러분,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몸이 양심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 향락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에만 의지해 살면 향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남녀간에 난잡한 사랑 관계를 만들어 가

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 갑니다. 절대신앙 · 절대사랑 · 절대복종을 해서 신인애 일체권의 사랑, 타락하지 않은 때의 하나님과 인간이 완성해서 일체권이 되어야 했던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권, 즉 지상 · 천상천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원해야 돼요. 해원이라는 것입니다. 한을 풀지 않으면 해원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안팎으로 전부 다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걸 복귀의 완성이라고 하지요? 복귀를 완료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잘 맺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전통이 여러분의 가법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하고 참된 혈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에덴동산에서도 타락이 있었는데, 이 사악하고 더러운 죄악세계에서 순수한 혈통을 보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죄악세계에 뿌리를 두고 태어난 1세의 부모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축복을 받아 태어난 2세부터의 자녀들에게는 오염시킬 수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은 구습에 젖은 습관적이고 세속적인 가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를 위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후손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후손 앞에 남겨 줄 수 있는 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광야노정을 견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과 싸워 이겼듯이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부모는 죽더라도 천도는 심어 주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위하고 참부모님을 위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운을 입고 자동적으로 하늘의 전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를 한 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은 그들이 기존 환경에 동화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다 잘살고 잘 먹고 사치하던 생활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탐했고 지식 우선주의로 흘렀습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부잣집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민의 정신을 팔아먹게 되었고 하늘의 전통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정맹세가 가르쳐 주는 교훈은 천주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의 각종 어려움을 피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과감히 현실을 격파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가정맹세의 전통으로 무장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1대만을 중심한 가정이 아닙니다. 적어도 3대권을

이루어 확고부동한 하늘의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대대손손 선민의 참된 혈통이 흐르는 가문을 정착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은 참사랑의 터전을 넓히고 만민의 심정을 모아 촛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워 축수를 드리며 하늘과 땅 그리고 만민과 더불어 참사랑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죽겠다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종자로 남기고 싶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맹세에 입각한 참되고 선한 가정의 전통을 세워 기필코 승리하십시오! 후천개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태평양권 시대의 밝은 태양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춰 주고 있습니다. 이 조국 땅 대한반도에 참생명과 참사랑 그리고 참혈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의 축복을 주신 참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길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

평화메시지 XV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사상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그리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 인류의 진정한 평화제전으로 그 위상을 굳혀 가는 2007 세계문화체육대전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평화 신문명 개벽시대의 도래’ 깃발을 높이 들고 출발하는 금번 대전은 세계 65억 인류를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종말기에 처한 인류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세계 어디에서 진

이 글은 문선명 총재께서 2007년 7월 4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된 ‘2007 세계문화체육대전’ 통합개회식에서 말씀하신 강연문이다. <편집자 주>

정 인류의 장래를 염려하고, 초종교 초국가적 차원에서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류는 지금 부모를 잃은 고아요, 스승을 몰라보는 불량아요, 주인을 잃은 종의 신세가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200여 국가가 있지만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모두들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직·간접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숭고한 뜻을 세우고 출범을 보았던 국제연합(UN) 역시 이제는 그 한계점에 부딪쳐 전쟁, 기아, 질병 등의 세계적 위기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을 일삼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위상을 세워 놓고 역사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가공할 살육전과 천재지변을 겪어 왔지만 인류는 지금도 생존하고 번식을 거듭하며 막연하나마 더 밝고 행복한 세계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아직도 죄악과 질병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3대 주체사상

여러분, 인류가 직면한 이런 비극적 현실을 타개하고 하나

님 아래 태평성대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섭리적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 2006년 6월 13일 평화의 왕 입궁-대관식을 기해 천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궁행해야 할 천도적 차원의 기본의무와 사명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인도해 줄 중요한 가르침으로 주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부디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3대 기본 주체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원리적 자율 성장권을 거쳐 스스로 인격완성을 하여 참된 자녀의 위상을 확보하고, 참된 부부를 이루어 자녀를 번식 시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모의 위치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와 더불어 부여받은 참사랑을 실천궁행하여 인간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인류도덕이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천륜이 바닥을 치고, 부부간의 정절은 이미 구세대의 산물로 버림을 받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도 이제는 이기적 개인주의의 늪에 묻혀 찾아보기 힘

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참된 부모를 중심삼고 3대권을 이루어 참사랑으로 한데 어우러져 사는 가정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비록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이지만,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스승 중에 최초 최고의 스승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참된 스승의 자리에서 참된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참된 부모로부터 참되고 선한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학교교육으로 연결됩니다. 학교교육은 한 단계 발전한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도 스승은 참된 부모의 심정을 갖고 모든 학생을 참된 자녀로 기르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횡적인 학문교육도 종적인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승은 먼저 참된 부모의 심정을 소유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만유의 참된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

님의 창조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에서 달성하신 완전투입의 결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주인이 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참사랑을 절대기준에서 투입하는 비결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인이 되는 전제조건도 참부모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3대 주체사상의 유기적 관계

그런데 이 3대 주체사상은 상호 절대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부모·참스승·참주인 모두가 주체적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대상적 자리에도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부모의 위치만 확보해도 거기에는 참스승·참주인의 자리가 생겨나고, 참스승의 자리에만 나아가도 그곳에는 참부모·참주인이 함께하고, 참주인의 위치만 확보해도 여러분은 참부모·참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3대 주체사상을 상속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3대 주체사상을 완성한 인격자가 되려면 하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만유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절대적 기준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할 줄 아는 신인에 일체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참부모·참스승·참

주인이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양각색의 조직체와 관계들의 조화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사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두고 참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 봉사하는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을 실천궁행하는 사람이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갖고 만물을 사랑하고 보호 육성하는 사람이 만물에 대해서도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인은 그 지위나 위치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에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직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장은 그 회사의 참주인이 되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아끼듯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그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양심은 참부모 · 참스승 · 참주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상계에서 일생을 향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특별 선물입니다. 흔히들 인생 1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양심의 작용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작용 중 최고 최상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역할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부모보다 먼저 알고, 스승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본원적인 기능을 양심에게 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야 할 인간의 양심에 타락성의 때가 끼어 지금까지 각종 죄악과 질병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주관권의 이 사악한 세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석방을 받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양심의 기능을 본연의 위치

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늘과의 종적인 관계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억 인류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각도를 만들어 그것이 정통이요, 최고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형성하여 측정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수직각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자리에서 인류를 사탄의 굴레로부터 구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는 레버런 문(Rev. MOON)입니다. 결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이 인침을 주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로 세워 준 자리입니다. 사탄의 영향권 밖에 있는 절대 해방-석방의 자리입니다. 65억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인류를 90도의 수직각도 길로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길, 즉 양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리의 삶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 주는 분이 바로 레버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3천억이 넘는 영계의 절대선령 된 인류도 이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시한 4대 성인은 물론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상가와 철학자까지도 이 엄청난 현실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영계에 가 있는

그들까지도 참부모의 축복은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의 위대성

여러분, 인류는 이제 참부모 되신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받들고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천명을 이루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인종·문화·종교·국가를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로 묶고 전쟁과 갈등이 없는 창조이상세계, 즉 지상·천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길이, 전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길 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참부모님은 벌써 인류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해방·석방시켜 주는 후천개벽의 시대를 선포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혁명의 불길을 당기고 있습니다.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이 되어야 하는 진리의 혁명 말입니다.

여러분, 2007 세계문화체육대전의 기본 정신도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성업의 완성에 있습니다. 종교인, 문화인, 체육인 등 우리 모두가 한데 어울려 ‘천주평화 신문명 개벽시대’를 꽃피워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종교인들이 이 성스러운 참사랑의 혁명대열에서 선봉대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런 문은 벌써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지구성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대양 육대주를 연결하고, 순회 질주할 수 있게 해 줄 ‘세계평
화초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베링해협에 터널을 뚫는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평화 구현의 숭
고한 뜻을 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본인은 유엔의 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차원
에서, 본인은 인류를 천주평화 신문명 개벽시대로 인도해 줄 새
로운 ‘평화유엔’, 즉 아벨유엔(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여 세계
120여 개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참부모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양심
의 나침반을 따라 참부모 · 참스승 · 참주인의 위상을 확보하
고 영생을 보장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궁행하십시오. 여러분
의 장도에 천운이 함께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축복받은 선한 조
상들도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
고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3대 주체사상
에 의한 ‘태평성대 평화왕국 시대 도래’ 억만세를 부를 수 있는
참가정이상을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메시지 XVI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 II － 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 －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오늘 이 귀하고 섭리적인 날을 경축하기 위해 왕립하신 귀빈 여러분!

먼저 본인 부부와 일행 모두를 무사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와 정성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실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80여년 한평생을 오직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온갖 수난과 옥고를 치르는 등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며 살아온 생애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가운데 홀로 사탄과의 치열한 투쟁을 계속해 온 삶인 것입니다.

이 글은 평화메시지 13장의 강연문에 2008년 8월 7일 제12회 칠팔절 기념식 때 분봉왕 중심 섭리시대 말씀이 추가되고, 다시 2008년 8월 27일 참부모님 헬기 사고 40일 부활기간을 승리하시고 이를 기념하며 중생완성·부활완성·영생완성의 날을 선포하시며 《평화신경》의 총론적인 결론의 말씀인 평화메시지 16장으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섭리하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형 헬리콥터 사고에서 하늘은 영계를 동원하여 참부모 된 본인 부부의 몸에는 사탄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신비롭기만 한 기적 중의 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헬기 사고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불가사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3일을 조국광복 완성의 날로 공표해 놓고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본인을 하늘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실체로서 지상계에서 이 성업을 이루어 가는 레버턴 문(Rev. Moon)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가 있어 섭리를 완성하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입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우리 부부는 참으로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하늘의 인침을 받은 본인 부부는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는 고아로서 수천 수만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는 하늘의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4년여 남아 있는 2013년도를 향한 마지막 단계로서 ‘쌍합칠 팔희년’을 선포하여 영·육계 만방에 총진군 명령을 내린 이 시점에 이런 불의의 헬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무지몽매한 인류에게 하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인과 손을 잡고 폭발적인 참사랑-참가정 혁명을 수행하여 전인류를 축복가정화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봉왕 중심 섭리시대

귀빈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미국 텍사스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남북미 정상급들의 세미나에서 선포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시대권인 후천개벽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등극한 본인의 명을 받아 세계 각지로 파송되는 분봉왕들을 중심삼고 하늘이 역사하시어 이 땅에 신천신지, 즉 천일국을 완성시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유태교와 이스라엘의 반대에 부딪쳐 십자가의 길로 내몰리는 예수님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늘이 수천년에 걸쳐 준비해 온 로마를 평정하고 치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터전만 확보했다더라면 예수님은 세계로 통하는 로마의 길을 타고 세계 전역에 분봉왕들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을 대신하는 대신자요, 하늘의 뜻을 전수 받은 상속자로서의 분봉왕 역할을 다하여 이 지구성에 국경이 없고 담이 없는 해방-석방의 평화왕국, 즉 천일국을 창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사탄의 술수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다시 2천 년간 탕감복귀의 길을 걸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레 요한 한 사람의 실수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천리입니다. 마침내 이 땅 대한민국이 하늘의 선택을 받아 섭리를 완성시킬 조국이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땅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벌써 섭리의 3대 중심국에 아벨격 분봉왕을 임명,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섭리상 조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을 대표해서는 곽정환 UPF(천주평화연합) 세계회장을, 어머니격 국가인 일본은 오야마다 히데오 일본 UPF 회장을, 그리고 섭리적으로 장자적인 미국에는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회장을 봉하여 파송했습니다.

더불어 가인형 분봉왕으로 북미권을 대표해서는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를 그 후보로 선임해 놓았고, 남미권을 대표해서는 전 우루과이 대통령 상기네티를 세워 남미대륙에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조국이 되는 대한민국

의 가인형 분봉왕 위치에는 전국민의 원로로 존경을 받고 있는 소석 이철승 총재를 선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세계 각국에 분봉왕들을 봉하는 절차를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례 요한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시대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홀연히 떠나셨던 예수님 때와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하늘의 인침을 받은 본인은 기필코 이 지구성에 하나님의 조국광복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고 평화의 왕이 중심축으로 서서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받은 자녀들과 분봉왕들을 인도하여 영원한 평화가 정착하는 본연의 이상천국을 창건할 것입니다.

부디 마음과 몸을 하나로 하여 오늘 하늘이 내리시는 이 천비의 일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하십시오. 향후 여러분의 활동과 삶을 지도해 줄 천도의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주권의 시대인 후천개벽시대

존경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상기네티 우루과이 대통령을 비롯한 중남미권의 전·현직 정상 및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본 국제지도자대회

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본인과 본인의 가정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국제연합(UN)의 창설 취지를 받들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뜻을 품고 한국전쟁에서 크나큰 희생을 치른 유엔군,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들 앞에 뜻을 중시하고 7천만 한민족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심정(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해 당신의 창조이상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은 단순한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 역사적인 성전이었습니다.

본인과 한반도를 중심삼고 펼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인이 최근에 선포한 환태평양 중심의 섭리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본인은 작년 천일국 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인류가 수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섭리적 차원의 회년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이 해를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수천 수만년간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도 하나님의 기숨을 아프게 했고, 인류를 질곡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사

탄 주관권, 즉 악주권의 선천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이 해를 정점으로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선주권의 시대인 후천개벽의 시대를 활짝 열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늘의 섭리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185개국에서 본인의 가르침을 상속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이 이 시대에 내린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뛰고 있는 평화대사들의 수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인은 여러분에게 향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늘의 섭리적 프로그램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 — 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

여러분, 인류역사의 발전사를 깊이 관찰해 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의지와 숨결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세계 4대 하천지역들을 중심삼고 첫 출발을 보았던 인류의 문명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문명,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중심의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강을 중심한 인더스문명, 황하강을 중심한 황하문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인류문명사는 지중해권에 상륙하여 그리스 반도의 희랍, 이태리 반도의 로마와 같은 지중해 반도문화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역사는 다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럽 대륙문명으로 정착하는가 했으나, 이 대륙문화도 다시 대서양권의 영국 같은 도서문명의 꽃을 피워 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해를 평정하고 그 땅에 해질 날이 없다고 외치며 기세가 등등하던 대영제국도 다시 그 화려했던 문화의 바통을 미주대륙에 넘겨주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주대륙에 착륙한 인류문명사는 드디어 기독교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갑주를 입고 종교자유와 인권평등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 제1, 제2, 제3차 세계대전을 승리함으로써 무신론적 악주권의 대명사였던 공산주의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류문명사의 발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위대해서 이루어낸 결과도 아닙니다. 섭리적 프로그램에 맞추어 하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2이스라엘로 택해 세웠고 중심종교인 기독교를 통해 미국 국민을 기르고 훈련시켜 이 결실단계의 섭리를 이루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구성을 한 바퀴 다 돌아온 인류문명사의 발전은 마침내 태평양권에 도착했습

니다. 인류역사는 이제 환태평양권을 중심삼고 완성 완결을 봐야 할 섭리적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적 프로그램은 이제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악주권 하에서 승패를 거둬하던 선천시대의 탕감노정은 비상하는 환태평양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희년을 선포하신 특별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태평양시대 우리의 사명

여러분, 환태평양시대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큼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셨더라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전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지, 지중해 위쪽 한 귀퉁이에 자리한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문화는 벌써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를 거점으로 사해를 장악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교화 치리하고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새로운 신문명권으로 구해 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의 참형으로 끝난 예수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신문명권의 구축은 참사랑의 삶을 실천궁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가정인 참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며, 이는 하늘로부터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문명권의 참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참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사랑-참가정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의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심신을 다 바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조건인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란 모든 창조, 평화 이상적 모델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사는 새로운 이상가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누구나 참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위하여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참조부모·참부모·참손자손녀를 중심삼고 3대간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와 분봉왕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전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업적

평화를 사랑하는 환태평양권의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수난의 노정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코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엇바뀌는 형극의 길에서도 하늘의 인침을 받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본인이었기에 인류구원이라는 천명을 붙들고 뒤넘어치는 불사조의 삶으로 일 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세계의 종교계, 학계, 정계 및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본인은 다음 여덟 가지 면에서 챔피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레버런 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피조만물세계와는 절대적인 주종관계로 존귀와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본인은 섭리적 사명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으며, 첫 아담을 사탄에게 잃어버린 이후 하나님은 슬픔과 탄식과 한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한을 해원해 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석방해 드리고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드디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봉헌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보좌를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둘째, 레버런 문은 사탄(Satan)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악행을 주도하는 사탄 악마의 정체에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본인은 섭리를 출발하던 초창기에 14년여 동안의 피나는 영적인 기도생활을 통해 천상세계의 온갖 비밀을 파헤치던 중에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혈통을 더럽혀 온 것이 사탄의 전략전술이었기에 본인은 하늘 편으로 본연의 혈통을 찾아 세우고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하늘의 전법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차-교체 합동축복결혼운동인 것입니다.

셋째, 레버런 문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타락한 인간은 왜 마음과 몸이 싸우며 갈등하고 있는가,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지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은 레버런 문이 밝혀 놓은 창조원리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중에서부터 지상생활을 거쳐 영원한 사후세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직관하는 시각

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배우자를 짝 맞추어 온 것입니다.

넷째, 레버런 문은 영계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사후의 세계인 영계는 모든 인간이 지상생활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세계로서 실재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한 뒤 영인체를 완성하고 육신을 벗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닌 승화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영생의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을 환송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성현 열사들이 지금 영계에 실재하고 있으며,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되어 하나님의 지상 섭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생활의 순간순간은 그대로 천상에 기록이 되어 훗날 영계에 가는 날 지상생활의 심판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더 큰 것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레버런 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준비되었던 유대교단과 당시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반대를 받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인류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2아담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이 상가정의 모델을 성취하여 모든 인류를 접붙여 주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를 거쳐 서구문명의 바탕이 되어 대서양과 태평양문명권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을 위한 신부적 기반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몰리신 예수님의 서러운 심정세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과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한계, 그리고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 등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섯째, 레버런 문은 성서 및 각 종교 경전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성서를 중심한 각 종단의 주요 경서는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 암시되어 있는 비밀 계시서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내용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의해서만 밝히 밝혀집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의 핵심 내용을 밝히 알려 준 분이 예수님이셨으며,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통해 신·구약성서 전체를 꿰고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에 관한 하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타락, 그리고 복귀의 길이 감춰진 비밀 계시서입니다. 레버런 문이 밝힌 원리

는 각종 경서에서 의문시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곱째, 레버런 문은 인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역사는 막연하게 반복되는 단순한 순환사관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본연의 창조이상을 회복해 가는 탕감복귀섭리역사이며 구원섭리역사입니다.

역사의 시원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본인은 이러한 섭리적 관점에서 1985년 소비에트연방의 최전성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공산주의의 종언을 예언하는 등 유물사관의 종말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가와 종교가 각각의 답을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One Family under God’, 즉 ‘한 분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 시대가 급속히 도래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운의 도래가 역사의 축을 장차 아벨유엔을 중심으로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한 초종교 초국가의 세계로 급속히 전진할 것입니다.

여덟째, 레버런 문은 참가정 가치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이 이루지 못한 참가정의 이상을 되찾아 지

상·천상천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도해 온 축복운동은 단순한 결혼의식이 아니라 원죄를 청산하고 본연의 참된 혈통으로 하늘 앞에 점붙이는 거룩한 행사인 것입니다.

참된 가정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근원입니다. 본연의 참된 이상가정을 통해 참된 나라, 참된 세계, 참된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부모를 중심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기초가 천일국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2005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 창설 이후 레버런 문은 3대 권 축복이상의 완성을 통해 말씀과 축복으로 전인류를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을 만들고자 본인과 한학자 총재, 나아가 직계 자녀들과 손자손녀 3대권이 나서는 세계순회를 완료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기독교 대표 120명, 종교권 대표 1,200명, 나아가 12,000명의 평화대사들이 국가대표로서 세계 190여 개국을 순회하며 참부모님의 말씀과 축복행사를 함으로써 참된 가정의 가치를 하나님 중심의 신문명세계를 이뤄 가는 데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게 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런 문은 여덟 가지 면에서 챔피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으며, 이는 하늘의 도움으로 전인류가 협조해야 할 승리의 표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승리적 전통 상속

이처럼 참부모와 전인류가 일치가 되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승리의 터전 위에 본인은 지난 2003년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추대를 받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천상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2004년에는 본인이 미국과 한국의 국회로부터 평화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6월에는 마침내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인류는 실로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나, 아니면 20세기까지 반복되어 왔던 암울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류는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식민지 쟁탈전과 제1차·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광복의 섭리적 차원에서 유엔군이 동원되어 세계 16개국이 참전했던 한반도에서의 성전, 또 동서 냉전 등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전쟁과 반목의 시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본인은 생애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평화이상세계왕국의 구현을 위해 바쳐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된 국제연합(UN)이 영

원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평화의 기구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창설을 본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했던 훌륭한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설 60주년을 넘긴 오늘의 위상은 그 본래의 창설목적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200개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국의 권익만을 대변하고 주장하는 유엔 대표부들의 역할은 이제 세계분쟁의 해결과 세계평화 구현에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5년 9월 12일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사를 꽃피울 천주평화연합(U PF)의 창설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후천개벽시대의 아벨유엔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격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본인의 가르침인 ‘천부주의’, 즉 참사랑-참가정주의를 전수 받아 뛰고 있는 수백만의 평화대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천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교차-교체축복결혼

여러분, 천주평화연합은 초종교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타락 전 아담의 본연의 혈통으로 복귀하

는 인류 혈통전환의 대혁명을 수행하는 전위대가 될 것입니다. 후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따라 만일 미국과 러시아가 초국가적 차원에서 교차-교체축복결혼을 결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나라는 영원한 절대주인인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수억의 친손자, 외손녀가 살고 있는 나라를 향해 어찌 적대감을 품을 수 있으며 총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받은 여러분! 65억 인류를 하나님의 참동족 혈통으로 바꾸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본연의 이상조국과 본향 땅을 찾아 태평성대의 이상천국을 창건하는 성업이 지구성 방방곡곡에서 벌써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185개국에서는 1만 2천 곳씩의 혼동-축복대회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꽃 튀기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참으로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뜻 깊고 성스러운 회년과 함께하시는 천운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구성의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권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해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성을 회생시키고, 인류의 미래

를 약속해 줄 새로운 본연의 원자재의 보고를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천주적 여성시대를 대변해 주는 해양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다를 중심삼고 초국가적이고 초대양적이면서도 본성의 여성문화권인 해양권 문화를 창출하는 데, 환태평양문명권이 주인 된 신문명 개벽시대를 산출하는 데 참여머님을 중심으로 모든 딸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승리적 산고를 완성 완결하기 위한 기관차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국광복의 주역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은 본인 이전해 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각인하십시오. 천상의 수천억에 이르는 여러분의 축복받은 선한 조상 가정들도 이 시간 지상재림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상에서 후손인 여러분을 통해 완성을 보아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신 참부모님과 일심일체가 되어 타락 전 본연의 모습으로 그분들의 명령을 절대기준에서 받들고 동참하고 모시는 삶을 통해 지상·천상천국 창건에 공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육계가 이처럼 함께 살아 호흡하며 동행동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인이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집 1천2백여 권 중에서 요약 발췌한 ‘평화메시지’ 책자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탐독하고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영·육계가 하나되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평화이상세계를 이루어 영원한 해방·석방을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후천개벽시대의 섭리를 주도할 아벨유엔의 평화군과 평화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역사적인 가정을 찾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복지와 세계평화를 위해 숭고한 헌신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의 삶을 역사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군과 평화경찰은 본인이 창설하여 지금 세계적 규모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벨유엔의 깃발을 들고 평화군과 평화경찰의 선봉에 설 가정을 여러분 같은 영웅들이 아니면 그 누가 찾아 세우겠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 오신 지도자 여러분, 섭리적 결실기요, 하나님의 조국광복을 이 땅 대한민국에서 먼저 완성 완결 지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천시대와 후천개벽시대가 교차하면서 야기되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배타주의의 벽에 갇혀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다 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싫든 좋든 여러분은 이제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본인이 하늘과 땅 앞에 선포하고 출범시킨 아벨유엔의 빛나는 깃발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인적인 기존 유엔의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신심정권을 축으로 하여 펼치고 있는 아벨유엔의 신문명권 혁명을 완성해야만 할 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칠팔희년의 천운 앞에 모든 벽과 담들이 녹아내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세계에서 만남을 이기고 승리하신 천주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그 승리적 전통을 상속받아 신심정권 시대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조국광복은 이제 우리의 손으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민주주의는 참가정-참부모주의 시대, 즉 신문명 심정권 시대를 찾아가는 과도기적 형제주의임을 잊지 마시고, 과감히 민주주의의 고개를 뛰어넘어 혁명적인 비약을 하십시오!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보면 천주평화연합은 아벨적 위치에 서 있으며, 가정당은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 출사표를 낸 후보자들 모두는 참부모님께

서 천주적 차원의 승리를 쟁취하신 그 전통을 상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벨유엔의 무대에 서 대한민국이 조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있게 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각종 장관 선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필코 마지막 한때를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이제 모든 국가들의 기존 정당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분봉왕들을 중심으로 이 지구성에 진정한 조국광복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늘 앞에 선포하고 시작한 한·일 해저터널과 베링해협 터널 프로젝트도 참부모님과 조국광복의 뜻을 완성시킨 주인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벨적인 천일국과 아벨유엔, 그리고 가인적인 미국과 기존 유엔을 하나로 묶어내어 천주적 차원의 수평을 찾아 세우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축으로 하여 평화의 왕 되신 참부모님과 여러분의 분봉왕, 그리고 여러분이 일심일체가 되어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동산, 즉 조국창건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우주에 산재한 삼라만상도 그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인간이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감지할 수 없

을 뿐이지, 만물은 물론 태양까지도 나뉠대로의 기준과 형태 속에서 참부모, 참가정을 모시고 공명권을 이루어 위하는 삶, 즉 참사랑 참혈통권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야말로 죽음이 없는 곳이며, 교육이 필요 없고, 선후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전기학에서 말하는 부하가 걸리지 않는 수평의 자리에서 만물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만을 중심삼고 사는 순리의 세계, 즉 선의 왕국을 이루어 영영세세토록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증생완성 · 부활완성 · 영생완성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는 영육 모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육신을 잃어버렸지만 40일 부활기간을 승리하고 영적 부활을 완성하시어 인류에게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 놓고 가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헬기 사고는 실로 엄청난 섭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총공세 속에서도 참부모님은 영육 아울러 완전 실체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섭리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참가정 3대권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복귀 안착시킨 것입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날 7월 19일 헬기 사고 당일에는 증생완성을, 그로부터 20일째인 칠팔절 8월 7일에는 부활완성을,

그리고 오늘은 사고 40일째를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영생완성의 날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섭리의 최종적 이상권인 신천신지를 열어 영원한 해방-석방을 구가하게 될 영생의 새날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새 시대 새 나라를 약속하는 2013년 1월 13일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과 완전 축복을 보전하여 본래의 참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희년을 즐기며 살 수 있는 평화의 실체왕국, 즉 천일국의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 총진군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조국광복의 성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소서!

아~주! 감사합니다! *

부 록

영계보고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차 례

◆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313
--------------------	-----

◆ 4대 성인 및 소크라테스, 어거스틴의 통일원리세미나 메시지 ...	317
--	-----

- 1) 예수님의 메시지 / 2) 석가세존의 메시지 / 3) 공자님의 메시지 /
- 4) 무하마드님의 메시지 / 5) 소크라테스님의 메시지 / 6) 어거스틴
님의 메시지

◆ 영계 5대 종단 대표 결의문	343
-------------------------	-----

◆ 영계 5대 종단 대표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1. 기독교 대표 12인	345
---------------------	-----

- 1) 시몬 베드로 / 2) 사도 바울 / 3) 존 칼빈 / 4) 마르틴 루터 / 5) 어
거스틴 / 6) 터틀리안 / 7) 콘스탄틴 황제 / 8) 임마누엘 스웨덴보리 /
- 9) 칼 바르트 / 10) 마틴 루터 킹 / 11) 김대건 / 12) 이용도

2. 불교 대표 12인	376
--------------------	-----

- 1) 목건련(目健連) / 2) 가섭(迦葉) / 3) 수보리(須菩提) / 4) 라후라(羅
睺羅) / 5) 마명(馬鳴) / 6) 축법호(竺法護) / 7) 달마(達磨) / 8) 강승희
(康僧會) / 9) 미륵(彌勒) / 10) 현장(玄奘) / 11) 지의(智顗) / 12) 이차
돈 스님이 참부모님께 올리는 글

3. 유교 대표 12인	399
--------------------	-----

- 1) 염백우(冉伯牛, 본명:冉耕) / 2) 자로(子路, 본명:仲由) / 3) 맹자(孟
子) / 4) 순자(荀子) / 5) 사마천(司馬遷) / 6) 왕필(王弼) / 7) 도연명
(陶淵明) / 8) 주자(朱子) / 9) 마테오 리치(중국명:利馬竇) / 10) 이율
곡(李栗谷) / 11) 안중근(安重根) / 12) 이시이 슈안(石井周庵)

4. 이슬람 대표 12인	421
1) 아부 바크르 / 2) 오마르 이븐 카뎀 / 3)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4) 아비 빈 카압 / 5) 알 마와르디 / 6) 아미르 알 샤아비 / 7) 루흐빈	
이바다 알바스리 / 8) 압둘 알 라작 빈 함맘 / 9) 라비아 알 아다위야	
/ 10) 압둘라 알라위 / 11) 마히 알 딘 누와위 / 12) 무하마드님이 참	
부모님께 올리는 글	
5. 힌두교 대표 12인	439
1. 4대 성인의 격려 메시지 / 439	
1) 무하마드님이 힌두교 지도자들에게 / 2) 공자님이 힌두교 지도	
자들에게 / 3) 예수님이 힌두교 지도자들에게 / 4) 석가세존이 힌두교	
지도자들에게	
2. 힌두교 대표 12인 / 444	
1) 야즈나 바르가 / 2) 스페타케투 / 3) 마이트리 / 4) 카우시타키	
/ 5) 아루니 / 6) 만두크야 / 7) 피파라다 / 8) 마누 / 9) 브야사 / 10)	
카피라 / 11) 나라다 / 12) 카나다	
◆ 영계 공산권 대표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461
1) 마르크스 / 2) 엥겔스 / 3) 레닌 / 4) 스탈린 / 5) 마우쩌똥(毛澤東) /	
6) 덩샤오핑(鄧小平) / 7) 몰로토프 / 8) 이토 리쓰(伊藤律) / 9) 루게 /	
10) 백남운(白南雲) / 11) 크루프스카야 / 12) 박헌영(朴憲永)	
◆ 역대 미국 대통령 영계보고서	487
1) 조지 워싱턴 / 2) 토머스 제퍼슨 / 3) 에이브러햄 링컨 / 4) 프랭클	
린 루스벨트 / 5) 존 F. 케네디	
◆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결의문 채택과 선언식	497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나 만군의 여호와와 참부모를 사랑하노라, 지극히 사랑하노라, 지극히 아끼노라!

무엇으로 자식의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으리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면 그 술어를 빌리고 싶지만 생각나지 않는구나!

참부모는 내 심중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 사랑은 표현이 안 되어 참부모는 이제 모든 것에 승리하고 모든 것 궤도에 올렸으니 이제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 자리가 곧 왕

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기타 종단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부모를 모시고 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선포했으므로 참부모는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에 등극함이 마땅하니 그 뜻을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와는 바라노라, 원하노라!

물론 못 세인들이 이해 못 할지라도 내적 자리는 채워야 할 것이므로 만군의 여호와와는 사랑하는 참부모를 왕의 자리에 추대하오!

그 술한 옥고의 자리, 수난의 자리, 만군의 여호와를 대신하여 다 치러 주었으니, 만군의 여호와와의 심정은 감사와 감격과 흥분과 고마움을 이제 참부모께 모든 것 다 물려주고 싶소. 다 상속하고 싶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하나님은 많은 날들을 마음으로 하소연하였지만 수없는 날 속에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었소!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소. 그러기에 이 소중한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이오.

참부모, 내 사랑하는 참부모!

나의 품속에 품고 안고 놓고 싶지 않은 참부모!

두 발로 바닥을 걷는 것이 아깝고 안쓰럽소!
밤이 새도록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소!
만군의 여호와와는 믿어요, 참부모를 믿어요.
그간의 가슴 아픈 사연 사연, 뼈저리게 겪어 온 고난과 서러
움들….

여호와와는 아노라, 기억하노라, 다 보았노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인 것을.
참부모가 참아내고 승리의 기준을 세웠으니,
어찌 만군의 여호와와 참부모를 잊으리오.
고맙소. 감사하오. 정말 수고했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만세!
인류의 구세주 만세! 만왕의 왕, 참부모 만세!

만군의 여호와와 내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간절히 전하노라.

2001. 12. 28

4대 성인 및 소크라테스, 어거스틴의 통일원리세미나 메시지

1) 예수님의 메시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 지면을 통해 지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이나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상에 보내는 예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착잡하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전할 수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지상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접할 때 믿기보다는 의심을 더 많이 할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왔던 예수가 인류 구원의 책임자로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도래했기에 이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다.

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왔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갈등을 모두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다. 사실, 성경에 다 밝힐 수 없는 숨겨진 섭리적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성직자들에게 숨겨진 섭리적 내용의 일단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지상에 살 때 필요하였고 육신을 잃으면 그 영혼은 영계에서 영존하도록 창조하셨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여, 성경에 표현된 구절구절의 양면적 예언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나는 신약시대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왔던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실수인가? 여러분은 예수의 생애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가? 예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았는가? 그 시대 나는 틀림없는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왔지만, 육신을 가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먹고 입고 잠자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은 일반인과는 달리 메시아의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었다.

지상인들이여, 기독교인들이여, 이 사실의 여부를 놓고 금

식하며 기도해 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알려 줄 것이다. 그러나 금식하고 철야할 때 순수한 기도와 정성만을 들여야 한다. 소위 이단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 이 시대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재림 메시아로 현현하신 분이 며, 성약시대를 마무리하기 위한 참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현현하신 분이다.

신약시대에 메시아 사명을 갖고 온 나를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다. 그래서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다. 신약시대의 메시아는 영적 구원밖에 이루지 못했기에 육적 구원은 숙제로 남아진 채 역사가 흘러왔다. 그러기에 한 많은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시 메시아를 지상에 보내기 위하여 기다려 오셨다. 문선명 선생님의 혈통을 분별하고 성별하여 메시아로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초긴장의 세월을 보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던가? 마구간 아니었는가? 당시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기독교인들이여,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던가?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여러분은 괴로워해 본 적이 없었는가? 천비(天祕)를 다 밝히지 못했던 예수의 심정을 이해하겠는가? 성경

에 기록할 수 없었던 오묘한 섭리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는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왜 불러 왔는가? 복귀섭리역사상에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천비가 베일에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찾아와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대 지상에 현현하신 문선명 선생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림 메시아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16세 때 나의 메시아 사명을 인수했다. 기독교인들이여, 아직도 구름을 쳐다보면서 구름 속에 나타날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문선명 선생님은 수만 번의 구름 속을 헤치며 세계를 순회하며 인류 평화 구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다. 오늘도 그분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인류 구원의 최전선에서 고투하고 계신다.

신약시대 예수를 핍박하던 로마인들처럼 이 시대 여러분도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여러분은 알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다리고 계신다. 성약시대에 강림하신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분의 업적과 인류 구원의 섭리적 경륜을 배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영접하면서 기도해 보라.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속에 예수가 함께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나의 생애와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

여 깊이 기도하면서 신약시대 메시아로 왔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다시 새겨 보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33세가 되도록 장가 들지 못했고, 나를 따라다니던 12제자들과 함께 배고팠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나는 한이 많았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 예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인류가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은 없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메시아로 왔던 나는 인자(人子)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메시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을 다했지만 그 꿈과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재림주님이 오실 필요가 있겠는가!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이여! 당시의 메시아는 예수였었다. 틀림없는 메시아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 분은 문선명 선생님이다. 그분이 바로 재림주님이다. 2천년 전 이단의 괴수로 몰렸던 나에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던 세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지금 문선명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보고 문선명 선생께서 이룩한 업적을 상기해 보라.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다.

죽은 내가 다시 살아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없다. 인간의

육신은 영인체와 분리되면 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진리요 천도이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성경 구절을 다시 보라. 하나님은 과학적이며 수리적인 하나님이며 원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라진 시체의 모든 기관이 분해되었다가 다시 조합되어 부활한다는 논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전제한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모순된 것이다.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계를 보라. 인간의 성장과정과 구조를 보라.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이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를 기다리고 참아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자로 알고 있는 불교의 교조 석가님과 내가 마주 앉아 서로 담소하고 있다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여러 기독교인들이여, 불교인들이여,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이여! 예수, 석가, 공자, 무하마드 등 4대 성인과 소크라테스, 성 어거스틴 등 성현들, 그리고 그 외 종교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세미나의 주제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주제이며, 지상에 강림하신 문선명 선생께서 밝혀 놓으신 《원리강론》을 놓고 분석하며 토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 주신 숙제이기도 하며, 지상의 문선명 선생님의 활동을 살살이 관여하고 관찰하시며, 우리들에게 인류 해방을 위해서는 이곳 종단 대표들이 먼저 하

나되어 지상을 협조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우리(4대 성인)들에는 종파의 장벽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되어 지상에 현현하신 성약시대의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발표하며 담소하고 있다. 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인들의 대립과 갈등은 이곳에서는 모두 해소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인간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궁극적 진리를 밝히는 데 그만한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도 모든 종교의 장벽이 무너져야 인류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각각의 종교 교리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밝히고 상호간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면서 온유 겸손의 미덕을 보인다면 비종교인들도 그 모습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모두가 하나되어 이곳 무형세계의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부탁한다.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 내가 지상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과 혜택이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닌 성약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며, 성약시대의 주인공은 문선명 선생님이시며, 그분이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의 자리에 세울 것인가? 신약시대의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 것인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문의할 것인가? 여러분은 가장 현명한 신앙인의 모습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곳 영계에서라도 신약시대의 메시아 예수의 책임을 깨우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상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2001. 4. 4~5—

2) 석가세존의 메시지

지상에서 신앙하는 신앙인들, 특히 불교인들에게 석가의 마지막 글을 전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4대 성인들은 각 종단의 대표자로서 인류 평화 실현과 구원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곳 영계에서 우리 4대 성인과 성현들은 항상 자리를 함께하여 세미나를 하지만 의견의 대립이나 충돌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기까지 각자마다의 원리 교육과 다른 교육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수련도 있었다. 각 종단을 책임진 자로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졌겠는가? 기도하고 정성들여 보고 여러 차례 분석하고 검토한 후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들은 한 가족처럼 항상 서로 의논하기 때문에 종파적 편견에 따른 갈등은 야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될 때

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불꽃과 찬란한 빛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시고 유유히 떠나신다.

불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메시아 사명을 지니고 오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셨다.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성약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은 한 시대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중심삼고 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이처럼 나도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류를 선행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진력한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그 시대는 결혼하지 않고 한때를 기다리며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역사의 구약시대가 불교인들에게 생소하겠지만 그 시대엔 인류 구원의 혜택이 그 단계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시대에 나의 생애가 한때였으며 나의 가르침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불자들이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석가였던 나도 예수님처럼 인류를 선도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섭리가 흘러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시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자들의 수행의 결실을 새로운 시대의 섭리 앞에 접목시키자는 것이다. 통일원리를 연구해 보라. 불자들에게 같

은 맥이 흐르고 있는 새로운 진리가 적지 않게 발견될 것이다. 너무 고루한 생각에만 갇히 말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 우리 불자들의 진리를 새 시대의 진리에 접목시켜 보라. 그렇게 하면 멋진 신앙의 길이 여러 불자들에게 전개될 것을 확신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문선명 선생께서 여러분의 석가요, 미륵불이다. 불공을 드려 보라. 성약시대 새로운 미륵불과 그의 진리를 배척하는 일에 앞서지 말고 진정한 불교인의 인격을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한다.

겸손하고 침착하며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같고 닮아 온 여러 불자들의 자비의 미덕을 보여 주고 행동하라.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살아갈 인간의 방향성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환경에 따라 종류는 그냥 있다 할지라도 크기와 색깔은 얼마든지 변화하지 않는가? 신앙을 하는 인간의 본심의 소리를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인간 본성의 소리에 따라 인간 삶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루하게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각과 사고를 넓혀 보라. 예수님과 석가가 한 형제처럼 지낸다면 여러분 불자는 석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되어 일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석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 것 같은가? 항상 겸손하고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석가님!” 하고 부르신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매우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시며 인자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다.

불자들이여, 기독교인들이여, 천상이 하나되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졌으니 지상에서도 화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 시대 새 진리로 하나되자! 인류 평화운동에 혼신을 다 바치시는 문선명 선생님은 성약시대의 메시아요, 미륵불이시다. 이것은 4대 성인들의 세미나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불교, 기독교가 서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해방하자!

-2001. 4. 6-

3) 공자님의 메시지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며 육신이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규범을 정해 놓고 그 규범 속에 살아간다. 인간의 육신은 어떤 한정된 울타리 속에서 보고, 듣고,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의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지상인은 4대 성인과 성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 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성인들과 성현들은 육신생활을 할 때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먼저 안락한 가정생활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보다 인류 구제를 위하여 고민했다. 우리들은 인생 자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더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진리를 선포해 오던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다.

육신을 벗었다 할지라도 지상에 남겨 둔 교우와 신도를 내 몸같이 생각하며, 좀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애쓴 가운데 이러한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예수님도 석가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늘나라 이곳은 정말 화목하기 그지없다. 예수님께서 불교도들 앞에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보고 불공도 드리자.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자.”고 하셨으며, 석가님은 불교도를 떠나서 기독교인 모임에서 큰절을 올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하시면서 함께 화해하기를 제의하자, 일부에서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께 화목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라고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숙연하게 변화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불빛으로 빙글빙글 두루 도시니 온 천지가 환

한 불빛으로 변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황홀해하면서 자세를 가누지 못했다.

우리들의 세미나 기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많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우리 4대 성인과 성현들이 자주 모임을 가짐으로써 종단의 파벌이 없어질 것이며, 서로의 진리의 문도 개방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교도들이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믿을 것인가? 전세계에는 인종도 많고 종파도 많고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도 적지 않고 그 풍습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공통점은 인간의 모습이다. 흑인·황인·백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인간의 모습이다. 백인·흑인·황인 등을 구분할 것 없이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들에게 동일한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인간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치료의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류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님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으로 만사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한가? 인류의 시발이 잘못되어 여러 갈래의 종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상에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셨다.

그 스승은 모든 종교의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니니 모두가 하나되자는 진리를 내놓으셨는데, 종단마다 자기 것만 붙들고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 조금씩 양보하여 타종교를 받아들일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지상에서 아무리 복잡하게 떠들어도 이곳 천상세계의 종단 대표들은 하나로 뭉쳤다. 무엇으로 뭉쳤는가? 하나의 진리를 중시하고 하나되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아가자고 굳게 결의했다. 이렇게 되면 지상의 유교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의 최고의 스승 석가님께서 하나님을 인간의 부모님으로 모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미륵불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사심에서 떠나 이곳에서 지낼 여러분의 모습을 점점하면서 지상에서 생활하라. 인류는 하나요, 한 겨레요, 한 혈족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그 법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문선명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셨다. 그분이 팔십 고령의 몸으로 인류 해방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라.

지상인들이여, 여러분들이 머무를 곳, 영원의 처소는 천상이다. 지상은 순간적 삶의 훈련소에 불과하다. 결실기에 곳간에 알곡만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성숙된 삶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교도들이여, 최근의 예수님의 메시지, 석가세존의 메시지, 나

의 메시지, 그 외 성현들의 메시지를 참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태도를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

—2001. 4. 7—

4) 무하마드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 하나 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실체대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달리 인간의 시조가 잘못됨으로써 인류의 출발부터 하나님을 떠난 빛나간 역사로 흘러가고 말았다.

여기에서 인종이 갈라지고 종파도 생겨나고 문화도 갈라지고 지역마다 각양각색의 생활양상으로 갈라지고 변화하게 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창조주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셨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공은 한 분인데 종단과 인종들은 수없이 많으니 지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서로 매일 싸움이나 하고, 내 것 네 것을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랴? 지상인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방향과 흐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종교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님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나 진리는 근본을 따져 보면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어떤 종교집단에서 악을 추앙하라는 종단이 있던가? 방법은 다르지만 근본은 모두가 선을 지향하는 진리요, 교리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선과 절대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이요, 각 종단의 교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근본 교리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종교마다 근본을 모두 한 곳에 묶어서 하나의 종교로 통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요, 하나님을 편히 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많은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상에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아 하나의 종교로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원리를 밝혀 내신 것이다.

이슬람교도들이여, 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신께서 하나로 통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무하마드 시대의 하나님과 이 시대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신이며 우리의 부모님이다. 지금은 온 인류가 하나의 형제애를 누리며 평화세계를 구현해야 할 시대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원하신다.

종교 통일이 없이 인류 평화 실현은 요원하다. 이슬람교도들이여, 무하마드는 부탁하노라. 독특한 우리의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타종교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 벌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라. 그리하여 대화의 문을 열고 교리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로 묶어 버려라. 예수님도 석가님을 받아들이고, 석가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4대 성인, 성현들 모두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했다. 이러한 세미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체험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서로 다짐하고 결의했다.

지상에 오신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 인류 앞에 참부모로 현현하여 흠어지고 갈라진 인류를 통일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우리 교도들도 겸허한 자세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섬겨 오던 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후 하루속히 다른 종단의 교도들과 하나되어 일할 때 하나님도, 나도 그 대들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차근히 통일원리를 정독하고 분석해 보라. 나도 원리세미나에서 통일원리는 인생의 참다운 지침서임을 깨닫고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 지름길을 택하여 짧은 인생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5) 소크라테스님의 메시지

내가 원로들로부터 배신을 받게 되고 내가 주장하던 모든 이론이 그들 시민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생명을 좀 더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겼더라면 하는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았다. 그것은 인간의 한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갓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거친 창조물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온갖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지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부모와 자녀는 항상 그리움 속에서 서로의 만남과 이별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 부모와 자녀는 한 집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대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이다. 인간의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요 정의 덩어리 자체인데, 인간 창조 이후 잘못된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지성인들이여! 나는 아테네 배심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배신당한 사나이였다. 당시의 억울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

지만, 이곳 하나님 곁에 와서 보니 더욱 슬프고 억울하고 분한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슬프고 억울한 사정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부모를 몰라보았고, 인간을 지극히 끔찍이 사랑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유구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인류가 몰랐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

지성인들이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며 살아가던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학문의 발견보다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모든 지성사회의 중심의 자리가 대단히 소중한 것임을 내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자신의 부모를 소중하게 모셔야 하는 것은 어느 것에도 비길 수가 없음을 명심하라. 이곳 하나님 곁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부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혈통의 자리가 최고 순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성인들이여! 육신은 지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입적할 내세의 준비를 위해서도 내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너무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학문에만 집착되

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내세는 틀림없이 존재하며 우리 영혼은 이곳에서 영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이곳에 머무를 곳이 없다. 지상에서 길거리의 걸인을 보았는가? 걸인은 자기의 처소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가 자기 처소인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머무를 처소를 지상에서 준비해야 한다.

나의 지상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외적 학문과 지식도 소중하였지만 그보다 인간의 내적 양식과 진리, 소위 철학을 항상 추구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른다. 지상에서 순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진리를 추구하다가 지성인의 자리까지 올랐다. 어찌 영원한 처소까지 오는 데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 수고와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이곳에서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지성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기까지는 여러 번의 쓴 고비를 통과했다. 그것이 뭐냐? 이곳도 지상과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종단들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성인들의 모임 좌석에서 인생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원리강의를 듣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진리를 접하였는데, 그것은 인간의 근본 삶을 깨우치는 진리였다. 이 진리에 의해서 참으로 놀라울 만큼 변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여러 차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진리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길 바랐다. 이 엄청난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게 되면서 여러 차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다. 지성인으로서 위신과 체면이 송두리째 달아나 버리는 내가 몹시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 진리가 사실인데 어찌하겠는가! 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지성도 자존심도 모두 버렸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 모든 것을 투사하기로 작정하고 지상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지성인들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만물이 똑딱 생겨났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능력을 모두 팔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성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의 힘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 있겠는가? 과학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다. 그뿐인가? 지금 리포트 하는 여인은 지상인이요, 나는 영인이다. 이 사실을 지상인은 이해하겠는가?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때가 되었으니 하늘의 천비를 지상인에게 알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곳 영계는 하나님의 사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된다. 방향도 한결같이 동일하다. 그러나 지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대단히 복잡할 것이다. 그것은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인들이여! 하나님은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애쓰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나님은 무형이며 체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자녀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념은 수천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지상에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하여 통일원리를 우리 인류에게 밝혀 주셨다. 그 원리는 인간의 지성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고 문선명 선생께서 하나님과 논의하며 사탄과 혈투전을 벌이며 찾아내신 인간의 구세서이다. 그것을 정독해 보라.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을 정독해 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느 정도 일깨웠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까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성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생각한 위대한 인물, 위인이나 존경의 대상은 누구인가? 자문자답해 보라. 그들의 대부분은 지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남긴 위인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세의 삶까지 책임져 주려는 위대한 스승은 아직 찾지 못

했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들의 내세의 영존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까지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대신 사명을 가지고 인류 앞에 영원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을 연구해 보라. 그리고 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는가를 비교하고 찾아보라. 만약 지상에 오신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보다 더 큰 스승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자리요, 심각한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요하는 시간이다. 인생은 길지 않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참스승을 만나서 내세를 연구하고 준비함이 현명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여러분의 학문도 지성도 하나님에겐 필요하지 않다. 겸허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 그분의 위대한 진리를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 영원한 이곳에 올 때 무지한 길인의 신세는 면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지성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님으로 모시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만이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2001. 4. 10—

6) 어거스틴님의 메시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알고 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을 부모의 자리에서 모시지 못하고 다만 최고의 신으로 모셨으며, 부자의 관계는 염두에도 두지 못했다. 나의 신앙과 사상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가치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상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기독교인들과 여러 종교인들이여, 여러 차례 4대 성인들이나 성현들의 글을 읽고 많은 각성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 성현들과 4대 성인들의 모임은 주기적으로 열린다. 이곳 영계에서 종단의 모임을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 차원으로 분열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상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지상인들은 예수님은 기독교인만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종단의 대표자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각 종단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교환한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각 종단을 두루 다니면서 신도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예배를 본 후, 상호간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4대 성인들과 성현들은 세미나를 갖는다. 그때 다양한 주제들이 상정되지만 우리는 서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제들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참으로 흥미로웠던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석가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서 열심히 들으신 후 그 말씀을 불교인들이

모인 다른 장소에서 그대로 전달했다. 이때 불교인들은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조인데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전달하느냐?”고 질문을 했다.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었다. “나도 석가 부처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봤다.”고 하셨다. 이때 여기에 모인 여러 영인들은 함께 웃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바라시는 순진무구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태도에 여러 불교인들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종교인들이여!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많은 종파들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각 종교마다 갖고 있는 진리의 핵심을 요약해 보라. 궁극적인 종착지는 한 방향뿐이다. 각 종파의 장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공통 목적 아래 통일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겠지만 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우리 4대 성인들과 성현들은 세미나에서 마지막 결론을 얻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자.”고 결의했다. 먼저 천상의 종단 대표자들이 하나될 때 비로소 지상도 하나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편

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이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종교인들이여! 여러 성현들과 4대 성인들의 메시지를 명심 하길 바란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황금시대는 또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지상인에게 천상의 비밀을 계속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내려진 이 황금기를 여러분은 잘 맞이하여 신앙의 본질과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바르게 서라.

어거스틴의 마지막 부탁이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과 지상의 종교인들이여, 지상에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스승이 계신다. 그분은 문선명 선생님이다. 그러니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라. 4대 성인들과 성현들 모두는 그분의 메시아 사상을 굳게 믿고 그 스승의 길을 같이 갈 것을 굳게 다짐하였으며, 이곳에서 오직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모든 종파를 초월하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인류 평화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여, 다투지 말라. 서로 하나로 화합하라. 하나된 곳에 하나님은 함께할 것이다.

영계 5대 종단 대표 결의문

1.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심을 결의하고 선포합니다.
2. 문선명 선생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님, 참 부모이심을 결의하고 선포합니다.
3. 통일원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요, 성약시대의 복음서임을 결의하고 선포합니다.
4. 천주평화통일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 초국가 · 초인종의 ‘위하여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합니다.
5. 5대 종단 대표는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화합 · 통일 · 정진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합니다.

2001. 12. 25. 정오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5대 종단 대표 일동
대표자 예수

영계 5대 종단 대표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1. 기독교 대표 12인

1)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 재림주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란 주제 아래 진행된 세미나 교육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하고자 한다. 지상에서나 이곳에 서나 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생소하고 어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었으며 그 분위기도 무척 좋았다. 강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처럼 매우 친근하면서도 뜨겁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재림주님을 부모로 모신 가운데 재림주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시몬 베드로도 재림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여기서 배운 모든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청강하고 싶다.

시몬 베드로 —2001. 8. 28—

2) 사도 바울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사

— 인간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인식 —

사도 바울은 복된 자 중의 복된 자이다.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만났고 그의 사랑도 받았고, 재림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지시와 사명도 받았고, 만군의 여호와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새 진리를 접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으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신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다져져 있었다.

사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고방식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앙이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것이었다. 직접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부활의 주님에만 미쳐 있었다. 이제 다시 통일원리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통적 신관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부활의 주님이나 재림 메시아는 우리 인

간이 반드시 모셔야 할 분들이었다. 복귀섭리의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수많은 중심인물들이 바뀌어 가면서 복귀섭리역사는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매우 짧았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지만 어떤 섭리적 중심인물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그 사명을 완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의 전능성에만 의지한 채 인간의 책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 개인의 조그만 책임은 하나님의 크신 예정의 뜻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었으나 한 개인에게 그 책임은 100퍼센트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책임은 하나님 뜻 앞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개인에 있어서 100퍼센트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대단히 비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대 기독교의 절대예정설은 바울의 그릇된 생각이 낳은 커다란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원리를 밝히신 참부모님 앞에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 그리고 수수작용의 이론도 바울에겐 너무도 큰 충격을 준 부분이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였다. 이처럼 평범한 진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을

까? 이처럼 정확한 수수작용의 이론이 있음을 바울이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아무나 밝힐 수 없는 진리임을 알지만 바울이 기독교사에 남긴 오점을 어떻게 탕감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노력으로 기독교 역사에 끝까지 공헌한다면 그것이 탕감될 수 있을까?

참부모님! 바울의 편견이 재림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셨지요? 이제 이곳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통일원리를 열심히 공부하여 이곳의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 2001. 9. 11 —

3) 존 칼빈 1509~1564, 종교개혁가

— 전통 신학의 절대예정설의 문제점을 인정함 —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다. 아무리 큰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자식에게 표현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인류역사의 배후에 숨겨져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복귀섭리역사가 칼빈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두드렸다. 칼빈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신다고 알고 있었다. 복귀섭리의 과정에 노정된 어려움도, 기쁨

도,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특히 하나님은 외로움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

에텐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하나님의 절대예정이었지 인간의 실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는가 하는 의문을 수없이 가졌지만 그 해답은 찾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기에 수많은 인사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이상헌 선생은 참부모 사상과 칼빈의 사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토론하였다. 그 후 칼빈은 통일원리 전체를 청강하고 역사의 동시성시대를 들으면서 탄복과 경외를 금할 수가 없었다. 이상헌 선생은 나 칼빈을 이해시키면서 눈물로 강의하였다. 이상헌 선생은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 자신은 지옥의 밑창을 헤매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통일사상을 접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통일원리는 칼빈의 사상과 이론을 아주 깡그리 뺏아 버렸다.

이제 칼빈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절대예정설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나 칼빈은 미안하기 그지없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통일사상을 적극 권하고 싶다. 절

대자 하나님의 인류를 중심한 우주의 창조목적은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우리 인류의 부모로 모실 수가 없다. 정말 이상헌 선생께 무척 감사하고 있다. 칼빈의 사상에 국한되어 있는 모든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통일사상을 접하게 되면 칼빈의 사상이 지극히 부분적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통일원리, 통일사상을 지상의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길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일원리를 밝혀내신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 재림 메시아로 오심을 절대 믿고 순종해야 한다. 존 칼빈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현재 기독교의 절대예정설은 하나님의 근본적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것임을 깊이 명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 칼빈의 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 칼빈 — 2001. 9. 16 —

4) 마르틴 루터 1483~1546, 종교개혁가

— 통일원리가 밝혀졌다면 종교개혁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을 —

먼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훌륭한 사상을 밝혀내 주신 문선명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본래 루터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

을 해 왔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은 큰 불효를 저지른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부모님, 그리고 재림 메시아 등 모든 호칭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은혜를 갚으오리까? 하늘의 천비를 이처럼 논리 정연하게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의 구제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통일원리는 모든 사상과 종교적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원리가 루터 당시에 나타났다면 종교개혁이란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도 희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이 통일원리만 알게 되면 종교의 장벽, 인종의 장벽, 사상의 장벽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진리가 이제야 인류에게 주어졌는지... 수많은 분쟁과 마찰 등으로 병들어 간 인류를 회고해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어떠한 호칭으로 이 글을 올리면 가장 큰 존경과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그냥 감동과 감사뿐입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러한 원리와 사상이 모든 인류에게 땅 끝까지 널리 전파되어 인류의 참사(慘史)가 모두 종식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재림주님, 루터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주님은 모든 인류의 부모로 오셨지만 인류는 각자의 자질을 갖고 닦아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참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루터가 참자녀의 자리로 가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모습도 자식으로 받아 주실 수 있는지요? 선생님, 루터도 참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비를 밝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훌륭한 감사의 표현을 올리고 이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루터는 이 진리 앞에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2001. 9. 16—

5) 어거스틴 354~430, hippo의 주교, 카톨릭 신학의 정초자

— 통일원리가 온 천주까지 전파되길 —

이곳에서도 통일원리가 위대한 진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다. 통일원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방식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이나 영계나 동일한 현상일 것이다. 이처럼 통일원리를 듣기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왜 일부 교단과 교파

의 신앙인들은 그것을 들어 보지도 않은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지 그것이 무척 안타깝다.

어거스틴은 통일원리로 말미암아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지상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이곳으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과거의 그릇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 진리만을 따를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부하된 소명을 항상 가슴속에 각인하면서 모든 생활에 충실할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은 통일원리를 좋아한다. 어거스틴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원리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과 더욱 가까이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그들을 바로 설득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어느 날 골수와 기독교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나타나서 “어거스틴은 왜 통일원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의 의미는 왜 이단의 소리에 쉽게 빠져 들어가서 바보처럼 일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다. 정말 성질이 났지만 참고 견디면서 어거스틴은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통일원리의 강의를 자세히 들어 보라.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서 이단이

라고 하지 말라. 다 듣고 나면 이단이란 말보다 당신의 가슴이 저며 오면서 아픔밖에 남아지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정말 진지하게 달래 주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흔히 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어거스틴입니다. 이제 저를 믿으시고 안심하소서. 어거스틴은 이 진리 앞에 한 치의 의심도,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문안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진리가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온전히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어거스틴 — 2001. 9. 17 —

6) 터틀리안 160~225, 기독교 변증가, 라틴학파의 대표자

— 인류 평화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싶다. 통일원리의 생활화가 시급하다 —

감동적인 원리교육을 받고 저에게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장구한 인류역사의 흐름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간들이 허다하지만, 오늘날 지상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들이 무척 부러울 때가 적지 않았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을 이

토록 감동·감화시킬 수 있겠는가? 통일원리의 모든 내용이 한결 같이 감동적이며 충격적이지만 특히 수수작용의 이론이 그러하다. 수수작용의 이론은 너무도 평범한 원리이며 모든 존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이론에 따라 생활한다면 인간사회에 대립·마찰·투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론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고 체계적이어서 그냥 감탄할 뿐이다. 이러한 수수작용의 이론 하나만 무장할지라도 인류 구원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러한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통일원리를 교시하신 문선명 선생님께서 너무도 고령이라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통일원리에 대해 어느 누가 반기를 들겠는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몰지각한 사람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임을 자백하는 것일 것이다. 인간의 두뇌에서 이런 진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다시 터틀리안이 지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러한 진리로써 인류의 평화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그것이다. 수수작용의 논리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사랑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원리가 모두 인간 생활에 적용되지만 한다면 지옥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소감 발표 시간이 너무도 짧아서 하고 싶

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지상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은 천상천하의 참부모로 오셨다. 이 사실은 인류의 대경사(大慶事)이다. 이제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지상과 영계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은 통일원리가 온 천지에 한결같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기 위하여 터틀리안은 통일원리 전파에 전력할 것이다.

오늘날 지상인은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곳 영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음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이 아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종착지는 오직 한 곳이다. 인류가 영원한 처소, 여호와와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참부모님! 인류 복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의 저희들은 통일원리를 중시하고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이 하나되길 기도합니다.

터틀리안 —2001. 9. 19—

7) 콘스탄틴 황제 313년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황제

—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

이곳에서도 황제 칭호를 해 주시니 정말 황공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왕의 왕이시요, 임금의 임금이시요, 황제의 황제이시요, 참부모이심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 송구스럽습니다.

애당초 인류의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원리가 이미 그 당시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역사는 타락세제로 기울어 가고 몰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인류 역사를 경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였겠는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릇된 인류역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참부모가 필요하였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참부모의 참사랑이 없이 구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원리를 통해서 잘 배웁니다.

이제 새 진리가 인류에게 나타났으니 전인류는 참부모님의 현현과 그의 수교에 기쁨과 찬미의 축제를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제라도 황공하오나 전인류를 대표하여 작은 나라의 황제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인류의 메시아, 재림주님,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신 주님,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온 인류가 통일원리의 진리를 따라 살아 가길 축원하며, 이곳에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건설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업의 대열에 저를 동참케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열강해 주신 강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참부모님, 지상에서 저의 황제로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부모님을 가까운 곳에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황제의 대접을 해 달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품위 있고 값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통일원리를 대하고 있으면 저의 마음이 한층 숙연해지며,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는 의욕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지상생활도 회개하게 합니다. 관용과 용서,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먼저 조성되면 참다운 삶의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지요. 문선명 선생님의 직접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당돌한 부탁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참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기 강사님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고 감격에 들뜨게 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콘스탄틴 —2001. 9. 22—

8) 임마누엘 스웨덴보리 1688~1772, 근세의 대표적 신비주의자

— 영적 현상의 신학적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진리 —

나 스웨덴보리는 지상에 있을 때 영계의 실상을 많이 체험했다. 지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모로 많이 체험하였다. 그러기에 무형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형세계가 실체세계와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었다. 지상에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형세계의 실존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스웨덴보리가 지상에 남겨둔 무형세계의 경험적 이론들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란 추론적인 것만을, 그것도 지극히 일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근거하여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눈먼 장님도 무형세계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두었으니 인간에게 이것 이상의 복음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말 너무도 엄청난다.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근본적 이치만 인간에게 이해시키면 어느 누구든 지옥으로 오지 않을 것이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극을 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 스웨덴보리는 일생동안 영적 현상에 대하여 경험한 사실이 많이 있다. 그중에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나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형세계의 현상을 가르쳐 온 것이다.

어느 날 나 스웨덴보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명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매우 밝은 광채가 나타나 나를 빛 속으로 두둥실 태워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갑자기 광채는 사라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천둥소리와 더불어 고함소리, 신음소리, 알 수 없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여기가 무얼 하는 곳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큰 바위 밑에 끼여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모습을 한 채 살려 달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광채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 스웨덴보리에게 지옥을 보여 주시고 내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요청하셨다고 생각하였다. 무형세계에는 지옥이란

게 있으니까 인간은 죄를 지으면 이곳에 온다고 가르치신 것이었다. 그러나 정말 애석하게도 스웨덴보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못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여기 강사들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이다. 여기의 강사들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그대로 헤아리고 실천하는 분들이다.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원리의 주인공 문선명 선생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순간, 스승의 용안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애달파하시는 용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옥체도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스웨덴보리도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영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영계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론적 기반이 저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님, 부족한 소자도 부모님으로 모시며 소망을 가지고 통일원리를 열심히 연구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영적 경험을 통일원리와 조화시켜서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웨덴보리는 인류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칼 바르트 1886~1968, 현대 신학자

— 전통 신학만을 고집하면 그대의 영혼은 고갈될 것이다 —

칼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의 이번 통일원리는 칼 바르트를 무척 부끄럽게 하며 숙연하게 하고 있다. 그냥 그대로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싶다. 이 심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인지 알 수 없다. 온 지구 땅덩이 천상천하가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그리고 지성의 현현이지만, 통일원리의 진리를 듣고 보니 칼 바르트는 열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이러한 진리를 밝혀 내신 문선명 선생님은 재림주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믿는다. 이처럼 오묘한 진리가 어디에 숨겨졌다가 이제 밝혀졌을까? 하나님의 가슴속에 무궁무진한 천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놀랄 뿐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배후에 감춰진 사연, 하나님 가슴에 숨겨진 사실을 다 캐내 볼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대단한 교만이며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두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효자 중의 효자가 되셨다. 이러한 ‘보석’이 숨겨진 자리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캐내실 수가 있었을까? 칼 바르트는

어찌 이처럼 무지했던가?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고 한없이 허탈해질 뿐이다.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신학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가? 통일원리를 접하니 ‘신학’이란 용어를 완전히 내동댕이치고 싶다. 신학을 통해서 무얼 가르치며 무얼 배우는가?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두뇌로써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다만 허탈감에 사로잡힐 뿐이다.

현대 신학은 인간을 교만과 오만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뿐이다. 상당히 묘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문제는 통일원리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칼 바르트는 지극히 무능한 사람이요, 의미 없는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이다.

오늘의 신학자들이여, 그대들은 고개를 들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 보라. 칼 바르트는 전통적 신학의 관념을 모두 집어던지고 불사르고 싶다. 가슴이 답답하다. 신학도들이여, 그대들의 생각을 바꿔 보라.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의 오묘한 진리가 그대들을 구속하는 것 같다. 칼 바르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의 허울을 적나라하게 벗겨 버리겠다. 그대들도 그것을 벗어 던져라. 다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새 진리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

모이며,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진리는 그대들은 물론 전인류에게 폭탄적인 선언이요 복음이로다. 성약시대의 통일원리는 성경 66권을 능가하는 대단한 복음서요 폭탄서이다. 칼 바르트가 이곳 영인의 모습으로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배웠다.

신학도들이여, 성경에 묶여 살면 그대들의 영혼도 함께 그 올가미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대들, 신학도들이 믿고 있는 구원관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곳 영계에서 그것을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의 구원관과 이곳의 실상을 비교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요, 이곳의 현실이다. 고루한 신앙의 올무에서 해방되길 바란다. 세미나 소감이 일종의 서신 형식이 되어 버렸다. 칼 바르트의 심정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깊이 공부하고 정독하며 연구하길 바란다. 그리고 신학도들은 칼 바르트의 여러 서적과 통일원리를 비교하여 보길 바란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에게 엄청난 복음을 함께 가지고 오셨다. 그 새로운 복음서, 그것이 바로 통일원리이며 통일사상이다.

여러분 신학도들이여, 그대들은 성경을 읽어 가면서 무조

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던가?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약시대가 있다. 성약시대의 복음서가 통일원리요 통일사상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임을 밝히셨다. 그분은 재림주요, 메시아요, 온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다.

신학도들여, 그대들의 가슴에 정의의 피가 용솟음칠 것이다. 그대들의 정열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될 것이다. 그대들은 참된 진리 앞에 비굴하지 않길 바란다. 칼 바르트는 그대들의 가슴에 새 복음의 폭탄이 될 것이다.

재림주님,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구세주,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도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것은 칼 바르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칼 바르트 —2001. 10. 6—

10) 마틴 루터 킹 미국의 인권 목사

— 인종 장벽을 철폐할 진리가 출현하였다 —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도 감동적이다. 그리고 황인종 · 백인종 · 흑인종 등 인종차별, 교파의 엇갈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서 빛나간 형제들의 갈등, 나라

와 나라의 분쟁 마찰 등은 하나님 본연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출발이 잘못됨으로써 거짓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루터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며, 여러 차원의 인종적 장벽, 교파적 장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릇된 삶의 방향에 의하여 생긴 것이었다. 루터는 통일원리 앞에 너무도 감사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부여된 나뭇대로의 가치 기준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특권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인류역사에 인종차별과 종단의 갈등이 끊임없이 흘러온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평화사상이다. 통일사상은 인류를 통일시킬 수 있는 진리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천비이다. 이처럼 놀라운 천비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에 온 인류가 함께 축하해야 할 대사건이다.

루터는 통일원리의 출현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한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은 인종과 종단,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특권이다. 이 사실을 느끼게 될 때 또한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천비의 진리를 밝혀내시기까지 문선명 선생님의 고난과 수고 앞에 또한 감사

드린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라는 사실 앞에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통일원리는 어떤 하나의 교단에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종단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내면적 외면적 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은 물론 모든 인류가 정독한다면 인생의 참다운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인류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활 지침서이다. 통일원리의 논리 정연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인류는 평화와 해방을 위하여 수없이 노력해 왔지만 그것은 이러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한 운동은 군중심리에 의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통일원리는 인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진리라고 확신한다. 인류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루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루터는 통일원리로써 새로운 인간혁명을 일으킬 자신이 있다. 여기 강사들은 혁명가가 아닐 것 같은데 심정의 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감화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진리의 힘이 플러스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고 위대한 진리를 밝혀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인류의 참아버이로 현현

하심으로써 인류의 가슴에 한 맺힌 인종 장벽을 철폐시킬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찾게 되었으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류의 참부모님,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차게 불러 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효자 중 효자이신 참부모를 모셨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 킹 —2001. 10. 6—

11) **김대건** 1821~1846, 천주교 한국 최초 신부, 순교자, 103위 성인 중 1인

—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한국에서 창조될 것이다 —

통일원리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순화시키고 있다. 이곳을 찾아오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통일원리를 듣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과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서로 엇갈리어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원리는 문선명 선생님, 재림주님이 밝히신 새 복음이며, 이곳은 인류의 참부모님,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한 교육 현장이라고 하였다.

정말 김대건은 지상에 어떤 업적을 남겨놓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초빙하여 주어서 무한히 감사한다. 그런데

이곳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정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의 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출입구에서 아직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를 휘감는다. 그 순간 온몸과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신비스러워서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현실이 아닌 영적 체험이었다. 너무도 감사하다. 이곳은 어찌 이렇게도 아름답고 평온한지, 그리고 어찌 겸허한 사람들만 모여져 있는지! 안내자들과 강사들은 보기 드문 준수한 모습과 인상을 지니고 있다.

강의가 시작되는 순간, 김대건이란 신분이 스스로 노출되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강사들에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끌리어 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영적 체험이구나!’ 하면서 나는 참으로 신비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사들의 강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처럼 한 바퀴 올려서 나에게 들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들려 왔다. 이것은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가르침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느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나는 마치 화덕 위에 놓여진 질그릇이 밥상 위에 편안히 놓여진 것같이 되었다. 나의 몸도 마음도 조용해졌다.

지금부터 김대건은 통일원리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강사들 모두는 정열과 정성과 지성으로 우리들을 완전히 현혹시킬 만큼 멋진 강의를 하였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김대건은 천주님과 일생을 같이하며 살려고 작정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일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였다. 물론 주위 사람도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리구조는 현실적으로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자의 길은 생리적 모든 조건을 억제하며 오직 천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은 수도자의 당연한 길ियो, 성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했었다.

여기서 김대건의 이론이 깨져 나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자녀를 번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가? 이러한 의문을 지닌 채 지금 수도자의 빗나간 생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앙과 현실의 이중적 위선적 가면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 생활인가!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죄악이다. 오늘날 카톨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수도자의 삶의 방

향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가르침을 따라 참부모, 재림주님, 메시아를 모시고 축복을 받게 되면 이러한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도자들이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생활하고 있다. 인간의 생리구조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니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통일원리의 가르침에 모순이 있다면 인간의 축복 문제도 모순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복음이요 계시이기 때문에 진리의 모순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통일원리를 한번 들어 보라.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임을 구구절절 느끼게 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 어떻게 해서 통일원리가 우리 한국에서 나왔는지요?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대건의 역사는 하잘것없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문선명 선생님은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세계인의 신앙의 모국으로 세워 놓으셨으니 감개무량합니다. 통일원리는 세계 만민의 위대한 복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주님을 한국 땅에 한국 사람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며, 한국이 세계의 성지가 될 것이며, 한국어가 세계어로 될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뿌려진 김대건의 피가 이러한 섭리역사에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부모님, 수많은 카톨릭의 수도자들을 구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밝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새 진리를 밝히시고,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신하여 효자 중 효자의 기준을 세워 주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김대건은 이 진리 앞에 무조건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과 소감 모두를 기록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궁한 진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라 믿으며, 하루속히 통일원리의 가르침이 국교(國敎)가 되고, 세계 만민이 하나의 길, 통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방향으로 전진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을 존경하며 모시겠습니다.

김대건 —2001. 10. 6—

12) 이용도 1901~1933, 감리교 목사, 부흥사

— 지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을 통곡하고 있다 —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오셔야 할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용도의 소원이다. 그리고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마음의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체였다.

그러나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알고 보니 나의 삶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간의 무지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쌓이 트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 버렸다. 죄악의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하니 그 뿌리도 굳게 내린 터라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통일원리를 이용도 자신의 삶으로 송두리째 생활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대단히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며,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앞부분에서 궁금하였던 것은 뒷부분에서 그것을 해소해 준다. 그리고 통일사상에서 여러 차원의 우주문제 세계문제 인생문제가 한결같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원리의 이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항상 간직하고 있던 이용도의 신앙과 철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 같은 것을 통일원리와 비견해 볼 때 무척 빛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 앞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 오던 재림주님은 다름 아닌 문선명 선생님이며,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며, 문선명 선생님은 16세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계 받으셨다는 것은 충격적인 선언이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재림의 때에 시대적 혜택을 받아야 마땅했었다. 이제 더구나 지상인이 믿어 줄지도 모르는 이 사실을 이곳 영계에서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무겁고 벅차다. 이용도도 여기 강사들 못지않게 지상생활에서 재림주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맞이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지, 왜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나는 무척 아쉬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용도는 여기서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전세계 인류에 위대한 복음이다. 그리고 통일원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에서 출현하였으며, 재림주님도 순수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하나의 한국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의 조국강토가 세계인의 중심 나라가 되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도의 과거 삶을 회고해 볼 때 그것은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곳 영계에서라도 메시아가 한국인임을 자랑하고 한국에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하며 깃발을 휘날리고 싶다. 그러나 지상에서 재림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속상하고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 같다.

하나님! 이용도의 타락의 근성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

니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강의하는 강사들과 이용도를 비교해 볼 때 이용도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쓸데없는 열등의식을 버려야 한다. 지워야 한다. 타락의 근성에 끌려가는 이용도의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용도의 마음과 몸에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겠다.

문선명 선생님! 이용도에게 기회를 주소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동시성시대의 설명을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용도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이용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선명 선생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주님! 인류의 참부모님! 너무도 엄청난 존함을 감히 불러 뵙니다. 이용도의 이곳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소서.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님으로서, 재림 메시아로서 인류 앞에 승리하신 참부모님 되소서!

이용도 -2001. 10. 7-

2. 불교 대표 12인

1) 목건련(目健連) 10대 제자 중 한 사람, 신통 제일

— 하나님과 인류가 부자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불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

나 목건련은 솔직히 말하면 석가의 제자로 위신과 체모를
갖추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석가님을 모시고 통일원리를 청강하고 있다. 지상
인이나 천상인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일 것이다.
통일원리가 새 진리이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그저 한번 청
강해 보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석가님이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하신 길이었고, 우리
들에게 말씀도 못 하고 고민 고민해 오시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
신 것이다. 석가님은 통일원리를 미리 검토하시고 스스로 가서

야 할 길임을 확정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이니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미 정해진 것이다. 석가님의 10대 제자로서 석가님을 떠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건련은 분명히 각오한 바가 있었다. 석가님의 가신 길을 지금까지 믿고 모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통일원리를 접한 목건련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불자들이 수행했던 길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 대단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전 피조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며 인류의 부모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의 관계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가 알고, 자식이 하는 일을 부모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부모와 자녀는 그 사정을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핏줄을 나눈 부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목건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부모는 높은 산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데 자녀는 그것을 모른 채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만 살았으니 어찌 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인가? 자녀는 산세와 산의

바람결도 모를 것이며, 등산법과 하산법도 잘 모를 것이다. 이처럼 나 목건련이 일생동안 석가님을 모시며 살던 방법과, 하나님을 모시는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무척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

하나님과 인류가 부자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석가님을 비롯한 우리 제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우리 불자들을 외면하셨는가? 사실 우리 불자들은 버림받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우리가 걸어왔던 험난한 고행은 정말 진실했고 순수했던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인류의 부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째서 부모의 사정을 알지 못했는가? 우리 불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자녀들인가?

그러나 석가님은 이 길을 각오하고 출발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도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나의 마음은 대단히 울적하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따른다. 지난날 우리 불자들에 있어서 육체의 고행은 평정된 마음이 지켜 주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 불자들의 힘든 고행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석가님이 통일원리를 알고서 그렇게 고민하셨던 것인가? 이제 나도 석가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선명 선생님, 저 목건련은 대단히 괴롭습니다. 저는 석가님의 10대 제자로서 영원히 남아지기 위하여 통일원리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통일원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마음은 정리되겠지요. 그리고 통일원리가 영원한 진리라면 지난날의 고행 길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찌 이 길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등극하셨으니 우리 10대 제자와 그동안 협산준령을 넘어온 불자들의 길에 새로운 영광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건련 - 2002. 2. 10 -

2) 가섭(迦葉) 10대 제자 중 한 사람, 교단의 상수 제자

— 우리 모두는 서로 의지하며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결단하였다 —

인생의 근본진리가 이미 인간 출생 이전에 선재(先在)하였지만, 나 가섭은 시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기에 그 진리를 접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것이 참으로 원통하다. 석가님도, 우리 10대 제자도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그동안 불자들의 수도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은 아닐지라도 불자들의 삶 자체는 진리를 향한 대단히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참된 삶을 위하여 온갖 고통도 수용 극복하였던 것이다.

인생 자체에 관한 한, 인간은 인간조상에서부터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알았든가? 비록 불자들의 수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도 공적도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 삶 자체에 대한 참을 찾기 위한 수행이었기에 우리는 10대 제자로 남아졌고, 이로써 오늘 통일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불자들의 수행이 결코 허탈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구나 통일원리 강의를 청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초대받은 인물들만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귀한 자리에 우리 불자들이 초대받았으니 감사하면서 통일원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10대 제자들 모두는 초채한 모습을 한 채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통일원리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석가님께서 정중한 자세로써 우리 제자들을 위무(慰撫)하여 주셨다. 가자! 이것이 석가님의 가시는 길이요, 인류가 가야 할 숙명의 길이라면 감사하면서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원리의 ‘통일’이란 문자가 참으로 가혹하고 무섭게 느껴졌다. 통일은 주관받는 것이 아니라 거느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뼈를 깎는 우리의 수행을 이곳에서 생활의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들은 많은 불

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농작물에 비료를 줘야 잘 성장하듯이 가섭의 삶에 유익한 자양분이 주어졌으니 이제 나 가섭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진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석가님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10대 제자 모두는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결단하였다. 우리는 한탄하고 허탈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가섭은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우리들의 아픔을 거둬 주시고 받아 주소서.

가섭 -2002.2.10-

3) 수보리(須菩離) 10대 제자 중 한 사람, 온갖 법이 공한 이치임을 처음 깨달음

—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

천지만물의 조화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통일원리에 이처럼 엄청난 진리가 내재해 있을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였다. 어찌하여 역사의 출발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석가님도, 10대 제자도 모두 억울하고 원통하고 처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

나 하나님의 사정이 더 억울하고 처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물론 그러한 섭리적 과정은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수천년 동안 인류역사의 주인이 뒤바뀌었으니 그것은 어떤 작가가 거짓으로 꾸며 놓은 역사적 스토리 같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현실이었다.

어느 날 석가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한 분이 계셨다. 우리 불자들은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분은 석가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 불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도 석가님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디 계시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도, 만날 수도 없는 분이셨다. 통일원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내용을 깨닫게 해 주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석가님보다 더 많은 수행을 하신 것일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경륜하셨는가? 석가님도 인간의 근본적 고뇌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비 길을 수없이 넘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의 경륜과 비교할 수 없다.

석가님, 마음 아파하지 마소서. 수보리는 모든 것을 접어 버

리고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어찌 사람이 만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남이 내 뜻이 아니거늘, 물 따라 바람 따라 살아왔던 인생길이니 이제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자들을 사랑하사 불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석가님! 제자의 위신을 세우면서 따르겠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배려하시고 우리 불자들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수보리 -2002.2.11-

4) 라후라(羅睺羅) 석가의 아들로 10대 제자 중 한 사람, 밀행 제일

— 육신의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길은 무엇입니까 —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 석가의 아들이었다. 그것은 라후라 개인의 뜻이 아니며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나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다. 부친의 얼굴은 보기조차 힘들었고, 모친은 항상 눈물 젖은 얼굴과 시련 속에 잠긴 모습을 하고 계셨다. 이것이 나의 가정의 분위기였다. 나는 철이 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부친의 입장과 모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해방 받고 싶었다. 어느 가정을 살펴볼지

라도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의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정의 모습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나의 가정도 다른 가정처럼 가정평화는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화려한 의상은 물론 화려한 식탁과 궁궐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이 없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부친을 따르게 된 동기였다. 통일원리를 청강한 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첫째 나의 부친의 고생과 모친의 불쌍함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런 처참한 모습이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었다. 나의 부친은 갖은 고행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 일생동안 혹독한 육체적 고문을 치르며 생활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무아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부친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거늘 지금은 어떠한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물음이 나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동댕이치게 하였다. 당시의 그 아픔을 글로써는 조금도 표현할 수 없다. 어떤 표현도 그 상황을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통일원리를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화목을 원하셨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통일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어 천국이상을 이루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인간 축복의 전제인 것이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통일원리의 위대성을 나는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괴로운 것이다. 나의 부친은 이미 오래 전에 통일원리를 깨우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셨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서야 하며, 나의 모친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처럼 이상한 희·비극이 내 가정을 옥조이고 있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종적 부모님, 횡적 부모님, 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저 라후라는 통일원리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리에서 천국이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저 라후라의 삶도 거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라후라 -2002. 2. 12-

5) 마명(馬鳴) 대승불교의 시조

— 이제 통일원리가 출현하였다. 악마의 무도회는 끝날 것이다 —

불교 경전에는 인생의 전반 문제를 대단히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하고 일생을 보낸 것을 항상 감사

하며 살았다. 그런데 통일원리를 접하고 나 마명은 너무도 억울하였다. 자신의 생애가 이렇게 후회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여러 불자들 중 하나로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느끼며 살았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진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갈등을 참을 수가 없다. 천비를 밝힐 때가 이 시대인가? 이전에 태어난 수많은 인간들은 어떤 가르침을 중심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가? 유구한 인류역사가 흘러왔는데 왜 그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지 못하셨는지? 통일원리의 복귀섭리에 있어서 동시성시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한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류는 아무런 대책 없이 유구한 세월을 보냈고, 인류역사를 통하여 인류는 악마의 무도장에서 들러리를 서 준 것이다. 인류역사의 스토리가 이처럼 비참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여러 종단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다. 기독교도들, 유교도들은 이미 소감 발표가 끝났고, 이번은 불교도들의 차례인 것 같은데,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이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하나된다면 인류는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악마의 세상은 끝날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시어 통일원

리를 인류에게 선포하셨으니,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의 새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 신자들의 가르침을 버리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나 마명도 지난날 불교를 중심한 생애가 무척 역울하지만 이제 새롭게 따라야 할 방향을 잡았다.

하나님, 하루빨리 지난 세월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참부모님의 용어 자체가 무척 생소하고 서툴지만 참부모님을 시봉하고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 명 -2002.2.13-

⑥ **축법호(竺法護)** 36국 말에 정통, 수많은 범본경전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 번역에 종사

— 이제 인류는 어떤 전통적 경전도 불필요가 없을 것이다 —

나 축법호는 통일원리를 듣고 대단히 놀랐다. 일생동안 여러 경전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데 일생을 보냈다고 할 만큼 정성을 쏟았다. 통일원리는 전통적 어느 경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대단한 경전이다. 통일원리보다 더 위대한 경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처럼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밝힐 수 없을 것이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인류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인간의 내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분명하게 규명하였다. 논리 전개에 있어서도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기에 신앙인이 아닌 일반인이 정독할지라도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그 경전을 자세하게 정독하여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 축법호는 통일원리의 내용 모두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원리에 있어서 인간보다 사귀가 앞장서서 인류역사를 지배했다는 것은 해괴망측한 소리로 들리며, 앞뒤 이론적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내가 통일원리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일원리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의 이중구조에 대한 해명이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그냥 지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 보니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이것을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거나 가르쳐 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막연한 추측으로 그 세계가 ‘있겠지’,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내세문제를 인간의 이중구조에 의하여 분

명하게 설명한다. 우리 모두의 지상의 삶은 잠시 스쳐 가는 것이다. 우리의 내세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이곳, 즉 천상에 와서 보니까 이곳의 생활은 지상과 유사하다는 점에 너무도 놀랐다. 지상생활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 즉 극락세계가 우리 불자 앞에 소망의 곳으로 남아져 있다. 나는 극락세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곳 천상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곳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정착지다. 모든 인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지상에서처럼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며, 이곳저곳으로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상 삶의 공적에 따라 이곳에서 영원한 자기의 처소가 정해진다.

나는 통일원리의 내면적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감탄과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다. 이곳 천상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너무도 많았다. 통일원리를 듣고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기적적인 일을 해내셨다. 인류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아가는 근본도 가르쳐 주셨다.

여러 불자들이여, 모든 천상인은 물론 지상인은 통일원리를 들어 보라. 통일원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경전이 될 것이다. 나

는 만세 만만세를 부르고 싶다.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떤 전통적 경전도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닫게 되었으니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여러 불자들이 나 축법호를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축법호 —2002. 2. 13—

7) 달마(達磨) 중국 선종의 시조

— 나는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 —

지상에서 살 때 불교 경전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생활을 발견하고 다른 여러 경전을 통해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깊이 관심하였다. 그러나 통일원리에서 밝힌 인간의 근본 이치는 전통적 경전의 그것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함의되어 있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근본 이치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밝혔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불자들의 해당 사항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통일원리는 어느 일부 종단의 가르침이 아니다. 전인류가 마땅히 알아야 할 대단히 위대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좀 더 일찍 통일원리를 접할 수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회나 미련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받아들이자. 나 달마는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새 진리를 어떤 예고도 없이 만났으니 마음이 정리되기만 하면 새 진리의 방향을 따라 살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내세문제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나 달마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이다.

달 마 -2002.2.13-

8) 강승회(康僧會) 중국 오나라로 건너가 불교를 융성시킴

— 통일원리로 개종하겠다 —

불교 경전에도 올바른 인생을 위한 여러 차원의 가르침이 있다. 나 강승회는 그 경전에서 무척 많은 것을 얻었고 일생동안 그것에 만족하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통일원리를 듣고 보니 나에겐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통일원리는 너무도 위대하고 방대하다. 불교 경전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다루었다. 통일원리를 들어 보지 못한 불자들은 무척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것은 진리성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통일원리는 인생의 출발과 종착지, 내세관, 조물주의 창조목적 등 모든 것을 손두리째 밝히고 있다. 그것은 너무도 위대하고 방대하다.

나 강승회는 불자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려운 고행을 극복하면서 참진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고행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 불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하루빨리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그것이 효자의 길이요, 충신·성인·성자의 길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물론 여러 불자들도 자존심이 있고, 아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통일원리에 전혀 의미가 없다.

나 강승회는 불자들 모두가 고생길에서 해방되자고 간절히 외치고 싶다. 우리 불자들이 무릎이 닳도록 천배 만배 절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참부모님을 외면하면 불효자가 된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깊이 명심하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 저는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 하고자 하오니 저의 통일원리에의 개종을 깊이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여러 불자들의 길을 열어 주소서.

9) 미륵(彌勒) 인도 유가행의 시조

— 통일원리의 내세관에 크게 감동하고 탄복하였다 —

많은 종교인들이 통일원리를 듣고 인생의 바른 길로 가기를 결심한 것 같다. 통일원리는 위대한 경전이 될 것 같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만 붙들고 있는 분들의 얼굴 모습은 울긋불긋 찌뿌둥하다. 그런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희끗희끗 보인다.

미륵은 통일원리의 내세관에 크게 감동하고 탄복하였다. 인간의 이중구조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해명하였다. 미륵이나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것에 공감했을 것이다. 막연하나마 극락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갖 고난의 길, 험산준령을 넘고 넘어서 외길로 걸어왔던 우리 불자들이 왜 극락세계에 가지 못했는가?

불자들이여, 나 미륵을 욕해도 좋고, 돌팔매질을 해도 좋다. 통일원리를 들어 보니 우리 불자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나 미륵은 이곳 천상에서 통일원리에 미친다면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바른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한다. 바른 길이라면 아무리 험난한 계곡일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의 근본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불자들이여, 끝까지 통일원리

를 들어 보라. 그리고 마음을 비워라.

미 록 —2002. 2. 16—

10) **현장(玄奘)** 당나라 때 승려, ‘대당서역기’를 지음

— **통일원리는 새로운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무지에서 헤매던 현장은 통일원리를 깨우치니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분명하게 찾지 못하였다. 성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일원리가 출현한 것이다. 동시성시대의 섭리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불자 시대에는 통일원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니 불자들의 수행방법이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불자들이 살아왔던 수행생활은 그 위신과 체면을 고려해 볼 때 무척 창피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불자들은 불자 자신 속에 파묻혀 자신의 움막을 짓고 웅크리고 살았던 것 같다. 이제 그곳에서 헤어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불자의 모습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새로운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울분이 터진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다. 우리 불자들은 죽음을 초월

하는 고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 문선명 선생님은 통일원리를 찾기까지 수많은 섭리적 단계에서 승리하셨다. 통일원리는 천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통일원리는 누구나 걸어가야 할 인생의 공식이다. 나 현장에겐 표현할 수 없는 사연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해당하는 억울한 사연이므로 생략하겠다. 그리고 주최측에 부탁하고자 한다. 나 현장이 불자들 속에서 이단 행위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현 장 -2002.2.25-

11) 지의(智顗) 수나라 때의 승려로 천태종의 개조

- 축복을 받고 극락세계에서 살 것이다 -

나 지의는 통일원리를 깨닫고 보니 당장 축복을 받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축복을 받아야 극락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원리의 천국이상향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나 지의는 일생동안 순결을 지키며 살았으니 축복 자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불교의 갖가지 서적도 읽었고, 어려운 고행 길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행 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새 출발을 할 것이다.

고행에서 해방받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 통일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 너무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바른 진리임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고행 길을 걸었지만 통일원리와 같은 가르침은 접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수행은 육신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으며, 나 자신의 수양이었다. 그 터전 위에 새 진리를 접하여 바로 살아야 한다. 엄청난 통일원리에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인류에게 참부모로 현현하신 문선명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부모로 시봉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나 지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절대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나 자신의 것이 되도록 전력할 것이다.

지 의 -2002.3.1-

12) 이차돈 스님이 참부모님께 올리는 글

— 천상천하 참부모님께 올립니다 —

참부모님, 저는 이차돈입니다. 참부모님, 참부모님, 참부모님! 그냥 함자만 불러도 영광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우리 참부모님, 만세, 만만세!” 하고 외치고 다니고 싶습니다. 여기 수많은 불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이 알지 못한 갖가

지 고행 길에서 승리하고 남들이 걷지 못한 도의 경지까지 체험했던 분들이지만 자존심과 아집에 꼭 차 있습니다. 여기서 참부모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의 여러 고승을 비롯한 불교인들은 불자의 외길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경지에서도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기 위하여 수고한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참부모님의 관용과 배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는지요?

어느 날 석가세존께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석가세존임을 밝히시지 않은 채, 조용히 참부모님 존영 앞에 큰절을 올리고 울먹이며 그리고 참으시며 “우리 불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다시 침묵하시며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아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상헌 선생께서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압니까?” 하신 후 “그 어른이 바로 석가세존이십니다.”라고 밝히자, 여기저기서 울먹이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고승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부모님, 저 이차돈이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지만,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저의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불교인들 앞에 선구가 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소자의 간청을 받아 주시고 소자

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통일원리의 길을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도 먼 거리에 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참부모님, 인류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세계적 경전, 통일원리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차돈은 원리강사는 아니지만 통일원리를 무장하여 불교인들의 구원을 위한 불사조의 심정을 갖고 선구자가 되겠사오니, 참아버님, 마음놓으시고 천수만수 옥체 무강하옵소서. 이차돈 소자 올립니다.

이차돈 —2002. 3. 11—

3. 유교 대표 12인

1) 염백우(冉伯牛, 본명:염경冉耕) BC544~?, 노나라 사람, 덕행에 뛰어남

— 공자님이 가시는 길이니 무조건 따르겠다 —

공자님께서 항상 ‘새로운 이론과 진리 앞에 비굴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통일원리에 대한 강의도 여러 차례 해 주셨다. 유교권 그룹을 중심한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염백우는 통일원리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것을 몇 번 반복하여 듣게 되었다. 여기 유교인들, 특히 나 염백우가 여러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가장 크게 놀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라는 것과, 문선명 선생님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이다.

공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문선명 선생님은 지금 지상에 계시면서 전쟁과 빈곤이 없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총력을 경

주하시며, 전인류에게 ‘위하는 삶’의 전형을 보이신다고 한다. 우리 인류는 문선명 스승의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 크신 신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신다고 한다.

그리고 공자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가르침, 즉 예절과 도덕과 인성 교육 등은 우리가 육신을 중심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진리, 통일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염백우는 배움도 부족하고 지성이 부족하지만 그간 공자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고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먼저 통일원리를 공부하시고 새로운 진리세계에 대하여 차원 높은 말씀을 주셨다. 우리들은 공자님이 옳다고 하면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염백우는 문선명 스승의 사상을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자님의 지시를 따르겠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만인류의 부모이심을 믿는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면 통일원리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염백우는 공자님을 존경하고 따라왔다. 그러니 공자님의 길을 염백우도 따를 것이다.

2) 자로(子路, 본명:중유仲由) BC 542~480, 노나라 재상과 위나라 대부를 지냄

— 공자님의 길과 자로의 길이 다르지 않다 —

우리 공자님은 온유와 겸손과 예절을 가르치시고 인생의 기본적인 윤리에 묶여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데 공자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 진리가 있다고 하시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종종 주셨다.

오늘 그날이 왔던 것이다. 우리 모두를 불러모으고, 공자님은 “새로운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이 진리는 큰 스승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 여러분은 혼신을 다하여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미나 장으로 안내하셨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재림주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등등 여기 저기 붙어 있는 글귀들은 우리에게겐 다소 생소했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우선 강의 주제가 유교인에게 있어서 무척 생소하였고, 강의 내용도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공자님은 누구보다 먼저 통일원리에 통달하셨다고 하시면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고 일러 주셨다. 유교인에 있어서 통일원리는 지금까지 받아 온 공자님의 말씀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논리 전개가 정

연하였다.

우리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공자님을 존경했고 공자님의 가르침에 항상 젖어서 살아왔다. 그리고 공자님은 새로운 진리, 통일원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 나 자로는 그러한 스승의 모습에 무척 감동했다. 자로가 스스로 존경하는 스승 공자님이 겸손한 자세로 통일원리를 수용하고 따르시는데 자로의 길이 따로 있겠는가?

문선명 선생님이 하시는 일, 가시는 길을 우리들은 스승 공자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인류 평화의 지름길이라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오리다. 통일원리는 아직 어렵고 생소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 —2001. 10. 7—

3) 맹자(孟子) BC 392(372)~294(289), 전국시대 중기 사람, 선한 성품의 근원이 하늘이라 가르침, 성선설 주장

— 통일원리의 출현은 인류의 희망이다 —

공자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에 매료된 나 맹자는 인간의 삶의 바탕이요 근본은 공자의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오직 그것에 도취하여 살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선명 선생님의 평화사상인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섭리 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통일원리의 내용은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며 충격적이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바탕이 인간 구제의 길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통일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다. 그것은 참으로 감탄할 내용이다. 통일원리에 비하면 공자님의 사상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인류의 부모라는 사실도 공자님의 가르침과 크게 빛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모든 종교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평화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원리세미나에 참석하여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그리고 복귀섭리에 있어서 시대적인 중심인물이 당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맹자의 가슴을 무척 아프게 했다. 그것은 공자님 사상의 일부분이었지만 빛나간 삶이 아니었기에 감사한다. 이번에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새롭게 접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고조시켜 주었다. 맹자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깊이 연구 분석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진리를 교시 받으신 문선명 선생님을 대단히 존경하며,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위대성에 감탄과 감격을 금치 못한다. 통일원리의 출현은 인류의 희망이다.

새로운 소망과 희열이 계속 솟구친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맹자도 새 진리에 대한 열정을 보이
고자 한다. 유교의 근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크게 빛나
간 것이 아니었음을 감사한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이 인류의
주류사상으로 형성되기를 바란다.

맹 자 —2002. 1. 16—

4) 순자(荀子) 대략 BC 340~245, 조나라 사람, 성악설 주장, 사회혼란의
원인은 인간 책임

— 통일원리에 의하여 유학이 완성되기를 —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특별한 논리 전개로 구성된 인류의
개혁사상이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대단히 위대하며, 대단
히 명백하며,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그리고 대단히 창
조적이며 소망적이다.

통일사상을 위시한 통일원리의 논리 전개는 마치 인생공식
이나 수학공식과 같다. 따라서 정치·경제·교육·사상·종
교·문학·예술 등 인류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은 통일사상
을 중시하고 하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 순자의 확고부동
한 전망이다. 그것은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인간 생활에 있어
서 일부분이 아닌 전분야를 총망라하여 근본적 기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교시라고 소개했는데, 나는 그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 두뇌를 통해서는 이처럼 폭넓고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없다. 통일원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과 공통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류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통일원리의 어느 부분이라도 연구 분석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노벨상 수상의 주제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순자는 통일원리에 대해 다만 위대하고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가르침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성약시대의 인류의 참부모님이심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독교적인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책임진 재림 메시아란 표현도 논리적으로 섭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순자는 이 점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유가들은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철저하게 연구 분석하여 유가사상과 결부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그렇게 하면 유가사상은 한층 더 차원 높은 지성인의 사상으로 격상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시봉하는 평화사상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이념이다. 순자는 유가들에게 통일원리를 적극 수용하기를 권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상의 유가들이 천상에서 전하는 이러한 순자의 부

탁을 어떻게 믿으며 받아들일 것인가 염려스럽다. 지상의 유가들이여, 제발 순자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통일원리에는 기적적인 사상적 학문적 내용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지상의 유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연구 분석하여 유학을 완성시켜 주기를 거듭거듭 부탁한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지상의 여러분들은 성약시대 참부모님의 진리인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모든 내용을 수용하고 적극 연구하길 바란다.

순 자 -2002. 1. 16-

5) 사마천(司馬遷) BC 145~?, '사기' 저술, 공자를 성인으로 격상시킴

— 인생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통일원리를 정독해 보라 —

공자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선명 선생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공자님께 감사한다. 공자님은 자신이 먼저 통일원리를 여러 차례 정독하신 후, 우리 후학들에게 그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소개하셨다. 인간이 걸어야 할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인류의 부모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나 사마천은 공자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만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의미

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공자님은 그동안 자신이 고민하던 인간의 본성, 존재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내재해 있는 여러 속성, 인간 사고의 출발점과 방향, 그리고 기준, 역사의 시원, 역사의 법칙 등등 여러 차원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마천은 공자님이 왜 저렇게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통일원리 강의를 청강한 후, 비로소 공자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귀중한 내용이 통일원리에 함의되어 있다. 거기에는 인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송두리째 밝혀져 있다. 나 사마천은 통일원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역사적으로 배척 배신당하였지만, 그들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새 진리로 다시 거듭나기를 가르쳐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종파와 교파의 분열이 많이 일어났지만, 종교의 근본 목적은 ‘바르게 살자’, ‘선하게 살자’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차원으로 양상을 달리하면서 분열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바른 진리가 출현하였으니 전인류는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여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한 형제자매가 되어 에덴의 창조이상향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맹세하길 바란다.

지상과 천상에 문선명 선생님이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현현

하셨으니 인류의 갈 길은 분명하게 확정되었다. 모든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하나되어 행복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 영계에서 사마천이 지상의 유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한다. 한정된 지상생활에 있어서 는 공자님의 사상과 가르침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의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양한 모습의 둥글둥글한 이상향의 세계가 바로 인간이 가야 할 종착지다. 이제 인생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통일원리를 정독해 보라. 거기서 여러분은 분명히 정확한 해답을 발견할 것이다.

사마천 —2002. 1. 16—

6) 왕필(王弼) 226~249, 유교·불교·도교 등을 초종교적으로 연구한 중국 최초의 인물

— 역누를 수 없는 새 용기와 희망이 계속 솟아나는데 이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

나 왕필은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내용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무사하였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흠어진 모든 인류를 인도해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에는 인류가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며 ‘웁소, 웁소!’ 하면서 수용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너무도 신기하고 신비로운 진리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기에 인류에게 구세주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시어 인류를 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신앙의 기준, 사상적 내용, 철학적 내용, 예술적 장르, 문화적 가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근본 기준이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확실한 신관 · 인생관 · 세계관 · 교육관 · 가치관 · 역사관 등은 통일원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통일원리로부터 인생의 근본 방향이 뚜렷하게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든지 통일원리를 듣기만 하여도 그는 의식 개혁, 인격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 통일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기하고 신비로울 만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접 통일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기까지 문선명 선생님의 수고와 공로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칭찬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 인류는 하루속히 문선명 선생님을 참부모님 메시아로 모셔야 한다.

만약 왕필이 지상생활에서 통일원리를 알았다면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통일원리를 알고 보니 그런 배짱이 자연히 생긴다. 종교 통일, 사상 통일, 가치관

통일 등 인류의 제반 통일의 기준이 통일원리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통일원리를 깨우치고 나니 왕필의 개인적 관념이나 견해 등은 모두 사라지고 통일원리의 감동·감격·비전만이 왕필의 가슴에 뚜렷하게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계속 솟아난다. 어느 누구든지 통일원리를 알면 그는 우주와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 왕필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문선명 선생님의 지시와 말씀에 절대복종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만약 우리 유교인들이 통일원리에 무관심한다면 그들이 존경하던 공자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왕 필 —2002. 1. 17—

7) 도연명(陶淵明) 365~427, 유학과 도학을 융화한 문학자

— 새 진리 앞에 조금도 양보치 않을 것이다 —

공자님은 우리들에게 통일원리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역사적인 용단을 내릴 때다.”라고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무도 귀한 시간이니 공자의 말을 다룰 것이 아니라, 여기 강사들의 강의내용에 주력하라. 그리고 통일원리의 강의를 모두 듣고 난 후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

유교인들은 공자님을 대스승으로 추앙하고 있다. 도연명은 공자님의 그림자라도 비켜 가고 싶은 경외심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공자님이 직접 통일원리를 들어 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얼까? 분명히 통일원리는 위대한 진리임이 틀림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통일원리는 첫 강의부터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대주제 아래 ‘문선명 선생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만나 보십시오’라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어떤 기억이 갑자기 도연명의 뇌리를 엄습하였다. 도연명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문선명 선생님을 환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다. 그분은 태양 빛과 같은 눈부신 광채 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이였다. 그분은 두터운 옷을 입으시고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무엇인가 애쓰시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 도연명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움과 눈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사무쳐 오는 심정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는 만났도다. 문선명 선생님을 만났도다.” 그리고 “그분의 길과 동행하라.”는 함성이 계속 솟구치면서 쉴 사이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진한 감동 때문에 나는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강자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강의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네 지성이 뭐냐? 네가 무얼 따를 것이냐?”라는 질책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어찌해야 하나?’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문선명 선생님은 통일원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혈투전을 거듭하셨다. 생사의 고비 길을 몇 번이나 넘나들면서 통일원리를 찾아내신 것이다.”라는 강사의 고함소리에 정신이 확 들었다.

강의가 끝난 다음 공자님은 다시 만나자고 하셨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강의를 듣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진리의 함성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내가 감히 어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통일원리는 많은 정성을 들인 후 공부해야겠다고 결정하였다. 유교인들이여, 도연명은 새 진리 앞에 조금도 양보치 않을 것이며 비겁한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도연명 — 2002. 1. 17 —

8) 주자(朱子) 1130~1200, 경학, 사학, 자연과학, 불교, 도교 등을 유학의 측면에서 체계화함

— 이처럼 생경한 진리를 왜 주자에게 암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나 주자는 여러 측면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하늘의

이치를 바로 알기 위하여 연구 분석하는 데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대적 혜택을 주시지 않은 것 같다. 통일원리를 들으면서, 나 자신은 외딴 섬에 사는 무지한 사람같이 느껴졌으며, 한편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같이 느껴졌다. 나는 지상에서 어설프게 살지 않았다. 남다른 학문적 열정을 지니고 우주와 자연과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적지 않게 노력하였다.

그런데 통일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문선명 선생님의 수고에 의해 밝혀진 진리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 주자는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밝히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유학자에 대해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왜 우리는 저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서만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주자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한 일말의 암시도 주시지 않았다. 여기 참석자들 중에서 이처럼 괴로운 사람이 어찌 주자뿐이겠는가?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너무도 생경하고 새롭고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것은 광범위하지만 너무도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밝혀져야 한다면, 저 주자의 일생을 통하여 바친 노력과 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의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저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이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화가 나고 버림받은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궤도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소서. 지금의 심정은 너무도 형클어져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주자가 정리되지 않은 심정을 남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 자 —2002. 1. 19—

9) 마테오 리치(중국명:리마두利馬竇) 동양의 상제와 서양의 하나님이 동일함을 주장

— 인류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통일원리가 출현하였다 —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가르침은 너무도 신나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인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녀들이다. 이것은 너무도 통쾌하고 유쾌하고 명쾌하고 신나는 메시지요, 위대한 진리가 아닌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가르침만을 옳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보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4계절 중 봄의 만물 현상을 보았던 종교는 항상 싹이 트고 파릇파릇 돌아나는 측면만을 주장할

것이요, 겨울의 현상을 보았던 종교는 흰눈이 펄펄 쏟아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얼음이 어는 측면만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자간에는 대립과 반목,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인들이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시고 계셨다.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인류의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마찰, 그리고 고통과 전쟁도 종언을 고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모든 인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제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무력적 수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총칼과 폭탄으로 서로 죽이고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하나되기 위하여 통일원리가 출현한 것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진리는 하나요, 인류도 하나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 나타난 모든 종교나 사상은 새 진리를 중시하고 하나되어야 한다. 대 빌딩을 건축하는 데 여러 종류의 못, 철근, 시멘트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연장과 기구 등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현실적 문제 수습에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중시하고 새 에덴동산을 건설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인류는 하나의 형제자매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새 에덴동산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자기의 보자기를 모두 가지고 모이자.

그리고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바꾸어 가져 보자.

앞으로 참으로 신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야 부모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주인이 아니요, 유교만의 주인도 아니요, 동양인만이나 서양만의 주인이 결코 아님을 깊이 명심하라. 모든 종단의 주인이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 보자. 그렇게 하면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을 공유할 것이다. 인류들이여, 깨어나길 바란다.

마테오리치 —2002. 1. 21—

10) 이율곡(李栗谷) 주기파의 대표자

—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불효자들이었다 —

대부분의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죄짓지 않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면 후세의 삶도 극락세계에 머물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 이율곡도 그러했고 대부분의 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류역사 속에 우리 인류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왔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함을 금치 못하겠다.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인 것을 인류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결국 인류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불효자들이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문선명 선생님은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시고 하나님의 효자 중 효자가 되었다. 문선명님의 수고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인류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졌다. 그런데 아직 천상이나 지상에서 종단의 갈등, 마찰 대립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 수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게 고민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학문적 토대가 있기에 하나님주의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들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 예상된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전쟁, 빈곤, 종교 등의 문제, 사상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지성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여, 종단의 문을 활짝 열어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주의를 생활화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1) 안중근(安重根) 유학 위에 천주교를 수용, 독립운동에 투신

— 나의 사상을 통일원리에 접목시켜 인류통일에 혼신을 다할 것이다 —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며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였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종교 · 인종 · 사상 · 민족 등의 분열과 대립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은 조상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조국과 민족만을 생각했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통일원리를 듣고 많은 것을 회개했으며, 그동안 민족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깨우쳤습니다. 인간은 창조 이후 잘못 출발하였고, 인류역사의 흐름 자체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민족적 애착과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심과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이해하게 되자마자 그것이 인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애국자보다 하나님의 효자의 길이 더 귀중한 것임을 통일원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문 선생님께서 직접 밝혀 놓으신 통일원리가 세계 인류 앞에 영원히 남아질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새 진리를 주셨으니 문선명 선생님은 참부모이시며 위대하신 구세주이며 대성자이

십니다.

저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통일원리에 접목시켜 인류 통일에
혼신을 다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 우리 한국을 크게 빛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
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가 가시
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안중근 -2002.1.31-

12) 이시이 슈안(石井周庵) 도학협회를 설립하였음

— 이곳에서 원리운동과 메시아사상을 깨우쳐 나가는 일에 주력하
겠다 —

나 이시이 슈안은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전일본을 대
표하여 한국 민족에게 사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 나라와 한국 국민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섭
리적으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계획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윤
리적으로 한국 민족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
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곳 천상에서 일본과 한국간의 문제
에 대하여 일본은 철저히 사과할 것이며 어떤 수모도 감당할 것
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님으로서 민족간의 감정을 관대하게 풀어 주시고, 일본 국민과 나라를 용서해 주셨으니, 일본도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이 되어야 후세가 복 받으리라 믿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그 보답의 길은 참부모님을 혼신을 다하여 모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라도 저희들은 원리운동과 메시아사상을 깨우치고 그것을 전파하는 운동에 주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국 국민들이여, 일본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지상의 일본인들은 한국 국민에게 저지른 오류를 후손들에게 진실하고 참되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위하는 세계입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세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여, 진심으로 한국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길 바랍니다.

이시이 슈안 -2002.2.2-

4. 이슬람 대표 12인

1) **아부 바크르**(Abu Bakr) 634사망, 1대 칼리파(Caliph), 무하마드의 장인

—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절대복종할 것이다** —

우리가 존경하던 무하마드님은 항상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하마드님의 훈시를 무조건 ‘예’ 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복종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들은 통일원리를 여러 차례 청강하였는데, 그 때마다 무하마드님이 우리의 자세와 몸가짐, 그리고 태도에 대하여 불호령을 내리거나 호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녀다운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무하마드님은 며칠 전부터 우리들을 모

아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법도 가르치셨다.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문선명 선생님께 경배를 올리고 무하마드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분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유교의 하나님, 그 외 모든 종단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이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종단의 선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 나라 창건에 전력을 다할 것이오니, 우리 모든 이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통일원리를 찾기까지 수고하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참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토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무하마드님은 천지가 진동하듯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기도가 끝나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세’를 불렀다. 나 아부 바크르는 무조건 복종할 것이다. 나는 통일원리의 소감을 발표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이미 통일원리를 여러 차례 청강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나는 여기에 전도 활동에 필요한 강의실력을 쌓으려고 참석하였다. 통일원리의 연구는 끝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무하마드님

은 통일원리를 수 차례 들으시고 결정한 사실이니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할 때까지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절대복종할 것이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아부 바크르 —2002. 3. 12—

2) 오마르 이븐 카랍(Umar ibn al-khattab) 634~644, 2대 칼리파

— 4대 성인들이 하나된 모습은 너무도 감동적이고 감격스럽다 —

석가세존이 무하마드 우리 지도자와 대단히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카랍은 보았다. 처음엔 그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친분이 두터울 수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 불교인의 세미나가 끝나고 지금은 이슬람들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석가세존은 여전히 이 자리를 같이하셨다. 너무도 궁금하였다. 나 카랍은 석가세존의 인품에 감동하였다.

나의 궁금증은 바로 풀렸다. 통일원리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통일원리는 광범위한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다. 인간 창조에 대하여, 인류역사의 출발과 방향성에 대하여 어느 하나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 통일원리의 근본 가르침은 인류는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동산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고 다 가야 할 길이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비켜 갈 수 없는 천도의 길이다. 통일원리는 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그래서 하나님은 문선명 선생님을 참부모로 세우시고 인류를 원죄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지상이나 천상의 모든 인류는 나뉠대로 탕감조건을 세우고 참부모님을 주례로 모신 가운데 축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사들은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창조이상의 본연의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요,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나 카뎀은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을 무척 존경한다. 특히 4대 성인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니 그것은 너무도 감동적이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Ibn Mas'ud) 사하바 시대 학자, 꾸란 해설 학 정착에 기여함

— 참부모님은 인류의 원죄를 청산해 주신다 —

나 마스우드는 항상 무하마드의 가르침과 정열에 크게 감동하였다. 그런데 최근 무하마드의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이다. 그분의 생활에 있어서 예전보다 사랑과 배려와 관용이 현저하게 나타남을 느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통일원리를 듣고 난 이후부터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인종의 장벽과 종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없었는데 통일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러분도 통일원리를 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진리와 강사들의 열강과 정성에 크게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은 자신들의 철조망을 너무 굳게 치고 있어서 종교문제 해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하시며, “이제 새 복음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우리 이슬람들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자.”고 하시며 굳게 결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기 명단에 등재된 인물 외에 많은 이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그들 모두는 대단히 감동하였다. 나 마스우드는 무하마드의 가르침과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합작한다면

이슬람 신도의 진리 전파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한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등극하셔서 인류의 원죄를 청산하는 구세주의 책임을 수행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새 진리를 중심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한다.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2002. 3. 13—

4) **아비 빈 카압** 사하바 시대 학자, 꾸란 해설학 정착에 기여함

— 이슬람들은 인류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온 것 같다. 지상과 영계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영계에서 지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의 자격을 부여받으시고 통일원리라는 대경전을 인류에게 주셨으니 나 카압은 생애에 최고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반적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지만 통일원리는 진리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인간시조의 출발에서 내세관까지 모든 천비를 명백하게 체계적으로 밝힌 진리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것이다. 통일원리는 대진리요, 대경전이요, 참부모님의 가르침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히셨을까? 인류역사의 배후에 숨겨 놓은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연을 어떻게 밝히셨을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곡절 많은 사연들이었다. 이제 올바른 인생관이 밝혀졌다. 우리는 가진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이슬람들은 무하마드님의 정신을 닮아 더더욱 용기 있게 인류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새 진리에 의하여 새로운 인격을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비 빈 카압 -2002.3.13-

5) 알 마와르디(Al-Mawardi) 974~1058, 마와르디파 설립자

— 통일원리의 출현은 시든 초목에 단비가 내린 것과 같다 —

우리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무하마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복을 주셨다. 우리 영혼의 삶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신 무하마드님 감사합니다. 통일원리는 이슬람은 물론 전인류에게 광명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것은 마치 시들어 가는 초목에 단비가 내려 초목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과 같다. 지상에도 천상에도 수많은 교파와 사상이 있지만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한 진리와 경전은 없었다.

악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은 애매모호하였다. 어느 경전일지라도 일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 인류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근본적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인간 창조로부터 미래 내세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인간의 두뇌로써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통일원리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문선명 선생님의 역사적인 수고와 정성이 온 인류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을 주고 있다.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마와르디는 무하마드를 지도자로 모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하나님, 참부모님, 만만세! 감사합니다.

알 마와르디 —2002. 3. 14—

6) 아미르 알 샤아비 이라크 학파 대표주자

— 나의 일생의 궁금종이 풀렸다 —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

님을 직접 본 자도 없고 만난 자는 더더구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아무리 많은 재물, 위대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병들면 의사에게 고쳐 달라고 매달려야 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요청한다. 밤낮으로 빌고 기도하며 절하는 것을 어리석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요청한다.

통일원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후 인간조상의 잘못으로 인간과 부자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았다 하더라도 복귀섭리역사를 경륜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승리하셨던 것이다. 이로써 자녀로서의 인류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찾으셨다고 생각했다.

문선명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참부모님으로 등극하시기까지 수고를 어찌 갚으오리까? 나 알 사아비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생의 궁극증이 풀렸습니다.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인류의 대복음이요, 대경전으로 남아질 것입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부모

님을 모시고 인류의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아미르 알 샤아비 — 2002. 3. 17 —

7) 루흐빈 이바다 알바스리 무하마드 사후 하디스 기록에 헌신한 유명한 학자

— 이슬람들이여, 하루빨리 축복식에 참여하라 —

나 알바스리가 통일원리를 접하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인 것 같다. 지상으로부터 120명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 것에 감사한다. 이번 이슬람 세미나가 아닌 다른 종교인의 세미나에서도 나는 여러 번 통일원리를 청강한 바 있다. 그때 통일원리에 적지 않은 감동과 감격을 받았는데 이번은 나의 특혜 기간이 되어서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쁘다.

나는 지상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고자 한다. 이슬람들이여,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경전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무하마드와 함께 통일원리를 청강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하였다. 우리 이슬람들도 하루빨리 통일원리를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자고 결의하였다. 지상의 여러분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 주서

서 인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참부모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상의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원죄 청산을 위하여 축복식에 참여할 길 바란다.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축복의 의의에 대한 것은 통일원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그것을 자세하게 정독하고 이처럼 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나는 통일원리를 여러 번 많이 청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골고루 분석해 봤다. 그것은 이 시대의 새 진리요 주류사상이다.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위한 통일운동에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간곡히 부탁한다. 명심하라.

루흐빈 이바다 알바스리 —2002. 3. 18—

8) 압둘 알라자 빈 함맘 무하마드 사후 하디스 기록에 현신한 학자

— 통일원리를 전인류에게 증거할 것이다 —

나 함맘은 통일원리를 듣기까지 체험을 여기에 공개하고자 한다. 통일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인지, 누가 강의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거인의 남자가 꿈속에 나타나 나의 머리 위에 한 권의 책을 두고 사라졌

는데 그 책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 책의 광채가 온 방 안을 환하게 비춘 후 사라지고 나만 홀로 우뚝 서 있었다. 나는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것이 무슨 정조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인이 다시 나타나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서둘러라.”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이상한 꿈의 현상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슬람들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나는 출입구에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실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책이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런데 참석자들이 가지고 가는 책은 한결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어젯밤에 나타난 거인이 바로 맨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나에게 오지 않고 사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그분이 다름 아닌 참부모님이시다.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다. 특히 뒷등에서 뜨거움이 왔다. 그때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다. 통일원리 강의가 계속되는데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의 사정과 문선명 선생님의 사정,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통일원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나에게 ‘빨리 일어나라. 서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대하고 엄청난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받고도 잠잠하게 있다면 그는 이미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일 것이다. 인류의 참부모님, 참스승이 ‘빨리 서둘러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분의 섭리적 경륜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통일원리의 중요성을 찬란한 광채로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통일원리를 전인류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인생이 알아야 할 엄청난 경전이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알았습니다. 서둘러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슬람들은 물론 전인류가 통일원리화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압둘 알라작 빈 함맘 —2002. 3. 19—

9) **라비아 알 아다위야** 이슬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 성인, 철저한 금욕주의자

— **해와의 원죄를 내가 대신 탕감조건을 세우고 싶다** —

하나님이 바라셨던 인간 창조목적에서 나 알 아다위야는 이 탈자가 되었기에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섰다. 죄인은 벌

을 받는 게 당연한 처사인데 어찌하여 거룩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해아렸더라면 효녀의 자리에 섰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슬람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깨우쳐 주는 지도자가 없었다. 이제 통일원리를 듣고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해아렸으니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통일원리를 밝히시고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통일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있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인가의 여부는 통일원리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 통일원리 강의를 들어 보면 그것을 금세 알게 된다. 나는 전 이슬람들에게 통일원리를 듣기를 간절히 권유한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께 한 가지 간청을 올리고 싶다. 인간조상 해와의 원죄 탕감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당시 해와의 원죄는 모든 여성에게 악조건으로 남아져 있는데 내가 해와 대신에 탕감조건을 세우면 그것을 받아 주실 수 있는 지? 통일원리는 탕감법을 설명하였는데, 나는 남자를 원하지 않았으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탕감조건을 세우고 싶다. 앞으로 참부모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사오니 크게 배려하여 주소서.

10) 압둘라 알라위 열두 이맘파 꾸란 해설학자

— 참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을 찾아라 —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두 가지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지상생활을 할 때 육신의 생활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낸다. 나 알라위는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고 생각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본연의 동산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연의 동산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인류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곳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분명히 알았다. 통일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이중구조를 깨달았다. 누구나 다 필히 와야 할 이곳인데 먼저 온 자로서 지상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산다. 육신은 지상생활 할 때만 필요하고, 영인체는 육신을 벗은 후 천상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지상에서 순간적인 육신의 삶의 결실로 이곳 천상에서 영원한 삶의 자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영인체의 영원한 삶의 처소는 지극히 관심하지 않고 살아왔다.

지상인들이여, 이슬람들이여, 영인체가 영원히 행복하게 머물 물 처소는 지상에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잘 살다

가 천상으로 와야 하는데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인류의 종적 참부모님이시며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횡적 참부모님이다. 참부모님이 인류에게 밝히신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여기서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는 통일원리를 연구하고 참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지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준비해야 할 일련의 기본 요건을 통일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부탁한다. 그것은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준비해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바로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충신이 되는 길이며, 인류 세계에서 성인, 그리고 천주에서 성자가 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라.

압둘라 알라위 —2002. 4. 2—

11) 마히알 딘 누와위 하디스 학자

— 통일원리는 한 교단의 교리나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 —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자의 관계인 것을 지상과 천상의 어느 누구도 몰랐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밝혀지기를 수천년 동안 기다려 오셨다. 이것은 통일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대부분의 이슬람들은 이것에 크게 감동한다. 그들은 감격한 나머지 울거나 통곡한다. 나 알 누와위는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시라면 이제 인류의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인류 전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전인류에게 전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한다. 나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통일원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방대하며, 그 체제에 있어서 논리의 정합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통일원리를 청강한 이후부터 여러 차원에서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다.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에서 뜨거운 불기운이 솟아오르거나, 마음이 무척 맑아지고 밝아지고 상쾌해진다. 이러한 체험을 처음엔 느끼지 못했다. 강의실에 들어오면 그러한 체험이 계속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없어진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엎드려 기도하면 온몸은 불덩이 같이 되어 버린다. 강사들은 하나님은 불이시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대부분 온몸이 뜨거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세문제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누구나 통일원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은 한 교단의 교리나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참부모이시다. 온 인류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참부모사상은 평화사상이요, 인류가 하나되기 위한 사상이다. 온 인류의 갈 길은 정해졌다. 하나님주의다. 참부모사상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따르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다.

마히알딘 누와위 —2002. 4. 3—

12) 무하마드님이 참부모님께 올리는 글

— 참부모님께 올립니다 —

참부모님!

저는 무하마드입니다. 우리 이슬람 120명은 모두 참부모님 사상으로 뭉치고 단결할 것이며, 이슬람들뿐 아니라 타종교의 단합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들은 처음부터 120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두 동참하여 기도하고 정성들이며 하나님사상과 참부모님의 수고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일 시간마다 눈물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닥터 리께서는 지상의 한국의 초창기 분위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슬람을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무하마드 —2002. 4. 3—

5. 힌두교 대표 12인

1. 4대 성인의 격려 메시지

1) 무하마드님이 힌두교 지도자들에게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저는 이슬람 지도자 무하마드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세미나에 참석하여 통일원리를 듣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통일원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원리는 우리의 두뇌로 판단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이슬람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슬람들이 통일원리를 청강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슬람들이 통일원리를 듣게 된 계기는 여기 계신 닥터 리(이상현 선생)의 여러 차례 권유와 그분의 인품에서 연유되었습니다.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근거지도 바로 한 곳뿐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제가 통일원리를 먼저 들었으니 여러분의 형이며 오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드립니다. 통일원리를 자세히 똑똑히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저의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확실히 책임질 것입니다. 이 세미나가 끝나면 그때 우리들 모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비우시고 오직 통일원리에 전심전력하소서. 여러분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하마드 -2002, 4, 7-

2) 공자님이 힌두교 지도자들과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교 지도자 공자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무하마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 4대 성인들, 성 어거스틴,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함께 자주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근본 동기는 통일원리에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는 서로서로 무척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원리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종단의 사상적 이념적 장벽이 하나하나 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이 얼굴 때문에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본래의 인간 모습을 찾고 싶

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원리가 그것을 찾아 주었습니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심정세계를 체험케 하고 옳고 그름을 모두 밝히면서 심적 고민과 고통을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통일원리는 인간을 재창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념과 사상은 어디서 유래하였으며, 여러분이 모시는 신은 누구입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통일원리를 듣게 되면 양심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시에 절대복종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될 수밖에 없는 근본 진리를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의 주제도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 자 -2002. 4. 7-

3) 예수님이 힌두교 지도자들께

사랑하는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 불효자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한결같이 동일한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종단의 갈등, 사상의 갈등,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자님, 석가세존, 무하마드님 모두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원의 종교가 생겨서 자신의 가르침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때때로 싸웠습니다. 4대 성인들이 하나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인류의 부모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엄연히 계셨는데 우리 모두는 부모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지상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비의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부모님이란 승리의 칭호를 받으시고 전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현현하셨습니다.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화사상으로 하나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문선명 선생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통일원리를 자세히 들으시고 마음의 지시를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부모이십니다.

예 수 —2002. 4. 7—

4) 석가세존이 힌두교 지도자들에게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저는 석가입니다. 불교계의 지도자

석가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고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것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석가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어서 저도 엄청난 성인들과 한 자리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인간은 저마다 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말입니다. 인간은 왜 신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인간의 공통적 사실입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리가 만난 신의 모습은 다르다 하더라도 신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의 원인자가 누구이든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힌두교 지도자 여러분, 석가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통일원리를 듣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과 구조가 같다는 것은 부모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4대 성인들과 성현들은 모두 하나되어 자신들의 견해를 토론하고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였습니다. 통일원리는 그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대 성인들과 성현들은 힌두교 여러분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사

상과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석 가 -2002. 4. 7-

2. 힌두교 대표 12인

1) **야즈나 바르가(Yajnavalkya)** 화이트 아주르베디를 집필한 고대 현인

—4대 성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4대 성인들과 성현들께서 힌두교를 위하여 이토록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무하마드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곳에 나오시어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지상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됩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4대 성인들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하나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이 하나된 것은 통일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나 야즈나 바르가는 처음부터 통일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하여 무척 생소합니다. 힌두교인

모두는 먼 나라에서 처음 이곳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힌두교에 있어서 통일원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4대 성인들이 하나되기까지 고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에겐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4대 성인들의 모습을 닮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원리가 너무 생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지상의 문선명 선생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즈나바르가 -2002. 4. 14-

2) 스베타케투(Svetaketu) BC 800, 힌두교 진리서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성인

—통일원리는 힌두교의 경전이 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으니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을 보낸 것 같다. 우리를 낳아 준 육신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남의 부모를 부러워하고 섬겨 온 것과 같다. 통일원리는 그냥 무심코 듣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통일원리의 전반적

내용은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르침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에게 너무 생소하지만 힌두교인의 생활에 절대 필요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힌두교인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산만하였다. 힌두교인만이 모시는 유일신도 없었고 절대적 경전도 없는 가운데 자유스런 신앙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이제 통일원리세미나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스베타케투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공식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아직 통일원리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통일원리는 우리 힌두교의 경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통일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힌두교의 참부모님이 되실 것을 믿는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베타케투 —2002. 4. 9—

3) 마이트리(Maitri) BC 800, 힌두교 진리서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성인

—우리의 행동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것이다—

힌두교인들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우리들의 손을 잡아 주시며 격려하시는 4대 성인들의 모습을 체험할 때 우리들

은 통일원리를 듣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마이트리는 힌두교인들에게도 받지 못한 따뜻한 사랑과 이해를 4대 성인들에게 받았다. 4대 성인들은 한결같이 통일원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인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질문이 없어진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살피 주셨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흐뭇한 감정을 체험해 보았다. 나는 통일원리를 듣기 전부터 그런 기분으로 통일원리 강의에 임하게 되었다.

과연 통일원리는 문자 그대로 통일원리임을 자각하였다. 이번 교육장소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공식적인 길을 안내하는 수련장이다. 통일원리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생활의 지침서이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인데 인간 개개인 혹은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그릇된 길일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나 통일원리를 권하고 싶다. 통일원리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우주와 인생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이처럼 엄청난 가르침을 밝혀내신 분은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강사들은 소개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이것을 밝혀내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강사들에 의하면 하나님께

서 그분에게 참부모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제 지도를 받아야 할 참스승과 참지도자가 계시니 무척 감사하다. 지금은 다소 어설피고 서툴지만 우리는 근본적 핵심을 알았으니 우리의 행동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것이다.

마이트리 -2002. 4. 10-

4) 카우시타키(Kausitaki) BC 800, 힌두교 진리서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성인

—힌두교인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 중 가장 고차원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격위에 위치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힌두교인은 하나님 앞에 불효 중 불효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다. 나 카우시타키가 통일원리를 듣게 된 근본 동기는 4대 성인들의 사랑과 말씀에 있지만, 듣고 보니 통일원리 자체는 누구나 듣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의 귀중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칫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살았다. 그러나 바른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힌두교인들은 여러 신을 찾게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신을 모시는 사람들을 수없이 기다려

오셨을 것 같았다. 우리 힌두교인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 없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허송생활하였다. 흘러간 세월이 무척 아까웠다. 하나님은 부모이기에 자녀를 버리지 않고 찾아 주고 기다려 주셨다. 교단의 책임자도 없이 우리들 멋대로 살아온 힌두교인들을 4대 성인들이 알뜰하게 보살펴 주시고 일일이 챙겨 주시니 우리들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통일원리를 밝히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을 참부모님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 인간 삶의 종착지라고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 4대 성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통일원리 강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새 진리를 소개해 주셔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우시타키 —2002. 4. 11—

5) 아루니(Aruni) BC 800, 힌두교 진리서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성인

—하나님을 모시고 바른 길을 갈 것이다—

나 아루니가 이처럼 귀한 명단에 기록된 것을 영광 중의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원리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인간의 바른 지도자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적지 않게 노력하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찾게 되었다. 벽찬 감동과 흥분 그것이 나의 전부이다. 인간에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에게 의존하는 인간과,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그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힌두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가엾했다. 엄청난 제물을 바치고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옳되려 간구하는 처절한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하나님, 힌두교인들도 긍휼히 보아 주소서. 이제 우리들도 새 진리를 깨우쳤으니 하나님을 모시고 바른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하신 문선명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알았다. 참부모님, 뵈는 적은 없지만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종류의 혼돈과 갈등 속에서 정도를 찾아 주셨으니 황공하고 감사합니다.

6) 만두크야(Mandukya) BC 800, 힌두교 진리서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성인

—통일원리는 인류의 평화사상이다—

통일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이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살면서 깨우치면 간단한 것이었는데 창조주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했다. 마치 물품의 주인공을 모르면 그 물품의 용도를 모르듯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다. 힌두교인은 여러 신을 섬긴다. 따라서 힌두교인에겐 여러 차원의 신관이 있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신관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서로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 만두크야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흡족하게 해명한 사상이나 철학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4대 성인들은 문자 그대로 인류역사의 위대한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떠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되어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셨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통일원리의 위대성을 짐작할 만하였다. 내가 통일원리를 직접 들어 볼 때 그것은 인류가 따라야 할 당연한 가르침이며 전세계인의 경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뿐인데 항상 흩어져서 서로 사정을 모르고 살았으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

량이 없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 없는 가운데 자식들은 서로 자기의 것이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통일원리는 인류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평화사상이 확실하다. 4대 성인들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을 볼 때 통일원리는 확실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사상을 밝혀내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부모님, 온 인류의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통일원리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크야 —2002. 4. 12—

7) **피파라다(Pippalada)** BC 500, 힌두교 진리서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성인

—우리는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피파라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모시지도 못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해 보지 못했다. 이러한 불효자들을 하나님은 모두 불러 주시고 조금도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통일원리는 나의 그릇된 지난 과거를 쿵쿵 두드렸다. 그때마다 나의

모든 악습이 뽑혀 나가고 그 자리에 새순이 돋아나는 듯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맑고 수줍은 모습을 하고 다소곳이 서 있는 소녀가 된 듯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왔습니다. 소식을 이제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참부모님이라고 강사는 소개하였다. 그분을 직접 뵈는 적은 없지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통일원리는 인간이 필히 걸어야 할 공식이다. 그동안의 힌두교인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이 아닌가. 힌두교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특히 부모의 사랑의 뜨거운 체험하여서 무척 감격하고 있다. 이제 우리 힌두교인들이 잡다하게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하나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도 통일사상과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였다. 감사합니다.

피파라다 —2002. 4. 12—

8) 마누(Manu) BC 200, 힌두인의 윤리 지침서 ‘마누 법경’ 저술

—나는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

통일원리를 다 듣고 나니 마누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

다.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대단히 죄송함을 느낀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혈통적 원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였다. 근본 문제를 모른 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율법이나 법경을 정해 놓고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할지라도 인간의 원죄는 결코 청산될 수 없었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 나의 지력으로써 통일원리의 어느 부분도 평가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심과 인간의 부모라고 밝혀 주신 점과, 문선명 선생님이 참부모님이라고 밝혀 주신 점만 해도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한한 만족을 느낀다. 하늘과 땅을 통째로 얻은 감격을 느낀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4대 성인들이 우리들의 선배처럼 아무 거리감 없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배려해 주시며 하나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일원리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통일원리는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나도 통일원리를 믿고 따를 것이다. 나는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진실로 감사함을 느낀다.

9) **브야사(Vyasa)** BC 500, 힌두교 경전 '마하브하라타'(약 9만 연의 서사시)를 집필

—우리는 인류의 참부모님을 믿고 모실 것이다—

나 브야사가 이처럼 영광의 반열에 참석한 것은 누구의 공로일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이시기에 나를 찾아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며칠 전 통일원리를 듣기 전의 일이다. 4대 성인들이 하얀 뭉게구름 속에서 두둥실 구름을 타고 가다가 모두 사뿐히 조용히 내렸다. 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들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깜짝 놀라서 깨어 보니 그것은 순간적 환상이었다.

그런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본 곳은 원리강의소였다.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강의소는 온통 붉은 불빛으로 변하였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초연히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하나님은 불의 모습이란 사실, 그리고 4대 성인들이 모두 똑같은 옷차림으로 하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통일원리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100퍼센트 이상 믿을 것이다. 그것을 뜨거움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을 우리는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믿고 모시고 가겠다. 감사와 영광의 심정으로 통일원

리로 굳게 무장하겠다.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브아사 —2002. 4. 12—

10) 카피라(Kapila) 초기 힌두교의 철학자, ‘삼크hya(마음과 물질의 이중체) 철학체계 정립

—통일원리 강사가 되고 싶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신의 실존을 깨달았고 인간이 가야 할 본향을 알았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며 참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일원리는 온 인류의 경전으로 삼아야 할 새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힌두교인은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하나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원리를 널리 보급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통일원리를 몰이해하는 자들에게 무궁무진한 재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 중에서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우수한 강사를 무하마드님께서 모집한다는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온 인류는 한 형제자매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

님, 참부모님, 만세!

카피라 —2002. 4. 18—

11) 나라다(Narada) 고대 설화에 등장하는 전설적 성인이며 음악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 나라다는 통일원리를 접한 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다. 마음이 무척 상쾌하다. 마음의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마음과 마음은 멜로디로 연결된 것 같다. 나는 통일원리를 듣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다. 무하마드님은 원리강의를 잘 하시지만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강의뿐만 아니라 찬양도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멋있고 품위 있는 멜로디를 작곡하고 싶다. 그리고 가사도 붙여서 강의시간마다 찬양하기로 결심하였다.

통일원리는 모든 인류를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슬픔을 이제 힌두교인들이 몽땅 씻어 드리고 싶다. 무하마드님은 많은 강사들이 나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하여 이곳 천상세계에 통일원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자고 다짐했다. 지금 모든 힌두교인들은 꿈에 부풀어 있다. 하나

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참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일하겠습니다.

나라다 —2002. 4. 18—

12) **카나다(Kanada)** 인도 철학의 ‘바이췌쉬카’ 학파를 정립한 성인, 물질의 원인은 원자이며 원자의 동인은 신이라 함

—통일원리 전파에 전력할 것이다—

통일원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과 인간은 뗄 수 없는 부자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도 먼 거리에서 살아온 것이다. 나 카나다는 그 점이 무척 죄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 중 축복이다. 우리 인간이 참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며 인생의 근본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참부모님은 참으로 귀한 어른이다. 참부모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통일원리는 어느 종단에만 속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걸어야 할 공식노정을 세밀하게 밝혀 놓은 진리서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듣기만 하면 그것은 인간의 두뇌에 의한 내용이 아님을 즉각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 타락의 근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전에 먼저 그것은 어느 종단의 가르침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힌두교인은 참부모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통일원리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통일원리를 직접 전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

캐나다 -2002. 4. 18-

영계 공산권 대표 통일원리세미나 보고서

1)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독일 라인지방의 트리에르에서 출생, 마르크시즘 정초

—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 존재한다 —

마르크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만인류의 부모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나 마르크스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외쳤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 나는 이상현 선생을 이곳 천상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나 사상적 측면에서 몇 차례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신기한 내용을 듣고 크게 매료되었다.

이상현 선생의 하나님주의 강의를 차근차근 들을 때 나는 나의 사상적 패러다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함을 실감하였다.

한편으로 나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나는 하나님주의를 들을 때 꿈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꿈은 아님을 알았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나의 가슴에 충알처럼 뜨겁게 들어왔다. 나는 그 빛과 함께 공중을 한 바퀴 선회한 후 비참한 현장을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곳은 소위 지옥인 것 같다. “여기를 보라. 불쌍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곳에서 저토록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구출하라. 그리고 너는 책임져라. 하나님은 전인류의 부모이니라.”라는 음성이 들려 왔다.

나는 비에 흠뻑 젖은 사람처럼 전신에는 땀방울로 뒤범벅이 되었다. 너무도 비참한 현장을 보았다. 나는 가슴이 메이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이상헌 선생에게 이러한 순간적 체험을 털어놓았다. 이상헌 선생은 “그것은 선생의 몫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만 했다. 내가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체험한 이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것을 느꼈다. 이상헌 선생은 나에게 새로운 사상적 측면을 인도해 주었다.

천상천하의 사상가들이여! 나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였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르크스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을 지상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셨습니다.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온 인류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 준 천리원칙

이니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나 마르크스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천명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마르크스 -2002. 4. 18-

2) 엥겔스(F. Engels) 1820~1895, 마르크스의 필생의 동지, 마르크시즘을 정립

— 통일원리가 나 엥겔스를 살렸다 —

천지조화를 바라보고 인간의 생리구조와 모습을 보고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던 무지한 지난날을 이곳 천상세계에서 바라볼 때 나 엥겔스는 할 말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나의 경우가 지상과 천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일종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통일원리 교육의 소감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닌 어떤 신도 믿지 마라.

나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으로서 지상생활에서 신을 무시했다. 나는 지상에서 지낼 때 현실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신을 찾는 사람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로 여겼다. 지상 삶은 순간적 삶이며 한 치의 앞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삶이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지상생활을 보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의 존재까지 부정한 나 자신이 천상으로 왔을 때 참으로 비참했다. 이곳 천상의 생활은 지상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의심하였다. 나의 비통한 심정을 여기에 일부라도 토로할 수 있겠는가? 신과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 나 앵겔스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지상인들이여! 지금부터 앵겔스의 고백을 들어 보라. 처음 천상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점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함께 통일사상과 통일원리를 접한 후 그동안 고민하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나의 고민거리가 풀리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란 고통이 나에게 엄습하였다. 이상헌 선생은 나를 살렸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 통일사상 강의를 들을 때 나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통일사상은 신의 실존에 대하여 잔인할 만큼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때 나 앵겔스에겐 이상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거인이 나타났다. 웬지 무섭고 떨려서 쳐다볼 수 없었다. 거인은 나에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라고 하더니 얼굴을 보여 주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앵겔스는 그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나

무도 이상하여 자세히 쳐다보니 그는 큰 사진 앞에 우뚝 서서 “나를 따라라. 그 길은 너 앵겔스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요, 해결해야 할 길이다.”라고 아주 조용히 타일렀다. 그렇지만 앵겔스는 공포에 휩싸여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이상헌 선생께 저분은 누군가 하고 물어봤다. 이 선생은 “통일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선생이시며 그분은 인류의 참부모님이십니다.”라고 하시며 모든 사연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앵겔스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상헌 선생은 앵겔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부모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니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참부모님과 하나님도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를 구하고자 인도하십니다.”라고 나의 마음을 달래 주며 용기를 주었다.

지상인들이여! 특별히 신은 없다고 고집하는 사상가들은 정신을 똑바로 가다듬어 천지만물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 계심을 앵겔스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세는 존재합니다. 지상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붙드소서. 여러분이 앵겔스처럼 비참한 경지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면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공부하시고 지상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시오. 이것이 앵겔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를 따라야 산다.’는 문선명 선생님의 계시를 앵겔스는 체험했습니다.

다. 지상인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시오. 이것이 앵겔스의 사명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십니다.

앵겔스 — 2002. 4. 18 —

3) 레닌(Vladimir Ilyich Ulyanov) 1870~1924,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1917년 10월 혁명을 주도,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추대 받음

— 공산주의 국가는 하루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시오 —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나 레닌을 여러분은 맹인이라고 규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지상에 남아 있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주의로 변화받는 것이다. 내가 이곳 천상에 왔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천상과 지상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곳의 삶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지상의 삶과 구별할 수 없었다.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나 레닌은 이곳의 모든 것이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나는 영혼의 영원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이곳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였지만 나는 그런 체

힘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후회하고 한탄하게 되었다. 수많은 갈등의 늪에 빠진 채 나는 지금 이곳에서 결인의 심경으로 지내고 있다. 공산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상에서 ‘어느 누가 반드시 공산주의를 멸할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상에서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이상헌 선생으로부터 통일사상과 통일원리의 우주관 세계관 그리고 미래상을 접하게 되었다. 수많은 날들을 혼란 속에 살아온 나는 그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하나님 앞에 대역적으로서 나의 처참한 모습을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지상생활에서 나의 이기심과 무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무지에서 오는 고통을 당할 때보다 진리를 깨달은 지금의 심정이 오히려 편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부모 앞에 창칼을 들고 부모가 없다고 외치며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공산주의 혁명의 최조선동분자가 되었다. 지상의 공산주의자들은 나 레닌의 애절한 체험을 똑똑히 기억하라.

이상헌 선생은 문선명 선생님이 밝혀내신 통일원리를 듣고 자신의 직업인 내과 의사의 자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모든 인생문제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나는 이상헌 선생에

게 단독으로 통일원리 강의를 많이 들었으며 그분과 상담도 적지 않게 하였다. 어느 날 나는 통일원리 강의를 듣고 전될 수 없는 심적 아픔을 느꼈다.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파가 내 앞에서 쓰러졌다. 그 노파는 자신의 가슴에 꽂힌 칼을 붙잡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라도 좋은 일을 해 보자.’고 하며 노파를 부축하고 칼을 뽑으려고 할 때 무서운 음성이 내 귓전을 맹렬히 내리쳤다. “나 여호와와는 아직 살아 있다. 너는 여호와의 자녀이다.”라고 외마디를 남기고 노파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내 귀는 멍멍해져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다. 공산주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통일사상과 접목이 되어야 실현된다.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복이 있거늘 하물며 천지부모인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런 인간은 잔인하게 망하고 말 것이다. 나의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지만물의 조화를 가만히 보라. 천지만물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그분께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임을 명심하라.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의 위상을 지킬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망한다.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 있다. 공산주의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뿐이다.

그리고 통일원리를 자세히 공부하시오.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깊이 연구하시오. 그렇게만 하면 자유진영의 어느 사상가, 정치가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모시는 것이 될 것이오. 참되게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수없는 고민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오. 이것은 간절한 부탁이오. 공산주의 국가는 하루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났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소. 이것은 천상에서 나 레닌의 피명이 맺힌 마지막의 하소연이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셨습니다.

레닌 -2002. 4. 19-

4) 스탈린 (J.V. Stalin) 1879~1953, 레닌의 후계자로 소련 공산주의사회 구축

—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셔야 한다 —

인간의 생명은 유일 존재였고,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기간도 두 번 다시없는 유일한 기간이었다. 나 스탈린

은 독재자요 미치광이었다. 지상에서 나의 생애는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진솔한 외마디 표현이다. 나는 통일사상과 통일원리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나의 죄를 탕감할 길은 여전히 없는 것 같다. 통일원리가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고 통일원리를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나 자신의 구제의 길이 없기 때문에 무척 괴롭고 슬픈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지상인에게 영계의 실상을 전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곳 영계에서의 나의 삶과 실상을 지상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전달한다.

공산주의 국가의 여러 동지들이여, 나는 스탈린이다. 여러분은 확실히 잘못 살았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니 빨리 돌아와야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의 삶이 그토록 용감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왜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가? 인간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육신은 죽게 되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다.

여러 동지들이여, 영혼의 삶은 지상에서의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처소가 정해진다. 우리들은 잘못 살았다. 우리들의 가장 큰 잘못은 우주의 근본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했던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앞날을 전혀 모르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목청 높여 부정하

고 살고 있지 않는가? 지상에서 나의 그러한 삶이 이곳에서 이
토록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부모님이
었다. 하나님은 어느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흔히 부르는 존재
가 아니라 전인류의 부모님이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동안 얼
마나 미치광이 노릇을 하였는가? 여러 동지들이여, 나는 스탈린
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과 크리스마스 경축 잔치를 보았을 것이다. 여러 동지들은 그들
에게 나약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다고 비웃었던 그들은 천상세계에서
나름대로 지내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었을 때 그들은 우리들을 측
은하게 바라보며 사랑했고, 하나님도 우리들을 애처롭게 바라
보셨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지옥의 가장 밑창에서 지내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곳의 우리들은 서로서로 인간
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면서 살고 있다.

나 스탈린은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여러 동지들, 천상세계의 영혼의 삶
의 처소는 권력과 명예와 황금으로 정할 수 없다. 여러 동지들
의 참다운 삶의 가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처소가 정해진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셔야 한다. 둘째, 우리의 삶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이곳의 나의 삶의 처소에서 이상헌 선생은 나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니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수없이 위로하셨지만, 나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으니 그것이 가장 괴롭다. 이제 여러 동지들은 지상에서 수고하시는 문선명 선생님의 뜻을 100퍼센트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큰 예배당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 놓고 예배를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투사투하신다. 그 어른은 우리 인류, 특히 공산국가의 구세주이시니 그분의 평화사상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모셔야 공산국가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 동지들이여, 나 스탈린을 구하여 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여러 동지들의 삶이 하나님주의로 바뀌어질 때 천상에서 내가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천상의 삶도 영원히 존재한다. 나의 마음이 지옥에서 해방되고 싶다. 지난날 하나님을 부정한 독재자, 나 스탈린이 지상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전심(全心)으로 호소한다. 하나님을 믿고 찾으라.

스탈린이 천상에서 호소한다.

스탈린 -2002. 4. 19-

5) 마우쩌둥(毛澤東) 1893~1976,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 철저히 하나님주의로 살아갈 것이다 —

한번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마우쩌둥은 참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면 깊숙이 숨어 버리고 싶다. 나는 나의 추종자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기를 바랐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기를 갈망했다. 이러한 사람이 어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4대 성인들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라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소개하면서 4대 성인들이 하나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충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너무도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사람의 대접을 받아 보았다. 나는 지상의 기독교인들과 공산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곳에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겠다.

나는 큰 고목나무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곳을 가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고목나무 밑에서 추위와 더

위를 피하면서 살고 있었다. 나의 은신처가 이곳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짐작할 것이다. 이제 솔직히 털어놓고 나니 마음의 괴로움이 풀어진 것 같다.

여러 동지들이여, 온 인류들이여! 하나님주의가 아니면 인류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영혼의 세계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밝혀내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우리 공산권을 살려 주소서. 멸망의 직전까지 하나님의 특명으로 인류를 구하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참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를 구하여 주셨으니 저는 철저히 하나님주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우쩌뚱 —2002. 4. 20—

6) 덩샤오핑(鄧小平) 1902~1997, 마우쩌뚱 이후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 공산주의는 인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옥의 해방과 공산권을 살리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선명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덩샤오핑은 공산당원들이 새 출발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나 덩샤오핑이 지상에서 이곳 천상으로 올 때 수십 명의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이곳으로 인도되었다. 그들에게 계속 끌려오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냥 맥없이 그들에게 끌려오면서 나의 권력이 무력함을 확실히 실감하였다. 그들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르자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두고 가 버렸다.

그곳엔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으스스한 곳으로서 시궁창 같은 높이 옆에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가 어딘가? 사망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모습은 물론 인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살펴보아도 높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나갈 수 없었다. 조금만 나가면 높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배가 고프고 한때는 춥고 한때는 몹시 더웠다. 그리고 때때로 칠흑 같은 흑암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한없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여기가 어딘가? 영원불멸이라는 영혼이 와서 사는 곳이다. 수많은 날을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어느 날 나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였다. 그분의 권유에 따라 나는 참으로 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것이 통일원리요 통일사상이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강사들의 강의에 의하면 지상의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공산주의 국가를 살리

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

나는 이곳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 없는 먼 거리에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생활을 하였다. 이곳에 와서 보니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진실과 성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종단들이 왜 한결같이 한 형제자매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공산당원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구호는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것이었소. 이곳에서 알고 보니 지독한 범죄자가 되었소. 문선명 선생님은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밝히신 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참부모님이란 칭호를 받으신 인류의 어버이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선명 선생님을 따르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하오. 공산주의는 인류를 잘못 인도하였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 계셨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역적이었소. 그리고 영혼은 이곳 천상에서 살게 되어 있소. 공산주의자들이 살길은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모시는 길 밖에 없소. 이것은 나의 간절한 부탁이며 간절한 호소요. 이제 어두운 늪 속에서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을 모시며 열심히 살 것이오.

7) **몰로토프** (Vyacheslav Molotov) 1890~1986, 스탈린과 함께 ‘일국 사회주의’ 건설을 강행, 후에 **흐루시초프**와 대립하다가 실각

— **공산주의는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 —

나 몰로토프는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는 한탄과 통회의 소리가 내 가슴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이곳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의 길을 주신 것이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사람들 모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폭로하고 새 출발을 하라는 큰 플래카드가 붙었다. 나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나의 과거를 자수하기 위하여 이곳에 참석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다. 나는 이제 우리 인간의 부모이신 것도 알았다.

권력의 방망이를 지나치게 휘두르며 살아왔던 나는 지금 끊임없는 돌맹이 세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아무리 피해 다녀도 가는 곳마다 수많은 돌이 우르르 쏟아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죄인’이란 고통이 돌맹이 세레의 고통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계셨는데 나는 지상에서 하나님 자식을 하나의 돌맹이처럼 이리저리 마구잡이 취급했으니 그 죄를 어찌 피해 살 수 있겠는가? 통일원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나는 통일원리를 듣기 이전에 이미 하

나님이 계시고 사후세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더욱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공산당원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공산주의 사상가와 정치가가 사후세계에 와서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그 실상을 잘 들어 보라. 지상의 공산당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문선명 선생님이 계신다. 그 어른의 사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새로운 인생을 영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몰로토프 —2002. 4. 29—

8) 이토 리쓰(伊藤律) 1913~1989, 일본 공산당 간부, 후에 일본 공산당 비판

—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부모이시다 —

나 이토 리쓰는 천상세계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다. 통일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며,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며, 인류의 부모이시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공산당원과 일본국 여러분! 이곳에서 전망할 때 그대들은 문선명 선생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에 현현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세계 인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형제자매인 것을 지도하시고 계신다. 나는 이곳에서 그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신 문선명 선생님을 여러분은 너무도 모르고 있다. 유태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지도자이며, 그 시대의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

일본인들이여! 특히 일본 정치가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대의 메시아요, 구세주였소. 이 시대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는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이다. 일본국은 하루속히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반복되면 일본은 멸망합니다. 깊이 생각하소서! 천상 영혼의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9) 루게(A. Ruge) 1802~1880, 헤겔좌파, 헤겔 법철학을 비판, 마르크스
에 사상적 영향을 미침

— 무신론의 합리화는 악마의 세계화에 다름 아니다 —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외친 공산주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계신다. 사후 세계도 있다.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 루게가 영혼의 세계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루게는 이곳에서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받았다. 통일원리는 문선명 선생님께서 수많은 악마와 싸워 가며 찾아낸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심도 밝혔다.

공산주의는 악마의 사상과 짝꿍이 되어 인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리화 합리화시킴으로써 악마가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게 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원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을 공산주의 사상과 비교해 보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인간은 단지 물질적 존재라고 규정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이다. 통일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선생님은 참부모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지상의 여러분은 자

신의 내세를 철저히 준비하라. 여러분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기를 부탁한다.

루 게 -2002. 5. 2-

10) **백남운(白南雲)** 1894~1979, 연희전문학교 교수, '조선사회경제사' 저술, 1948년에 월북, 북한과학원 원장,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송대학 총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 **하나님주의를 중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 —

참으로 눈물겨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문선명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체는 이미 잃었지만 영혼이 사는 이곳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과 무형실체세계의 실상, 그리고 죄지은 자의 탕감법 등을 여러 영인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통일원리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내시기까지 문선명 선생님의 혈투전의 고초를 짐작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공산주의 사상적 오류를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의식주에 있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성취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 생활을 경시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신을 찾지 못했고 내세를 생각하

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이념을 중심하고 의식개혁이 절대 필요합니다. 인류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로하신 육체를 이끌고 수고하시는 문선명 선생님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송구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하여 서러움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지난날의 무분별한 행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주의를 중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백남운 —2002. 5. 3—

11) 크루프스카야(N.K. Krupskaya) 1869~1939, 레닌의 부인, 교육자

— 하나님주의의 혁명가가 되고 싶다 —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크루프스카야는 지상에서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로 계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지상생활에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심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주의의 혁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없는 죄인의 입장이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주의 혁명의 투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생명으로 잉태되어 금방 유산하여 죽어 가는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부글부글 엉켜서 아우성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주의를 전혀 가르칠 수 없는 자리에 나는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처지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제 통일원리를 착실히 연구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성 혁명가로 받아 주소서. 훌륭한 강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잘못 살았던 한과 슬픔이 오열하는 심정을 지니고 통일원리를 강의하겠습니다. 잠시 지나올 지상생활에 너무 집착하였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주의를 중심하고 살겠습니다.

지상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못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주의로 방향전환을 하십시오. 하나님주의만이 인류를 바르게 선도하는 진리입니다.

12) **박헌영(朴憲永)** 1900~1956, 상해 공산청년단 책임비서, 동아일보 기자, 조선공산당 총비서, 조선인민국 총 정치국장

—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남북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하나님은 계셨고 사후세계도 존재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통일원리는 죄인인 나 박헌영의 정신세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 모두는 실질적으로 한 형제자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는 서로 돌아서서 총을 겨누고 죽이고 권력투쟁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았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실적은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참으로 인생을 헛살았다.

이곳 천상세계에서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함께 통일원리 강의를 듣고 앉아 있다. 정말 격세지감이 생긴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알지 못한 인간의 무지가 인류역사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였다. 하나님은 지옥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옥으로 다시 가겠나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심을 전하겠나이다. 유구한 세월 동안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몰라보았던 슬픔과 아픔을 저는 깊이 체휼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참부모님의 사명을 지니시고 공산권 세계를 해방하기 위

하여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니 천상의 우리들은 하나님주의를 중심하고 모시고 일치 단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인 여러분은 문선명 선생님을 모시고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가르침을 철저히 생활하여 사후의 삶을 지상에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박헌영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남북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헌영 -2002. 5. 5-

역대 미국 대통령 영계보고서

1)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재임기간 1789~1797,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 건국의 아버지

—메시아의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조지 워싱턴은 이상헌 선생을 통하여 문선명 선생님과
그분의 업적 그리고 사상을 소개받았고,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
로 현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단한 감격을 받았다. 이상헌
선생을 통하여 문선명 선생님이 인류의 메시아와 참부모로 등
극하시시기까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역정과 수고, 통일원리
를 찾아내시기 위한 사탄과의 혈투전 끝에 거두신 섭리적인 승
리, 그리고 유구한 세월 동안 동시성시대의 섭리를 경륜하시며
인류를 기다려 오신 하나님의 사정 등 여러 가지 감동적인 내용
들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의 메시아는 미국 국민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인류를 평화사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정성을 들이시는데, 미국 국민들은 메시아를 모시는 데 있어서 정성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또 메시아가 미국 땅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미국 국민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점이 무척 안타깝다.

오늘날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메시아의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국 국민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가였는가? 여러분의 선조들이 미국을 건국할 때 하나님을 최고의 정상에 모시고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가? 미국은 회개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과 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미국 국민들이 회개하고 메시아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재임기간 1801~1809, 미국의
3대 대통령, 독립선언서 기초

—건국정신으로 돌아가라—

조용한 나라 한국에서 엄청난 성인,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동방의 밝은 빛이 온 누리에 비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퍼슨의 심정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미국 건국정신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건국정신에 못지않다. 나는 그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사후세계에서 나는 조용하고 조그만 한국인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다. 사상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그리고 수많은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평화와 행복은 어디에 있겠는가?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참부모는 세계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 보라! 미국이 외적으로 최강국이라는 자존심만을 찾지 말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라!

미국 국민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건국정신으로 돌아가라! 한국에서 현현하신 인류의 메시아,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우리의 건국정신과 그분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대통령과 왕들이 그분이 제시하는 평화사상의 위대함에 감격하고 있다.

미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진리와 새 소망의 땅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미국의 소명이다.

토머스 제퍼슨 — 2002. 6. 10 —

3)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재임기간 1861~1865, 미국 제16대 대통령,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를 해방시킴

—참부모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가길 바란다—

문선명 선생님 만세, 재림주 메시아 만세, 인류의 참부모님 만세! 너무나 큰 감탄과 감격의 순간들을 체험하면서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서로 교통할 수 없고 왕래할 수 없음을 에이브러햄 링컨은 무척 안타까워했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이심에 틀림없다. 그분은 종단들간의 차별도, 인종들간의 차별도 없이 사랑하시며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 참부모의 사상이 아니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여러 차원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

미국 국민들이여, 전쟁과 무력으로 평화가 실현되겠는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 인류 앞에 현현하셨다. 내가 통일원리강의를 청강하면서 환상을 보았다. 이곳의 흑인 · 황인 · 백인, 기독교인 · 불교인 · 유교인 · 회교인들이 모두 다 함께 둥글게 모여서 춤추며 기뻐하였다. 그 가운데 환한 광채, 즉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았는데 에이브러햄 링컨도 그 속에 뛰어들어 함께 춤을 추고 싶었다.

미국 국민들이여, 그리고 세계의 인류여! 흑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천상세계에서 함께 모여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곳에 와서 체험한 사실이다.

나는 미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메시아요,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셨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메시아를 모시고 참부모의 사상을 중심하고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 바란다.

전쟁과 무력은 인간지옥을 만들 뿐이다. 이제 지상세계에서는 지옥의 종말을 선언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인류의 평화사상은 메시아의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상세계의 삶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삶이다.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링컨의 간곡한 부탁이다.

문선명 선생님, 존경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문선명 선생님을 메시아 재림주로 굳게 모시고, 인종과 종단의 벽을 무너뜨리며, 참부모님의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활동하겠습니다.

4)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재임기간
1933~1945,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4선 대통령, 1930년대 대공황의 타개
를 위한 뉴딜 정책 추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봅니다. 불쌍하신 하나님, 한의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루스벨트입니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지만, 영원한 천상세계의 생활안착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한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루스벨트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현재 미국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대부분은 세계 최강국의 백성이라는 지나친 자만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채 후진국들을 위하여 포용력과 겸손한 마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내세를 무척 경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관도 지극히 엉뚱한 방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흔들어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국민들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합니다. 보살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부모이심을 가르치지 못함을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원리의 생경한 진리는 저 루스벨트를 한없이 감동시키면서 지난날 저의 모든 것을 참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제 일생 중 처음으로 느껴 봅니다. 저는 통일원리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찾으시기까지 각별히 수고해 오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의 옥체를 두루두루 보살피 주소서! 이 기도가 너무도 당돌하고 무례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2003. 7. 26—

5)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재임기간 1961~1963,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유엔에 보내는 메시지—

저는 존 F. 케네디입니다. 유엔(UN)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

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지극히 중요한 이슈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케네디가 영원한 세계, 곧 천상세계에서 이 글을 유엔에 전한다는 사실을 지상세계에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빅 뉴스 중 빅 뉴스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케네디는 새로운 진리인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의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오늘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엔에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인류는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돕고 의존하며 하나님의 한 혈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유엔에 참석한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사실들을 선포합니다.

1.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분명히 실존하고 계신다.
2. 인간은 지상생활을 마치면 영혼이 살아야 할 영원한 세계, 즉 무형실체세계가 실재하고 있다.
3.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메시야요, 구세주요, 참부모이시다.
4. 전인류와 유엔은 문선명 선생님의 이념과 업적을 통찰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인류의 영원한 평화세계의 구현은 참부모의 사상을 중심으로 초종교·초국가·초인종적인 차원에서 참사랑을 범세계적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 세계평화는 전쟁과 같은 무력적인 수단으로 이룰 수 없다.

6. 인간을 비롯하여 천지만물은 이성(二性)인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등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인류역사의 출발은 잘못되었으므로 그것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가 경륜되어야 한다.

8. 인류역사의 출발에 큰 오점을 남긴 사탄(루시퍼)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9. 지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계속하여 극심해지고 있다. 무지, 병고, 빈곤과 전쟁 등 발생의 근본원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10.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인류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재이다.

유엔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분명히 이 10개 항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이 시대의 책임을 다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엔 회원 여러분! 유엔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영원한 평화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신들

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찰막한 대통령 임기 동안 유엔을 위하여
책임하지 못한 점을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속죄하는 심
정으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존 F. 케네디 — 2003. 7. 30 —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결의문 채택과 선언식

〈식 순〉

일시 : 2003.7.21

사 회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 기 도 : 프랭클린 루스벨트
2. 결의문 채택과 선언 : 리처드 닉슨
3. 만세 삼창 : 리처드 닉슨

〈기 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 역대 대통령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다음의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결 의하고 선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과 전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 헌신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오니 우

리 모두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결의문 채택과 선언〉

1. 우리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실존하심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무형실체세계(영원한 천상세계)가 실재함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3. 우리는 문선명 선생님은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이심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4. 우리는 인류 문화를 파괴시킨 악마 사탄(루시퍼)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인류역사에 나타난 각종 죄악의 근본요소를 발본색원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5. 우리는 세계평화는 무력적 투쟁이나 전쟁의 수단으로써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참부모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실현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6. 우리 미국 역대 대통령 모두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만세 삼창〉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메시아 만세! 미국 역대 대통령 만세!

平和神經

평화메시지와 영계보고서

인쇄일 2008. 10. 22

발행일 2008. 10. 27

발행처 (주)성화출판사

발행인 양 창 식

신고번호 제302-1961-000002호

신고된 곳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76-6

업무부 701-0110

FAX 701-1991

정가 10,000원

ISBN 978-89-7132-377-9 03230



ISBN 978-89-7132-361-8